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이어
티끌 묻을 것 또한 없나니
만일 이 이치를 깨달았다면
두 눈을 부라리며 참아있을 필요없네
-통간스님-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5월 17일 수요일(주간) 제271호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시절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촌시 청풍대불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시대 박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인터넷을 활용해 영어, 원예, 낚시, 요리 등과 같은 전문 영역의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윈글리쉬(www.winglish.co.kr)의 경우,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작문·회화·토익·토플 등의 정보를 얼람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둔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금 '유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예는, 포항과 광양시가 수립한 세계 첫 사이버 시티(Cyber City) 계획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시의 행정 관리는 물론 일반인의 교육과 문화활동 등 모든 도시생활을 가상공간에서 이루도록 하는 종합적인 도시정보화 사업이다. 사이버 시티가 구축되면 도시내 각 가정은 근거리통신망(LAN)으로 인터넷에 접속, 반상회와 동호회, 게시판 등의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전자상거래와 각종 행정업무를 가상공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 아파트' '사이버 상가' '사이버 대학' 등은 인터넷 활용의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의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5월 현재 1500만명이며 이용시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당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4~10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아직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70.9%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인터넷 이용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인터넷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가깝게 다가온 '인터넷 생활화'

이에 대해 인터넷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는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는 '가상'이 더욱 편리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인터넷의 생활화'가 가깝게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범종교 '국제구호재단' 설립 검토

종교·시민단체 참여…6월25일 '평화대행진' 열기로

지난 3월 온겨레손잡기운동을 함께 펼쳤던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단체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종교·시민단체는 국내외 모금을 통해 북한과 전쟁피해 어린이·여성을 돕는 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구호재단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실린 '한겨레평화대행진' 행사총괄계획안에 따르면, 7월 중 각종 국내 모금행사, 8~10월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순회공연 및 모금행사, 9월 UN 총회 모금행사, 11월 체코 등 전쟁피해 어린이·여성 지원활동의 일정을 잡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 국제구호재단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의에 참가한 한 종교인은 "갈등의 상징이었던 6.25와 한반도를 이제는 평화의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6.25전쟁 발발 50주년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일 분단국에서 세계평화 메신저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구호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금에 들어가기에 앞서 종교·시민단체들은 6.25전쟁 50주년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겨레평화대행진'과 '화해와 평화를 향한 겨레대합창'을 열어 범국민적 의지를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온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0일 4차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화해와 평화를 향한 겨레대합창'을 6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 광장과 세종로에서, '한겨레평화대행진'을 6월 25일 대학로 또는 율림픽공원에서 열기로 했다.

겨레대합창은 노래공연과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 인사의 메시지 낭독, 화해와 평화를 위한 청사초롱 행진과 대동놀이로 진행된다. 평화대행진은 20세기 진혼 영상물 상영, 한겨레 평화선언 2000 및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시지 발표, 통일염원 대합창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23~25일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청소년통일한마당을 펼친다.

종교·시민단체대표들은 한겨레평화대행진 운동본부(가칭)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이달 23일 서울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또는 프레스센터)에서 갖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봉암사 인근 광산 개발로 수행권 침해

조계종 특별수도원인 희양산 봉암사(주지 효광, 문경시 가은읍) 인근에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가 추진되고 있어 수행환경이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봉암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3200여평에 임모씨 등 2명이 수정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95년부터 봉암사 인근에서 토석을 채취해온 원경광업소(대표 한금석)가 10월로 끝나는 사업기간 연장신청서를 9월 산림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광산이 개발될 경우 수행환경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이 일대 문화유적의 파괴도 예상된다. 수정광산 예정지 인근에는 고운 최치원이 말년에 친필을 남긴 선유구곡, 견훤과 왕건이 남긴 산성, 항일의병장 이운강선생의 기념비등 문화유적이 즐비하다. 특히 광산건립 예정지 건너편에 위치한 오봉정지구는 봉암사에서 무문관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원경광업소의 토석채취로 생활 및 수행환경 피해를 입은 봉암사와 인근 주민들은 '완장리 광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에 대한 반대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해 8월 광산개발 예정지가 조림지역인데다 토석채취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 제한지역이라며 일씨의 국유림 대부신청을 반려했으며, 일씨는 이에 반발, 대구지방법원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정광산개발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효공스님은 "이곳의 수행 및 자연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암사는 선문구산의 하나인 희양산파의 종찰로 지난 47년 성철 향곡 청담 혜암스님등이 정화결사를 주도한 유서깊은 도량으로, 60~100여명의 스님이 년중무휴로 참선정진에 임하고 있다. 문경=이윤호 기자

"자비행 실천하는 불자되자"

11일 전국 1만여 사암 봉축법요식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이 11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 봉원사 관문사 탑주심인당 등 전국 1만여 사암에서 봉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28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조계사 봉축법요식은 마음의 때를 씻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관불(灌佛)과 마정수기, 헌화와 헌다 등 전통불교의식에 따라 진행됐다.

조계종 총정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은 일심동체의 큰 나로 돌아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경화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죽기로 결심해 하루빨리 도를 자각하는 일이 부처님 오신날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것"이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부처님의 연기사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에서 "불교가 있으므로 한민족이 존립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 대화합을 이룩하도록 불자들이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은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낭독하고 "남북한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불국정토와 통일조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원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동완 목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자민련 이한동 총재, 민주당 이인제 상임고문 등 종교계와 정·관계인사, 외교사절, 신도 등 5천여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큰뜻을 기렸다. 정성운 기자

"자비와 사랑은 인류 공동의 선"

교회협 초파일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동완 목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일체중생에 불심이 깃들어 있다는 말씀처럼 새 천년, 새로운 세기의 첫 번째 부처님 오신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넘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8일 발표했다.

김동완 총무는 "부귀영화를 벗어던지고 중생의 고통에 참여해 해탈의 경지에서 부처가 된 석가모니의 삶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오늘의 모든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이 지구화와 정보화의 흐름으로 인해 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관심이 되고 공동의 선을 이뤄가는 초석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개신교계에서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우 기자

모범수형자 1441명 부처님 오신날 가석방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하루 앞둔 10일 전국의 40개 구치소·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 1441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살인죄로 19년을 복역한 최재만(48)씨 등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 25명이 포함됐다. 또 전기용접 등 기능자격 취득자 136명, 고교졸업자격 등 검정고시 합격자 31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명 등이 가석방 됐다. 정성운 기자



"세상을 맑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11일 조계사를 찾은 신도들이 마음의 때를 씻어내 세상을 맑히겠다고 서원하며 관불(灌佛)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관정(灌頂)이라고도 하는 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아홉 마리의 용이 향수를 뿌려 목욕시켰다는 데서 유래한 불교전통의식으로, 부처님 오신날이면 모든 사찰에서 봉행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 주 신문 쉽니다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합니다.

프리즘정보통신(주)

주요기능 및 서비스
- 휴대전화 기능
- 무선 인터넷 검색
- E-mail송수신
- 주소록 기능
- 스케쥴관리 기능
- MP3플레이어 기능
- 실시간 불교뉴스
- 공연 /전시회소식
- 오늘의 법문
- 찬불가 듣고 배우기
- 전통사찰 소개
- 오늘의 생활지혜
- 쇼핑/경매기능



• 휴대 무선단말기 SPEC
화면 회상도 640×480 VGA칼라
크기:12.6(길이)×10.2(폭)×1.9(높이)cm
windows CE 탑재
핸드폰 기능(CDMA) 통신기능
무선데이타 전송속도 56K이상

• 무선불교정보서비스
불교실시간 뉴스, 공연/전시회 오늘의 법문,찬불가 듣고 배우기,전통사찰소개, 오늘의 생활지혜등이 7월중 무선불교정보로 서비스 됩니다.
무선 인터넷 검색과 E-mail 송수신,PDA기능등과 함께 제공될 무선불교정보서비스 단말기는 현대불교신문사 인터넷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MP3,휴대전화,무선인터넷 검색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단말기만 있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인터넷불교백화점 www.mahamall.co.kr TEL:737-8881(代)/732-1522

참여업체 SK SK Telecom SYBASE SYBASE 한국대상 CyberBank

무선 불교정보 서비스는 프리즘정보통신과 공동으로 현대불교신문에서 제공하며 회원가입 및 무선 불교정보 단말기 구입은 현대불교신문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님-신도 신분아닌 계율차이"

교불련 '사부대중의 관계' 세미나서 제기

"상호 보완 · 평등관계 유지해야"

"한국 불교의 미래는 사부대중의 제자리 찾기와 이를 토대로 원만한 불교공동체를 이룰 때 기약할 수 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가 20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사부대중의 관계 정립 과제'를 주제로 개최할 봉축학술대회에서 박선영 · 김호성(동국대), 김응철(중앙승가대), 이평래(충남대) 교수 등은 새천년을 향한 불교계의 출가와 재가자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비구와 비구니 스님의 사명과 역할'(김응철), '우바새와 우바이에 대한 인식과 변천사'(김호성) 등에서, 두 교수는 부처님이 승가(출가)와 재가의 차이를 둔 것은 신분상의 차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율의 차이에서 구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승가와 재가는 상하 관계로써 바라볼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를 끌어주는 보완 관계라는 것이다.

김응철 교수는 "승가는 수행에 정진해 인류가 의지할 수 있는 등대, 즉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며 승가의 변화를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승가의 교학 체계를 바로 세우고 또 현대적인 계율을 정립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종권의 집착과 잦은 분규는 수행과 교학 체계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가는 승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는 97년 한국갤럽의 '종교단체의 역할 수행에 대한 종교인의 평가' 조사에서 불자의 만족도는 약 64.5%로 타종교(천주교 92.1%, 개신교 79.1%)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또 김호성 교수는 "대승불교에서 재가자는 '법의 포교자' '법의 실천자'로서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보살행원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재가자의 자리가 확대되었다"고 말해 재가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초기불교에서 재가자는 '공양자' '외호자' '청법자' 등 수동적인 모습이었지만, 대승 경전인 〈유마경〉 〈승만경〉 〈화엄경〉의 유마거사, 승만부인, 재가 선지식 등과 같이, 타인을 깨달음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 역할이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 이르러 상호 보완 · 평등 관계로 사부대중의 위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연기법의 차원에서 '둘이 아닌(不二)' 원만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불교공동체의 실현'에서 "출가자나 재가자는 각각의 본분에 충실하며, 공동체 의식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박선영교수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평래교수는 '연기법에서의 재가와 출가의 관계'에서 "재가와 출가는 공동운명체"라며 "재가와 출가가 함께 사찰과 삼보정재를 관리하고 종회를 구성하는 등 공통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며 재가의 적극적인 교단 운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내 것만 절대선, 남의 것 배타' 화합-공존 해치는 구시대 유물

정대스님, 평화방송 인터뷰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케이블TV 평화방송에 출연해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대스님은 7일 총무원장실에서 가진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것만이 절대선이고 남의 것은 배타해야 한다는 생각은 화합과 공존의 시대인 현시대에는 소멸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지적하고 "종교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공동의 실천을 해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이며, 중생과 인류를 위해 복을 짓는 일이 된다"며 불교와 천주교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고(宗)의 가르침(敎)이자 실천적인 덕목이 바로 종교"라고 강조한 정대스님은 이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말씀이 실천적 행동양식에서는 서로 다를 바 없다"며 "고통받고 소외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해야 할 종교인의 사명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대스님은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0년만에 처음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민족의 가장 큰 현안인 남북간의 화해와 대화분위기 조성이야말로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종교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방송은 정대스님과의 인터뷰를 10일 '테마리포트,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 방송했다.

정성운 기자

"남북 종교인 교류 통일 밑거름"

통일문화 준비 토론회

새시대불교포럼(대표 박승원)과 통일정진불교연대(운영위원장 성태용)는 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화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문화를 준비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괴리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정부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이제 서로 보완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고려대 강만길 명예교수는 "적극적 화해정책을 펴는 정부아래에서의 민간통일운동은 非반정부적이고, 非관변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민간차원의 식량 · 비료 등 북쪽돕기운동은 물론 종교계의 북쪽 종교인 초청 등을 통해 민간인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스님과 함께 춤을 제1회 봉은사 야간 거리축제가 부처님오신날 11일 저녁 사부대중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은사앞 도로에서 열렸다. 이번 야간 거리축제는 레이저빛을 이용해 하늘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시는 모습을 환상적으로 재현, 눈길을 끌었다. 10개의 캐릭터 인형이 벌인 퍼레이드(사진)는 젊은층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또한 김민종, 코요테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시민들과 스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잔치한마당을 펼쳤다.

개신교 목회자 60여명 깨달음 찾아 禪수행

'예수살기모임' 95년 결성 월간 '풍경소리'도 펴내

최근 종교간 협력과 화해무드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목회자 60여명이 불교 선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찾아 나서 화제다.

95년 동양사상에 심취하여 기독교와 동양사상의 접목에 나선 이현주 목사(감리교신학대 강사)의 뜻에 동참한 전국의 기독교 목회자 60여명으로 구성된 '예수살기모임'이 그들.

예수살기모임은 불교적 깨달음을 찾기위해 금강경, 인도 불교서적등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월 1회 함께 공부하며, 여름 · 겨울에는 참선수련회와 법륜(정토회 지도법사)스님 초청 세미나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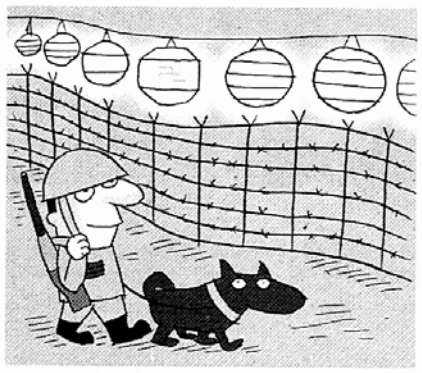
'좋은 것일수록 나누는데 힘쓰자'는 뜻을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예수살기모임은 99년 6월 잡지 · 출판사인 풍경소리사(대표 김민해 목사)를 등록하고 5월까지 통권 12호를 발간한 월간(풍경소리)와 틱낙한 스님의 글을 모은 '읽을거리 3', 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한 동양의 가르침' 등 5종의 단행본도 각 7~800여권씩 발간해 모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정은숙(광주 청솔화원)씨는 "몸으로 읽는 경전 '금강경 읽기'를 파란색 연필로 밑줄 그어가며 보면서 내용들을 내 안에 담아두곤 한다"며 "삶을 소중히 생각하게 해주는 〈풍경소리〉는 잃어버린 참 나를 찾게 해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통일을 기원하며…

태고종 종무원장협의회 결성

19일 창립…친목도모 · 종책 개발 목적

태고종(총무원장 인곡) 산하 전국 시도 교구 종무원장들의 상호 친목 도모와 종단 발전을 위한 종책 개발 등을 협의할 '태고종 종무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된다.

인천종무원장 대은스님 강원종무원장 백운스님 충북종무원장 성수스님 대전종무원장 월해스님 경남종무원장 월봉스님 등 태고종 전국 19개 교구 종무원장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갖고 협의회 구성어합의,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갖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국 종무원장들의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함은 물론 현재 침체에 빠져 있는 태고종의 발전을 위한 중 · 장기 종책 개발과 종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 외호단체로서 역할을 활발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무원장협의회 창립준비위원장 대은스님은 "태고종의 각 종무원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활동도 활발한 만큼 각 교구가 연대하고 상호지원할 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종단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면서 "종무원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로서 스스로를 닦는 수행도 함께 하는 기회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도 최근 종무회의를 열고 종무원장 협의회가 창립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 평화실현 차원 허용"

KCRP, 정부에 촉구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최창규 회장은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종교간의 평화적 공존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달라이라마의 9월초 방한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 회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외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평화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달라이 라마 문제는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 범불교대책위원회'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불교계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주축이 되어 초청한다면 정부나 중국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담당☎(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특집 스포츠조선과 함께하는
현해탄건너 대마도탐방 ₩440,000
· 일 정 : 부산 - 대마도 - 부산(2박 3일)
· 포함사항 : 선편, 전 일정 숙박, 관광, 역사학자 및 현지안내인 동행, 보험
· 출 발 일 : 5/19 6/2, 4(금) - 20명 선착순
신영훈과 함께 현해탄과 대마도를 탐방합니다.
(신영훈 원장의 특강)
▶ 신 영훈 (申榮勳) 연혁
1935년 개성에서 출생.
1959년도부터 국가지정 중요 국보 · 보물 보수에 종사. 문화재 전문위원(1962~1999)이었으며 법련사 불일문화원 원장, 해라시아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
주요 작품은 송광사 대웅보전, 보탑사 3층석탑, 저서로 「한국의 궁실 건축」「우리 문화 이웃 문화」 등 다수.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쩨-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 Zeep(4인탑승), 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탱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야!
時호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서양을 남나들던 구법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험
· 출 발 일 : 5/29, 6/12, 26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5/28, 6/11,7/2,16 목,일(15명이상 출발)

도반과 함께 – 네팔 히말라야 순례를...
설산 순례 (트레킹) ₩1,290,000
도반과 동행시 도반의 경비는 ₩1,190,000 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지인 히말라야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안나푸르나 히말라야로 떠납니다.
※ 순례후 네팔과 방콕 그리고 인도의 성지를 개별적으로 순례하시고 델리 또는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 합니다.(1年 항공권)
· 일 정 : 카트만두-히말라야 순례-포카라-카트만두-방콕(8박9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소(조식포함),국내선,현지안내원(산길안내)
· 출 발 일 : 5/23,30, 6/6,13 매주 화,목,토 (2명이상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목어

가능성의 나라

한국 종교계, 가톨릭 개신교 유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올해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해 주었다. 바티칸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오고 신부님이, 목사님이 직접 산사를 찾아 법회에 참석하는 등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불교 역시 몇 년 전부터 종교 종파적 경직성을 털고 산사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해 주고 불교방송에서 캐럴을 들려주는 등 종교화합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새 천년을 맞으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 2천년간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교회가 행했던 폭력'을 진지하게 참회한 내용은 모든 종교계가 주목할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진리를 위한 폭력, 그것은 아직도 정치적 또는 권위적 교리와 교세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피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종교백화점이라 불리는 나라, 한국에서도 일부 종교적 맹신자들로 하여 특히 불교가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부처님 오신날은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에 화해와 화합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반갑다.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과 사상을 가진 동서양 종교는 화합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함께 공유할 공통의 장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 영역의 확장 또한 가능하다. 그것은 '같은 것 찾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자비와 사랑,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 등 실천행의 장이 다르지 않다. 북한동포를 걱정하며 함께 통일을 위한 지혜를 짜내는 일에도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끝없는 인간들의 욕망으로 황폐화 되고 있는 환경문제며 인권문제도 그렇고 무너져가는 현대사회의 도덕성 회복에도 어느 종교나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유전공학 등 현대과학의 위험한 독주를 보는 시각 역시 종교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고 보면 한국 종교계가 공유할 영역,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 어쩌면 이 같은 한국적 상황이 세계의 종교화합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너는 오이, 나는 가지, 우리는 다정한 친구'란 선시(禪詩)의 세계를 생각해 보며 종교화합의 시대, 비교우위를 위한 불교계의 분발을 기대해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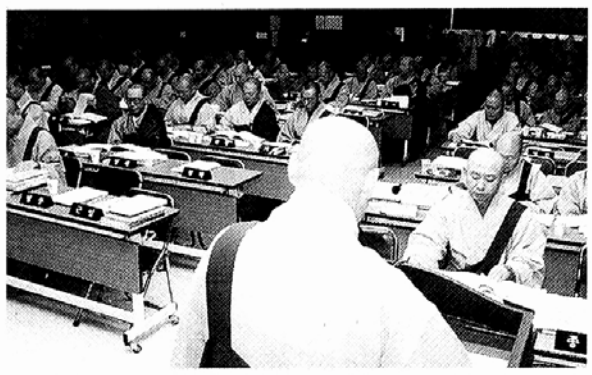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 종회 변화 움직임

종책 생산기구로 거듭나자

분과위별 종단현안 주제선정
세미나 열고 자료집 발간키로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책생산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각 상임위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143회 종회에서 집행부 보고를 듣고 있는 종회의원들의 모습.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책생산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무, 교육, 포교 등 중앙종회 7개 상임분과위원회는 분과위별로 종단 현안을 주제로 선정,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자료집 발간을 통해 종단현안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종책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공청회 일정은 상임위에 따라 다르나 7~8월 중 열리며, 9월께 열릴 예정인 임시종회에 결과 보고와 함께 필요할 경우 종법 제·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청회 주제가 승가교육, 군포교, 징계자 관리방안 등 종단의 주요 현안이거나 이후 종단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종회는 이같은 상임위 활동에 5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는 지난 해 종책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종단사태 등의 이유로 열지 못했다. 총무, 포교, 교육 분과위원회만 1, 2대 중앙종회 회의록 발간, 신도교육체계 세미나, 승가대 학인정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상임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종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종도들의 바람이 있었다"며 "종책을 제시하는 종회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앙종회는 성원 미달로 유회를 거듭해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하는 등 파행을 자주 보여 종도들로부터 "종도들의 대의기구 및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종회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였다. 올해 중앙종무기관 예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통과해야 하나 시일을 늦추다 올 3월에야 확정하는 기현상을 보여줬다.

종책연구모임을 표방하고 있는 종회 내 그룹의 변화도 요청된다. 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른 계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 한해 동안 안건으로 상정된 동국학원 이사 선임건은 사안의 본질과 다르게 계파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진 게 사실이다.

예산안 심의에서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따라서 종책공청회 개최와 함께 종회의원들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의 활용도 검토해볼만 하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상임 전문위원을 적극 활용해 종단 현안에 긴급히 대처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각 상임분과위별 공청회 주제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위원장, 간사)

△총무(영담, 법안)=3~7대 중앙종회 회의록 발간 △교육(지하, 향적)=21세기 승가교육의 방향성 △포교(지홍, 지현)=군포교 활성화와 군내 우수인력 양성 방안 △사회(여연, 법보)=국립공원내 사찰환경 보존과 대책수립 △재정(위원장 공석, 종삼)=토지 처분 실태 조사와 관리 방안 △호법(대원, 도완)=통합종단(62년) 이후의 징계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효율적 관리 방안 △법제(정휴, 광조)=종단 주요기관 및 종법 해설서 발간.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종교목적 부동산 면세 당연"

조계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조계종 총무원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 82조1항을 개정해 종교목적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면세조치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에 전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82조1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따라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6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처분하면 특별부가세(자연인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교단체도 부동산 양도시 세금을 내야 하며, 조계종의 경우 매년 3억여원의 지출이 발생된다.

조계종은 의견서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없애는 것은 비영리사업의 축소를 가져와 결국 국가재정 지출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탈세 대책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조계종의 토지 양도는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수용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별부가세 면세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수용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9년 조계종 사찰의 토지 양도면적은 14만㎡로 금액으로는 22억원에 이르며, 모두 공용수용이었다. 조계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니 협조하겠지만 세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선조들이 사찰의 유지를 위해 마련한 토지를 내줘야 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도 적지 않다. 높은 세율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구입 당시와 처분 때의 차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공용수용에 의해 처분하면 취득시와 처분시 차액의 25%가 세금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한시법은 시한 종료를 앞두고 대부분 연장하는 것이 관례"라며 "조계종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누구든 본래면목 자각통해 깨달음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⑮선종 성립에 담긴 의미



종호스님
동국대 교수 · 선학

선종의 성립은 불교사의 일대 대변혁을 가져온 중대한 사건이다. 부파불교나 대승불교처럼 독창적 사상과 수행체계를 가진 이른바 '선불교'가 탄생하여 기존 불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실천불교로 펼쳐진 신불교 운동이 선종의 성립에서 기인한다.

근본불교의 가르침을 논리화한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이론화로 인해 불교를 전문 수행인 중심으로 바꾸어버린 것이 부파불교이고, 이런 부파의 한계를 타파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불교를 지향한 것이 대승불교이다. 여러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대승 또한 경전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설하고 있지만 교리의 체계나 수행법 등 실제적인 면에서는 부파 못지 않은 난해함과 방대함 및 깊은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사상의 관념화나 신앙에 바탕한 수행을 보이고 있는 이런 대승을 극복하여 새로운 불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선인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강조하고 있는 삶의 형태와 이를 성취하는 수행법에서 보이고 있는 현격한 특색이다. 대승의 경우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중생의 제도도 함께 하는 소위 '보살'을 이상적 삶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부처를 이룬다는 공통의 목적은 있으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오랜 세월 수행해야 한다는 장겁수행의 의미가 들어 있다.

이에 비해 선은 바로 지금의 당처(當處)에서 깨달음을 얻어 곧바로 깨달은 존재로 살고자 하는 '성불'을 이상으로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본성, 곧 본래면목에 대한 자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중생을 제도하며 살아가는 각자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임제가 설한 '조불'이나 십우도의 열번째 '입전수수'가 그런 삶이다.

이를 체득하는 방법론에서도 선은 대승과 구별된다. 6바라밀 등 수행의 집적을 강조하는 것이 대승이라면 一念의 一時修, 곧 한 생각의 순간적 자각을 통해 일체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선이다. 〈육조단경〉에서 언급하고 있듯 한 생각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꾸어내면 부처가 되고, 거기에 미혹하면 중생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이루는 방법이다. 선은 이의 성취를 위해 경전을 배척하거나 청법의 부정, 심지어는 살불살조(殺佛殺祖)라는 극단적 행동까지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상적 삶의 형태와 이를 성취하는 방법론은 어떤 가르침에서든 핵심적인 것이다. 선은 불교가 지향하는 삶의 세계와 붓다가 설한 가르침의 본질을 직시하고 장겁수행을 의식하면서 자각각타를 추구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바로 지금의 卽今에서 자신의 생각과 언행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내재된 가르침에의 수순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절대적 존엄성과 주체적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선세계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흔히 방이나 할과 같은 파격의 모습으로, 그것도 촌각의 사량분별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섬광같은 순간에 펼쳐진다. 멈칫거리면 벌써 눈에 번쩍이는 불똥이 튄다. 본래의 자리, 자재의 세계에 주저함이나 의혹이 없다. 의혹은 고통을 낳아 중생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단도직입이다. 바로 이것이 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며, 오늘날까지 불교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원천이다. 눈 앞에서 활발발하게 펼쳐지는 생명의 약동,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선의 표현은 여기에 그 참된 목적이 있다. 선의 이런 세계관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교시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크다. 온갖 사상에 휩싸이고 매력적으로 비쳐지는 주변의 여러 것들에 이끌려 부표처럼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상실만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직관에 의한 올바른 세계관의 확립과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은 자신과 이웃에게 평온과 행복을 준다. 선사들이 불교의 교조인 붓다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불충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선세계를 펼치고 있는 것에는 모든 인간들의 절대적 존엄성의 강조와 그 자각을 통한 이상세계의 구현이 있었다. 그것도 내세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이룸이다.

선은 자신과 현실에 철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대한 반조와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선의 삶이 아니다. 교조주의 등 타성에 젖거나 미확신의 진리태를 절대시하는 것은 선이 경계하는 대상이다. 오늘날의 우리가 그러하지 않은지, 선의 궁극적 삶의 형태에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인간과 역사의 변화, 개개인의 자각을 통해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하면서 그 가능성을 밝혀 주고 있는 것, 선종 성립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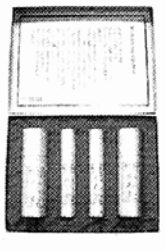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자비로 모두 큰사람 됐으면…"

범어사 찾은 천주교 정명조 주교

천주교 부산교구장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가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9일 범어사를 공식 방문했다. 교구장인 주교가 직접 사찰을 방문, 부처님 오신날 공식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종교간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어사 주지 성오 스님의 환대를 받은 정명조 주교는 "군종으로 있을 때 절에 자주 들렀다"는 말로 인사를 건넸다. 성오 스님은 "방문에 감사드리며 이번 방문이 종교간 화해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정 주교는"부처님 오신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가 모두의 마음에 듬뿍 젖어들어 자기 것만 챙기는 마음이 순화되어 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성오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천주교의 사랑이 합쳐지면 국민의 화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주 만날 기회가 있길 바라며 성탄절에 찾아 뵙겠다"고 답했다.

정명조 주교는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하고 계시던 경봉 스님께서 써주신 탐진대해수 산호출가지-큰바다의 물을 모두 마셔버리니 산호의 가지가 드러난다'라는 글을 방에 걸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용틀임하는 휘호

Focus

일필휘지, 큰붓이 힘차게 나래를 펴자 하얀 한지위에 용틀임이 인다.

율산 리홍재 선생(율림서도원장)은 11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야단법석 대법회'가 열린 안동 봉정사에서 봉축휘호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불(佛) 용(龍) 봉(鳳)등 네 글귀를 써내려간 리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했다. 리씨는 이날 퍼포먼스에 앞서 삭발을 단행, "서예는 곧 마음"이라는 평소의 뜻을 행동으로 보였다. 봉정사=이윤호 기자



정대큰스님 방문

조계종 나눔의 집 등 5백만원 전달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은 8일과 9일 노인복지시설인 경기도 파주 관음대비원과 정신대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 5백만원씩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또 중앙종무기관은 8~10일 종로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가장 등 10가정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10만원씩 생활보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태고종 민족화합 기원법회

태고종 강원종무원(원장 백운)은 4일 춘천 베어스타운 관광호텔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나라의 발전과 민족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승정 영승스님, 총무원장 인곡 스님, 백운 강원종무원장과 강원교구 산하 각 사암 주지 및 교임, 최병구 강원부지사 한승수 국회의원 당선자, 유종수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했다.



수원봉축위 월드컵 성공기원 축제

수원시봉축위원회(위원장 성주·용화사 주지)는 6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통일과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수원지역 4개 청년회 연합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축제는 영산대재, 봉축 법요식, 연등행렬, 통일기원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호국원광사 창건 31주년 기념법회

호국원광사는 4월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초청, 국방부 원광사 창건 31주년 기념 및 진급불자 축하대법회를 봉행했다. 대장으로 진급한 이종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정대 스님으로부터 진급기념 선물과 꽃다발을 받았다.

일주문

장흥교도소 위문법회



정업 선각종 종정은 총무원장 정암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4일 장흥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문하는 위문법회를 가졌다.

백혈병 환자돕기 국악마당



영조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장은 11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백혈병 환자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생명나눔 국악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백혈병 환자에게 전액 전달됐다.

'한라불교' 발행인 취임

수암 제주불교총연합회장 스님은 4월27일자로 한라불교신문 발행인에 취임했다.

공옥진씨 초청 봉축행사



청암 금하선원 주지는 인간문화재 공옥진 씨를 초청, 동작구민을 위한 봉축행사를 6일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인도·북한 어린이돕기 행사

법륜 한국JTS 이사장은 24일 오후 6시30분 여의도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인도·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한국 JTS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서영훈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들이 참석한다.

동국대 개교 97돌 기념행사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8일 교내 예술극장에서 개교 97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장기 근속자와 학교발전에 공이 큰 교직원에 대한 공로상을 수여했다.

생활참선교실 개설

하산 우곡선원장은 16일부터 7월9일까지 생활참선 교실을 개설한다. 강의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이며 진리, 수행, 깨달음을 주제로 진행된다.

유네스코 문화교류 팀장에

이진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실장은 2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팀장에 임명됐다.

"여성권익·사회참여 신장"

여성특위장 맡은 백경남 교수



"문명시대의 대변혁기인 21세기는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특히 불교가 정신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여성들이 건강한 가정와 사회, 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8일 정부 여성특별위원장에 임명된 백경남 동국대 교수(59, 사회과학대학원장)는 여성권익 신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불교여성의 약진을 기대했다. 백경남 위원장은 여성특위를 '여성부'로 승격하고 내실있는 여성 정책을 추진해 여성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의 중추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위원장은 그동안 여성운동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도필선 기자

"화합 보여주고 싶었어요"

삼소회 사진전 연 원현성씨



"화합이죠. 모두가 하나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기 인연에 따라 맺어진 종교는 달라도 결국엔 같은 길에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개인전을 절 마당에서 연 사진작가가 있다. 제목부터 이색적이다. '야단법석'. 4일부터 10일 동안 '삼소회-자비 사랑 은혜 그리고 화합'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 원현성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46점의 작품은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가 지난해 5월 '북한어린이돕기 합창제'를 준비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뤘다.

원씨에게 사진은 하나의 수행이다. "편향된 마음으로 찍으면 사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진찍기 전엔 꼭 108배와 기도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은자 기자



◇이희용 법사



◇김남일 법사



◇박용하씨



◇진병길씨

12회 홍법대상 선정

군포교 이희용 법사

교법사 김남일 법사

일 반 박용하·진병길씨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12회 홍법대상 수상자로 군 포교대상에 이희용 법사, 교법사 포교대상에 김남일 법사, 일반 포교대상에 박용하 불국토 사무국장과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을 각각 선정했다.

현재 군승단 원로법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희용 법사는 1977년 군종 법사로 임관한 후 그 동안 장병 및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 포교와 군승법사의 수행 및 포교활동 지원 등 군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명성여중 김남일 교법사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화활동을 연계 청소년 포교로, 박용하 불국토 사무국장은 어린이 포교활동과 불교사회복지의 저변확대로, 진병길 원장은 경주지역 전통문화 창달과 불교홍포에 앞장 서온 노력으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6월 6일 신창농원.

부산=천미희 기자

8회 분다대상 시상

사회봉사 인성스님

효행 김계호씨

문화예술 송영화 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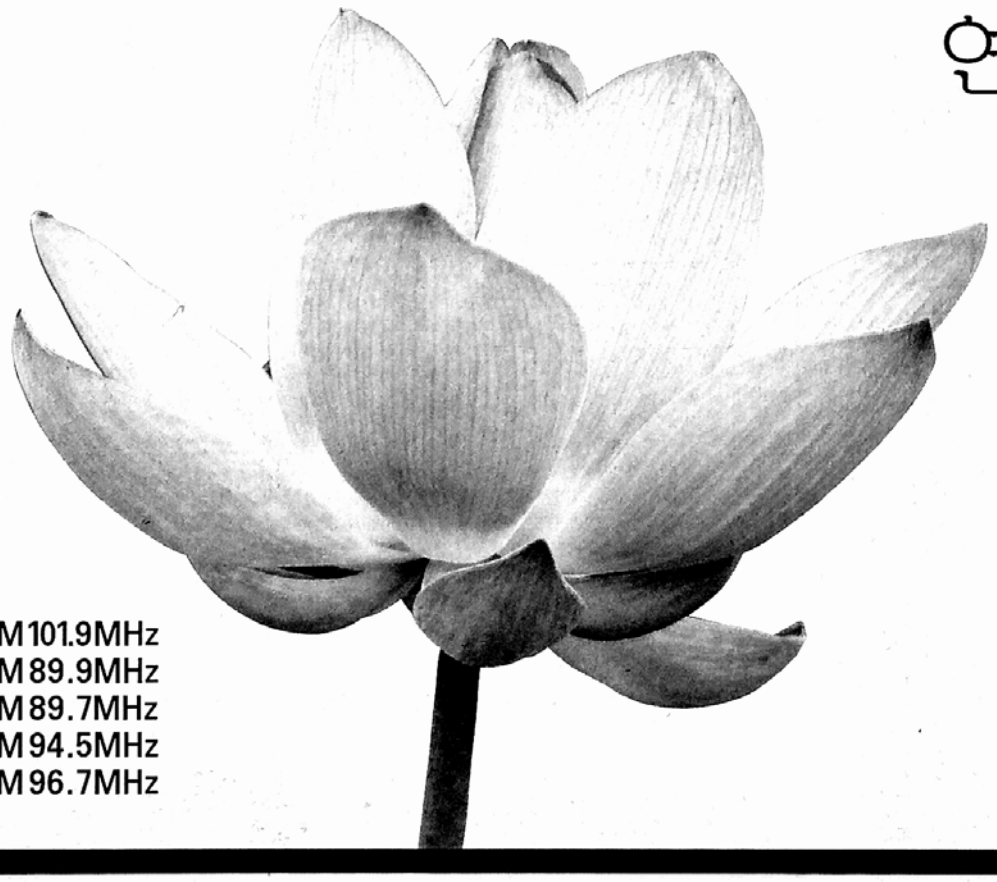




◇위 왼쪽부터 인성스님, 김계호씨, 송영화 옹.

분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김정부)은 7일 제주칼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제8회 분다대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부문 송영화 옹(78), 효행부문 김계호씨(41), 사회봉사부문 인성스님(죽림정사) 등이다.

개국 10 주년
www.bbsfm.co.kr



연꽃피는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느낌,
젊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
미래를 열어 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친구,
친근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끗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서울 FM 101.9MHz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대구 FM 94.5MHz
청주 FM 96.7MHz

BBS 불교방송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02)705-5114/FAX(02)705-5229
후원회 ARS전화 (02)700-0108

언론사 불자회 창립 잇달아

SBS 내달·한국경제 7월중 발족

친목 다지고 종교편향 바로잡기

SBS와 한국경제신문사에 각각 불자회가 생긴다

현재 20여 방송·중앙일간신문사 가운데 불자회가 있는 곳은 KBS·MBC·경향신문 등 3곳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SBS와 한국경제신문 불자회의 창립은 여타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SBS 불자회는 6월3일 강남 봉은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창립법회에서 임원진을 선출하고 회칙 등을 선정해 불자회의 기틀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등록된 회원은 15명. 기존에 활동하던 불자회가 있었으나 IMF로 회원이 많이 줄어들어 활동이 중단됐었다.

방송 3사 가운데 유독 SBS 불자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유자효 SBS라디오 보도본부장은 침체되어 있던 불자회를 다시 일으키고자 회원들을 알음알이로 모으고 창립을 준비했다. 불자인 방송 지원본부장 박준영 전무이사를 주축으로 불자회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이다. 창립 후에는 우선 친목도모를 통한 불자회 회원 늘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불교언론인회에도 등록해 언론인 불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불자회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생각이다. 이와함께 큰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도 봉행하고 불교공부 등도 꾸준히 진행해 SBS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은 김대곤 이비즈니스본부 국장이 불자회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명의 준비위원들로 구성된 준비모임을 갖고 7월 중으로 창립할 예정이다. 지도법사로는 마하보리사 주지 자명스님을 모시기로 했다. 원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창립하려고 했으나 준비가 미진해 창립이 미뤄졌다. 창립 후에는 서로의 신행을 다지는데 주력할 계획. 특히 자명스님을 모시고 봉행할 정기법회를 통해 불교공부로 신심을 다질 방침이다.

김대곤 국장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불자회원들을 모집할 계획은 없지만 정기법회가 정착되면 불법을 갈구하는 회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BS 불자회 창립을 준비하는 유자효 본부장과 한국경제신문 김대곤 국장은 모두 한국불교언론인회 부회장과 임원으로 불자 언론인들의 신행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불자회 창립의 필요성을 느껴 발벗고 나선 것. 언론사 불자회가 늘어날수록 기존 방송이나 언론에서의 종교편향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280 노인영정 촬영

운불회 부산역광장서

한국운전불자기사회(회장 조홍인)는 7일 부산역 광장에서 노인 영정사진 무료촬영을 실시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영정사진 찍어주기는 올해로 4회째. 이날 동참한 280여명의 노인들에게 염주, 수건 등의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영정사진은 10일부터 동명불원에서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한국운전불자기사회는 부처님 오신날 당일 법회때 동명불원을 비롯한 사찰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5월말경 양산 원동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영정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 원 주
〈명성여자고등학교장〉

연두빛 이파리가 빼곡하게 들어차 넘실대는 학교 울타리 서쪽에 성소가 마련되어 있다. 청동으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진 아늑한 공간이다. 3천명이 넘는 학생과 함께 수백의 교직원이 우러러보고 있는 곳이다. 보살상 북방에는 5층 동탑이 간결하게 자리하고 있다. 관음상 남방 아래쪽엔 웅달못이 조성되어 있고 물레방아가 삼세를 흘려 버리듯 돌아가고 있다. 그 앞 길에는 등나무 넝쿨이 억세게 엉켜 뻗어 녹색 터널을 이루고 있다. 힘겨운 중생의 무게를 쉬게 하는 벤치가 한참 길게 배열되어 있는데 꿈많은 소녀들이 무리지어 재잘대고 노는 곳. 이곳에서 하루가 열리고 닫힌다. 정녕 내 마음의 불국토라 하겠다. 유마거사는 도량 아닌 것이 없다 했다. 부처님의 도량에서 봉직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있어 행운이자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믿고 충만한 법계의 부처님께 항시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의상대사 법성게에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란 법구와 같이 처음 세운 원력을 체험하며 불퇴전의 신심으로 살고 있다.

33년전 명성여고에 교법사로 첫 부임했을 때 세운 원력은 학교 교정에 만인이 추앙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상을 세우는 일이었다. 30여년 동안 꾸준히 발원하고 봉안한 관세음 보살상이 나에게 있어서는 원력보살이다. 함께 불사에 동참해야 할 사람도 반대 의견으로 일관한 어려운 역경이었으나 제불보살의 보살핌으로 불사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 30여년의 원력이 회향된 것이다.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 보살상을 항시 가까이에서 뵙고 깊은 미소를 살펴 예경할 때 우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고결함과 자비스런 덕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같이 자비행의 덕성을 실천하는 보살들이 수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직원 모두가 보살이며 우리들 자녀와 제자들이 다 보살이다. 어떻게 하면 이 보살 모두에게 유익한 도량과 배움의 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이들 구성원 모두는 자신이 만든 원력과 그 힘의 작용에 의해 자기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다.

고 무심해질 수 있어야 한다. 고착된 관점이나 집착하는 아집으로는 바르게 사물이 보이지 않는다.

가능하면 나는 일터에서만이라도 공과 사를 구별하여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공무를 사적인 것으로 잘못 처리하면 함께 같은 일터에서 상생하는 보살들의 마음밭에 상처를 주게되고 보리심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많은 직원들에게 양면을 직시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귀의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이미 집착하면 그 자체가 미혹하다는 것이다. 유마경의 가르침은 장소에 집착하면 법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다. 대상이나 장소 등에 집착하지 않고 인연하여 이 직장에 근무할 때까지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관계있는 모든분들에게 언제나처럼 각종 법회를 열어 불심 계발의 불사에 매진하리라. 인드라의 그물처럼 엮어진 우주 법계가 온통 도량인데, 함께 진화하고 있는 수천의 학생 보살과 교직원 보살들에게 2544번째 부처님 오신날의 뜻을 기리고 싶을 따름이다.

"선·악 이분법 잣대 벗어나길"

게으름이나 근면은 그 사람의 개성이자 특성이지 선악의 판단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크게 경계해야할 일 가운데 하나가 선이 아니면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다. 〈유마경〉의 교훈이 무엇인가.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다.

선악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치가 아니다.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준이거나, 기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서다. 대립하는 두개의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자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들과 인연있는 삶과 환경이 그저 그런 것이라



◇2일 열린 마포경찰서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포교원은 마포경찰서 불심회를 적극 지원해준 박정원 마포경찰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웃과 함께하는 불자 다짐"

중앙병원등 직장불자회 봉축법회

중앙병원·국립의료원 법우회, 마포경찰서 불자회 등 직장직능 불자회들의 봉축법회가 연이어 봉행됐다.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중앙병원 불교법당은 개원 기념 및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2일 봉행했다. 쾌유발원문, 쾌유 신행수기 발표를 비롯해 수술지원금 전달에 이어 2부에서는 선무등 문화공연과 관불의식이 이뤄졌다. 지정스님(불광사 회주)은 봉축법문에서 "부처님은 병의 원인과 발생을 이해하고 환자를 치료해 주는 바른 의사"라며 "의사와 보호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사명감으로 직업에 몰두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의료원 법우회(회장 황영희)는 3일 관불의식, 제등행렬 등으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를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는 8일 한탑스님(정토사 회주)의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을 주제로 한 봉축법문을 듣고 제등행렬을 했다.

이밖에 마포경찰서 불심회는 경승실과 2일 삼존불 후불탱화 봉안 점안식과 함께 봉축법요식을 거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이 3일 가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덕화스님(승덕정사 주지)과 지홍스님(조계사 주지)은 조계종 포교원장 감사패를 받았다.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는 4일 연등점등식을 봉행했다. 8일에는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의 봉축법회 및 연꽃등 나눠주기 행사와 한국보훈병원 봉축법회가, 11일에는 지하철법우회가 종합운동장역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자비의 말씀' 게시판 70곳 확대

서울지하철 6·7·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6·7·8호선 70개 역사에 지하철 포교용 게시판 '자비의 말씀'이 설치된다. 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완)와 풍경소리(대표 성운스님)는 6일자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자비의 말씀' 게시판 부착승인을 정식으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공사 소속 6·7·8호선은 미개통 역사가 많아 70개 역사에 대한 게시판 설치는 개통 일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풍경소리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철역과 인근 사찰의 자매결연을 유도해 지역적 특성에 맞춰 지하철 공간을 포교 및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비의 말씀'은 이미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115개 역사 및 서울지방철도청 소속 100개 역사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클릭! 새 홈 페이지

■포교사와 예비 포교사 모임(http://www.freechal.com/pokyo)-4월14일 개설. 포교사와 포교에 관심이 있는 불자 모임. 각 분야에서 포교에 힘쓰시는 포교사와 포교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포교사가 되려는 불자 상호간 정보 교환 및 격려하는 모임.

■불.사.조(http://cafe.daum.net/buddhasasana)-4월14일 개설. 불.사.조(불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광동여고 불교학생회 회원들의 쉼터.

■국민대학교 불교학생회(http://www.freechal.com/kbh)- 4월15일 개설. 국민대 불교학생회 홈.

■성주암 연화합창단(http://cafe.daum.net/Seongjuam)-4월17일 개설. 관악산에 위치한 성주암 연화합창단의 홈. 노래를 사랑하는 불자들과 꾸며나가는 공간.

■가릉빈가(http://cafe.daum.net/77)-4월17일 개설. 불교의 참뜻을 공부하고자 뭉친 서원대학교 불교학생회 동아리의 홈페이지.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울산법륜회 헌혈봉사

울산불교개인택시 법륜회(회장 서병수)는 9일 공업탑 로타리에서 소속 회원, 가족, 울산신행단체 회원, 일반시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보시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헌혈 행사에서 모아진 혈액은 전량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 기탁했다.

윤행생 울산지사장

제주운불회 '콜' 개통

제주운전기사불자회(회장 조주훈)가 4월29일 7240-108번으로 콜을 개통하고 한차원 높은 고객서비스에 돌입했다.

7240-108로 전화하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 찾아가기 힘든 도내 사찰까지 신속하게 고객을 모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운전기사불자회는 13일 제주 홍법정사(주지 관효스님)에서 개통식을 갖고 사찰과 협조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원우회 정락스님 초청강좌

조계종 원우회(회장 유지호)는 24일 오후6시30분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과 함께 기초교리 강좌를 시작한다. 6월14일, 6월28일, 7월12일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기초교리 강좌는 관심있는 불자 누구나에게 개방된다. (02) 732-4923

서울시청 불심회 사찰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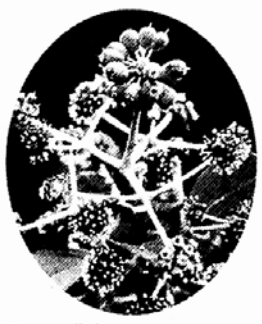
서울시청 강남구청 성북구청 등 불자회들이 일제히 사찰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서울시청 불심회는 28일 사찰 순례법회를 가고, 이날 성북구청 불자회는 법흥사 적멸보궁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강남구청 불자회는 27일 강남의 주요사찰을 돌며 정기순례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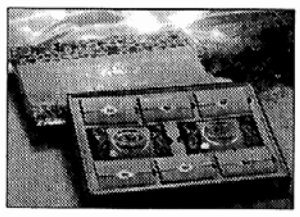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 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이웃종교의 봉축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은 예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즐거움이 더했다. 이웃종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앞다퉈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온 때문이다. 개신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김동완 목사가 공식 축하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내왔고, 천주교에서도 로마교황청을 비롯해 정진석 서울대교구장과 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신부의 축하메시지도 날아왔다. 또한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초파일을 맞아 범어사를 방문하는가 하면, 범어사 주지스님 역시 크리스마스 때 성당을 방문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에도 간헐적으로 이웃종교인들의 개인적인 축하의 뜻이 전달된 적은 있지만 올해처럼 공식적인 축하메시지가 봇물처럼 쏟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실로 반길만한 일이다. 이제 사찰에서 강의하는 신부님과 목사님을 보는 일이나,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보는 일은 낯설지 않다.

교회협의회 김 총무는 메시지에서 "석가모니의 삶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세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공동의 선을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진석 교구장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진선미의 조화 속에 올바른 삶을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하나같이 밝은 사회를 위한 종교간 협력을 당부하고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내용들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평화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적 행동양식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화답했다.

그동안 사찰방화나 학교 내 단군상 파괴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정부나 언론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시피 했지만, 뜻있는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던 바였다. 그러한 독선과 배타적 자세는 우리의 공동선 추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으며, 자기 종교의 가르침에도 역행하는 일임이 분명했다. 아직도 일부 종교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하고 이웃종교에 대한 무지와 무례를 서슴지 않는 일을 볼 때 씁쓸함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다수의 종교인들은 다행스럽게도 예수와 석가의 가르침의 본질에 눈뜨기 시작했다. 이제 상생의 정신으로 협력하여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그동안 방기했던 종교인들의 역할을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다.

불교의 사회참여

불교가 현대 사회에 힘있는 종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참여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식있는 불자라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조계종 종단도 '불교의 사회화'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사회참여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이러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아직도 불교의 사회참여, 특히 종단 차원의 사회참여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4일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봉축 세미나에서 윤원철 교수가 불교의 사회참여를 한국불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한국불교의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불교가 따로 있고 사회참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남, 나와 중생을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귀결이며 중생의 삶의 터전을 맑히고 밝히는 운동이야말로 자비행의 궁극이다. 사회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불교의 근본인 지혜와 자비가 실종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불교라면 허구의 세계에 불국토를 그리고 있는 죽은 종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아직도 먼 이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불국토 건설의 원력을 우리 현실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 지금의 사회 현실을 바꾸어나갈 구체적 이상을 불교를 통해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불국토 건설의 여정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타종교에 비하여도 교리적으로도 역사적 전통으로 보아서도 환경운동, 통일운동, 문화운동 등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는 영역들에 대하여 가장 수승한 대안과 방편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불국토와 연결시키는 큰 원력으로 힘찬 신행을 일으키는 일 뿐이다.

종단은 이러한 큰 이상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사회참여의 불교적 뿌리를 제공하고, 불교시민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가 불교의 본분으로 자리잡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불교시민단체와 그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큰 이상을 공유하는 바탕 위에 특성화와 전문화를 이룩하여 불교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사회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봉축행사 다양했지만 독창성 부족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27일간의 봉축기간(4월15일~5월11일)동안 전국 불교계에서 펼쳐졌다. 특히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처럼 자비행을 나누는 복지관련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잡았고, 불자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즐길수 있는 사찰 단위의 이벤트 행사가 많아 일반인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또 가톨릭 개신교계가 봉축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정명조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범어사를 첫 방문하는 등 종교간 화합무드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조성돼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올해 봉축 행사를 결산한다.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기자 방담

정성운 차장 · 김원우 기자 · 한명우 기자 · 김재경 기자
김중근 기자 · 도필선 기자 · 이은자 기자 · 오종욱 기자
이윤호 기자 · 천미희 기자 · 김주일 기자 · 강지연 기자

전통등 경연 응모작 30여점 '아쉬움'
인터넷TV로 전세계 5시간 생중계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장

○…지난해 조계종 사태 이후 도심 사찰신도들의 법회 참여율이 많게는 50%까지 격감하는 등 불자들의 자괴감이 점차 심화되고,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돼 올해 연등축제는 썰렁하지나 않을까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조계사등 각 사찰에 달린 등과 참석인원도 지난해보다 많다고 알려져 IMF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봉축위원회는 이번 연등축제를 '시민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 '전통의 멋과 흥이 넘치는 신명나는 등(燈)의 잔치'를 꾸민다는 계획이었다. 줄타기 공연, 컵등·연꽃등·전통등 만들기, 서각, 장승만들기 시연, 전통사찰음식 시식 등이 모두 그 일환에서 마련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연등축제가 서울시 지정 특성문화행사로 지정되고 더 나아가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를 앞두고 세계적인 축제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봉축행사는 외국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것 같다. 실제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에는 백여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하는 등 외국인들 불교문화 체험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행사 내용을 영어로 소개해 외국인들을 배려한 부분은 연등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시키는데 밑거름이 됐다.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범패 시연회라던가 중요무형문화재 김대균씨의 줄타기 공연 때 영어로 간단한 소개를 덧붙여 외국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불자와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선보였다는 것도 올 봉축행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각종 문화공연도 예년에 비해 수준 높아 갈채를 받았다. 국립극장에서 열린 음악극 '오! 진감'을 비롯, '원성스님의 그림으로 못다한 이야기', '불교예술의 미 천년회상, 천년상생' 등 전통불교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현대적으로 조명한 공연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들이 불교계 자체역량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 들어 사찰을 중심으로 소규모 음악회, 전시회 등도 잇따라 열려 신도들에게 불교문화를 향유케 한 점은 반가운 현상이다. 또 부처님 오신날 당일에 열린 봉은사의 야간거리 축제나 길상사 음악회, 안동 봉정사의 '야단법석대법회'에는 각각 수천명의 사람들이 몰려 정말 '야단법석'을 이루었다. 초파일이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보람을 얻는 문화향유의 장이 될수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내년에는 더욱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통등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열어 사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봉축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30여점에 불과한 점은 아쉽다. 봉축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연대회를 알리지 못한 것이 참여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사찰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불교NGO들이 마련한 다양한 인권 관련 행사도 올 봉축행사의 특징이었다. 한국 JTS는 북한동포를 비롯해 몽골, 이디오피아 난민의 실상을 알리며 시민들의 도움을 호소했고, 불교기아도움기구는 터어키, 르완다, 모잠비크 등의 실상을 상세히 알렸다. 특히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을 촉구하는 제2회 불교인권문화제를 열어 5백여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바야흐로 만인의 평등과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의 인권사상이 사회속에 투영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

○…거리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댄스경연대회'는 봉축프로그램 중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5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의 팀이름을 플랭카드로 적어가지고 나와 열띤 응원을 벌이는 등 봉축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봉축프로그램도 이젠 젊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한국불교를 짊어질 청소년과 청년불자들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 앞서 어울림마당을 2시간 동안 동국국악관현악단의 공연, 그룹별 발표 등으로 진행했는데 지루했다. 엠프시설이 좋지 않아 의사전달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지루함의 원인이다. 관중석에 앉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뜨기 일쑤였고, 연희단은 피곤에 지쳤는지 행사 도중 잠을 자기도 했다. 다음에는 1시간으로 압축하면 좋겠다. 연희단의 확대, 아기부처님 이운 및 관불은 올해 처음 도입한 의식인데, 법회를 더욱 장엄하게 해줬다. 그런데 '삼귀의'를 왜 '귀의불 양족존…'하는 한문구로 했는지 의아하다. 동참한 수만의 재가불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봉축위의 무심한 처사였다.

○…올해 연등축제는 최초로 불교 인터넷TV를 통해 전세계 불자들에게 5시간동안 생중계 됐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좋은 기획이라는 평이다. 연등축제가 불교계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인터넷 생중계를 토대로 전세계 불교정보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메라가 적어서인지 화면 구성이 매우 단조로웠고 다양한 장소의 표정을 담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우리 것', '불교 것'의 개발이 없었다. 봉축기간동안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긴 했지만 독창적인 불교문화는 없었던 것 같다. 시쳇말로 무늬만 우리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 외국인 외국인 하다보니 정작 행사의 주역이 돼야할 불자들은 뒤에 앉아 구경꾼으로만 머물거나, 배우노릇을 하는데 그치지 않았는지, 우리가 먼저 신명이 날 때 구경꾼들도 덩달아 덩실거릴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찾는 일이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것은 봉축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것, 불교 것을 알고 즐길 줄 아는 일은 불자들 모두의 몫이다. 더불어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불교문화를 생산하기 위한 민속학자, 행사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운영을 제안한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대부분, 공식용어인 '부처님오신날' 대신 '석가탄신일' '석탄일' '불탄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몇년 전 종단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써 줄 것을 협조바라는 공문을 방송 및 신문사에 발송한 적이 있다. 내년에는 미리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철저한 홍보를 통해 매스컴에서 '부처님오신날'로 통일했으면 한다.

○…이번 연등축제 때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불교문화 체험의 장이 마련된 우정국로에는 쓰레기가 넘쳐났다. 거리뿐 아니라 행사를 마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장에도 쓰레기가 마구 나뒹굴어 민망했다. 한 외국인은 바람에 날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쓰레기를 주우며 주위를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연등축제가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시점에 있는 만큼 행사의 주인들인 불자들의 질서의식도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정리=도필선 기자



◇연등축제때 개최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는 청소년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주효했다는 평이다. 다음 봉축행사에는 젊은 불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1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여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2000년 6월 7일(수) 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신 간

대조 한글역

범본 極樂莊嚴經

(아미타경 무량수경)



◈ 최봉수 편찬
◈ 가격 20,000원

⊙ 아미타불의 48대 원력의 생생한 가르침 및 극락세계의 정토장엄과 왕생도를 설한 무량수경이 이제 산스크리트 원전인 극락장엄경으로부터 직접 원음을 듣는다

⊙ 지혜의 보고인 불경이 이제는 불자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경전으로 다가오다. 일반 불자들에게는 극락왕생과 부처님의 무량광 무량수를 증득하는 수지독송경으로, 전문불자들에게는 산스트리트 원전과 한역과의 비교를 통해 좀더 심원한 정토세계를 체험하도록 편집하였다.

⊙ 다년간 불교근본경전에 대한 저서를 출간한바 있는 최봉수 교수는 대승불교의 하이라이트 정토부경전인 극락장엄경을 편찬하다.

주문처 전국염불만일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웅진겔러리 3층
☎ 02)732-1215 FAX(02)732-1207
※ 단 한부라도 주문하시면 발송해드립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2000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 집

1. 대학 개설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한국정토사 · 무량수경 · 연종집요 ·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 왕생론 · 반주삼매경 무량수경종요 · 보왕삼매론 · 미타예참법 정토미술 · 인도정토사 · 중국정토사	교수진	주명철교수(동국대) · 김영미교수(이화대) 한보광스님(동국대) · 장휘옥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 태 원스님(승가대) 강동균교수(동아대) · 정태혁교수(동국대) 혜 경스님(무설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5월 1일~ 2000년 6월 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2000년 6월 1일(목) 오후 7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02)732-1217, FAX 02)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토염불법사 수여.

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



◇송영방교수의 '문수보살 금강산 현시도'. 문수보살이 흰 사자를 타고 권속들과 함께 금강산에서 중생계로 내려오고 있다.

민족통일 염원담은 '문수보살 금강산 현시도'

송영방교수, 한지위에 수묵담채로 그려



◇송영방 교수

예로부터 부처님의 산으로 여겨져 온 금강산. 고려말 금강산을 오른 한중국 사신은 "여기가 참으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죽어 조선 사람이 되어 길이 부처님의 세계를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다" 하고 찬탄할 정도였다.

시공을 초월한 민족의 영산으로 오랫동안 한민족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었던 금강산을 배경으로 현대와 전통을 절묘하게 접목시킨 새로운 모습의 불화가 탄생했다.

500호(4×3m) 대작

한국화의 대가로 알려진 동국대 송영방교수(예술대 학장)가 '문수보살(보현보살) 금강산 현시도'를 최근 완성한 것이다. 이 두 점의 작품은 희망찬 새 천년에 중생을 제도하는 문수와 보현보살이 금강산을 통해 내려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민족의 화해를 이루고, 민족통일과 불국정토를 이뤄 내는 염원을 담았다.

500호(전체 4×3미터)의 대작인 이 작품의 특징은 청(靑), 황(黃), 적(赤), 백(白), 흑(黑) 5색으로 공간을 일일이 다 메우는 기존 전통불화의 방식에서 벗어나 특수 제작된 한지 위에 한국화의 수묵담채법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문수와 보현보살의 뒤로 보이는 금강산은 비로봉에서부터 해금강에 이르는 수려한 금강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한눈에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한다. 그 속에는 내금강의 홍교 위로 무지개가 건너고, 고려 태조가 세웠다는 정량사와 유서깊은 장안사도 있으며, 저멀리 해금강과 그 언덕 위 고즈넉한 정자도 보인다. 이 그림은 고려시대 노영의 '담무갈보살예배도(曇無竭菩薩禮拜圖)' 이후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현대불화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 같은 금강산에서 구름 속을 헤치며 권속을 이끌고 중생계로 내려오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모습은 정형화된 불화의 보살상이 아니라, 현대 한국인의 모습을 닮은 보살상으로 실제 인체비례로 생동감 있고 친근하게 묘사했다. 이 작품에는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본받아 오늘날 우리 민족이 직면해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백두대간으로 형성된 강인한 한민족의 정신을 이어나가자는 서원이 어려있다. 송교수는 한국 회화의 방식으로 구현한 이 작품을 통해 맹목적인 서구화 세계화로 잊고 있는, 우리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재인식하자는 의도도 담았다. 아무리 서구의 미술양식이 보편화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미술은 한국적 미의식과 사유체계 속에서 발전한다는 진리를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송교수는 "한 평생 작품세계를 열어주신 부처님의 가피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면서 "잃어버린 우리 문화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 바로 민족 정신을 고양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대각전에 걸려

전통의 재창조를 통해 불교회화의 새로운 세계와 지평을 열어보인 대작으로 평가 받고 있는 '문수보살(보현보살) 금강산 현시도'는 현재 동국대 대각전 입구 양 벽에서 부처님을 찾는 불자들을 맞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禪舞 '색즉시공 2000'

이선옥교수, 16 · 17일 동숭아트센터

선무(禪舞)의 창시자 이선옥교수(상명대 무용과)의 화두는 '춤과 명상'이다. 강렬한 듯 절제된 몸짓으로 풀어내는 그의 춤 세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은 색다르고 특별한 감흥을 일으킨다. 그런 그가 2000년을 맞아 또 한번의 춤판을 벌인다.

'선무가-색즉시공(色卽是空) 2000' 발표회가 16,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불교의 선(禪)사상을 바탕으로 현대무용과 선무기법을 도입해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발표회는 염불과 관소리, 재즈의 3개 분야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이교수의 독특한 선무의 세계를 보여주게 된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 이교수는 선무와 충청도 '앉은 굿'의 결합을 시도한다. 귀신을 쫓기 위한 경문인 '설위설진'을 선무의 배경이 되는 종이 장치로 만들어 공중에서 무대 위로 내려오게 하는 등 시각적인 효과에도 신경을 썼다.

이교수는 "이번 작품은 선무를 통해 몸과 마음을 비워 무심(無心)의 상태에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대자유를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새 천년을 맞이하여 유주무주 애혼들을 천도해 극락왕생을 염원하고, 관객과 춤추는 이로 하여금 모든 액과 재난을 소멸시켜 마음의 평정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느끼게끔 시도했다"고 작품 의도를 밝혔다.

고 김백초, 이매방, 김천흥 선생으로부터 무용을 배운 이교수는 미국 유학 4년째인 72년 카네기홀 공연으로 뉴욕 무용계에 데뷔했으며, 74년 '선 무용단'을 설립했다.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주요 공연을 통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홍콩 등지의 무대에서 선무를 선보였다. (02)737-4045

이은자 기자



◇이선옥 교수는 "색즉시공 2000" 선무를 통해 마음의 평정과 재난의 소멸을 기원한다.



고려불화 재창현전

혜담스님, 24~30일 백상기념관

정교하고, 화려한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을 오늘에 되살리는 혜담스님의 '고려불화 재창현전'이 24일~30일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열린다.

혜담스님(수원 계태사 주지)은 20여년간 고려불화를 연구하며 불화의 성스러움을 재현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고려 당시 성행했던 미륵신앙을 보여주는 '미륵하생경변상도', 고려불화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수월관음도 입상', '지장 삼존도' 등 3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철처한 문헌고증과 참선수행을 병행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스님은 "앞으로 고려불화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최근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www.hyedam.or.kr)도 개설해 고려불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0331)291-2928

부다팝스 불교음악 새장르 보컬 '도리도리' 음반

'부다팝스(Buddha Pops)'라는 새로운 불교 음악 장르가 등장했다.

불교보컬그룹 '도리도리(道理道理)'가 '생자필멸 회자정리' '윤회' 등 불교교리에 선(禪)적인 멜로디를 가미한 음반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불음포교 활동에 나섰다.

도의 이치를 말한다는 그룹 이름처럼 불교적 색채가 짙은 '도리도리'의 이번 음반에는 테크노음악에 선적인 멜로디를 가미한 'I'm Buddha',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중생들의 내면세계를 댄스리듬과 접목시킨 '눈물', 불교의 5계를 담은 '5계' 등 13곡이 담겨 있다.

'도리도리'의 구성원은 치어리더 출신의 리드보컬 안전미(20)와 용인대 무용과에 재학중인 객원보컬 강주선(19), 이들은 가수출신의 음반제작자인 심명훈씨(사운드엔터프라이즈 대표)의 눈에 띄어 가수로 발탁돼 '도리도리'를 결성하고 이번 앨범을 준비해온 것.

1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일면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을 계사로 수계식을 가진 그룹 '도리도리'는 또 다음주부터는 TV 출연 외에도 전국 사찰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등 포교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부다팝스 음악을 선보인 보컬 '도리도리'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일면스님을 계사로 5계를 수지했다.

갈월사 산사음악회

임동창 · 박인수씨 등 출연

초여름밤 고즈넉한 산사에서 음악회가 열린다.

20일 오후 5시 미륵도량 양평 갈월사에서는 임동창, 박인수, 이동원, 조영남 등 국내 음악인들이 대거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를 마련한다.

미륵부처님 봉안 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한국 전통춤을 비롯해 현대무용, 각설이타령, 국악, 클래식 등 20여명의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박찬수관장(목아박물관)은 임동창씨의 음악에 맞춰 대웅전 앞마당에서 퍼포먼스를 펼친다.

갈월사주지 지원스님은 "양평군민을 비롯 불자들에게 미륵부처님의 참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음악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0338)772-1909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과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신라 대국통(大國統)이자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1,400여 년만에 처음으로 친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금생(今生)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공개되는 경주 감은사탑 사리구를 비롯한 **전국 50여 기의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사리장엄구들이 함께 공개되오니 모든 불자님들은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구경성불의 선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영축총림통도사주지 薪虛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 법회일정안내 ◆

사리 이운식
· 일 시 : 2000년 5월 27일 12시 (관음재일)
· 장 소 : 통도사 부도전 및 성보박물관 입구

사리 친견법회
· 일 시 : 2000년 6월 2일(5월 초하루)부터
2000년 7월 30일까지
· 장 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

법회안내
· 박물관 / 전화 0523) 382-1001
팩스 0523) 384-0030
· 종무소 / 전화 0523) 382-7182

※사리 친견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사찰의 그림-조각-건축물 왜 그곳에 그 모습일까

허균씨 '사찰장식-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문양과 조형물은 불교의 세계관뿐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구도자들의 염원을 상징하기도 한다. 일주문은 일승법문을, 탑은 부처님을, 용은 불법수호와 함께 법당이 곧 반야용선임을 상징한다. 또한 곳곳에 장식된 연꽃 문양은 때묻지 않고 깨끗한 불성과 중생들의 극락왕생 염원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사찰의 조형물들은 불교의 이상과 불자들의 염원을 간직하고 있는 불법의 보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참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조각작품 또는 아름다운 무늬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예사다.

〈사찰 장식-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돌베개)는 그런 시각을 바로잡아 주는 책이다. 글쓴이 허균 씨(문화재 전문위원) 역시 "왜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으며, 또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250여 개 사찰을 답사하고 쓴 이 책은 '장식문양에 깃든 상징의 세계', '불전을 장엄하는 극락정토의 꿈', '조형세계에 숨겨진 불교의 진리', '지상에 펼쳐진 불국의 세계' 등 4장으로 나눠져 있다. 연꽃, 용, 귀면, 사자, 물고기 등의 형상으로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익살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사찰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문양과 조형물의 연원을 살피면서 심오한 상징의 의미를 밝혀낸다.

사진 3백여컷 실어
불교용어 해설도

이런 점에서 〈사찰 장식…〉은 사찰의 그림과 조각, 그리고 건축물을 통해 불국의 세계를 펼치고자 했던 불자들의 염원과 중생들을 향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불교미술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인도, 중국, 우리 나라의 전통사상과 신화, 민간설화, 그리고 경전 등을 넘나들면서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을 교차시켜 그 안에 담긴 상징의 의미를 하나씩 파헤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악한 무리를 막는 벽사(辟邪)의 기능을 가진 귀면은 고대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시바 신의 무서운 얼굴이 표현된 것이고, 최상의 조형미를 보여주는 비천상은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형상의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3·5·7·9의 기수로 이루어진 탑의 층수 역시 고대 동양의 우주관이나 음양오행사상에 뿌리는 둔 것으로, 불교 외적인 요소들을 불교의 사상 속에 폭넓게 수용해 온 역사를 보여준다. 이는 곧 사찰의 장식문양과 조형물이 당시 사회의 사상과 역사를 반영한 것임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300여 컷의 컬러 사진을 활용, 독자들의 시선과 상상력을 사찰이라는 믿음의 현장으로 이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불교용어와 경전에 대해 각 쪽마다 해설도 곁들여 편안한 독서를 가능하도록 해 준다.


◇범어사 대웅전 비천상.


◇청곡사 대웅전 북단 동자집 연경문.


◇다보사 대웅전 북단 꽃장식.

글쓴이는 "사찰의 장식문양은 단순히 겉을 꾸미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훌륭한 공덕을 기리고 불국의 이상세계를 선(善)과 미(美)로써 장엄하게 구현한 것이다"며 "상징의 의미를 공부하다 보면 사찰의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한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부처님 재세시 승가 생활상

태원스님 '초기불교 교단생활'



"일어날 때 머리가 걸리지 않고, 앉을 때 무릎이 편안하고 또 빗물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거하는 장소가 호화로워서는 안됨을 지적한 말이다.

초기불교의 안거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한 가지는 작은 방, 산 속의 토굴, 썩은 통나무, 외양간 등 조용한 장소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소 기르는 사람과 장사하는 상인을 따라 안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적절한 안거 장소도 있었다. 속이 빈 나무, 노천, 앉는 자리와 눕는 자리가 없는 곳 등이 바로 그곳이다.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내놓은 〈초기불교 교단생활〉(운주사)은 부처님 재세시와 열반 직후의 초기불교 교단의 생활상을 문헌을 근거로 살피고 있다.

초기교단의 구성과 출가 및 구족계제도에서부터 승가의 생활과 승원의 구조적 변천, 승가에서 의지한 네 가지 법, 승단 안의 법체계 형성, 승가갈마에 의한 교단 통제 등이 이 책의 큰 주제다. 이를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정한 제도와 구조, 생활모습 등 초기불교의 승가 생활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초기불교의 교단 생활은 지금과 다른 부분도 많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진하려는 초기불교의 승가상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스님의 근본 정신 망각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가 하면, 불교 전체가 외면당하는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초기불교의 철저한 생활상은 돌이켜 볼 만하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희망의 대안은 '생명살림'

도법스님 산문집 '청안 청락하십니까'



불교귀농학교 교장이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인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이 21세기 희망의 메시지를 엮은 산문집 〈청안청락(淸安淸樂)하십니까〉(동아일보사)를 펴냈다. 부제 '생명 이야기'가 암시하듯 이 책은 희망의 대안이 생명살림의 세계관에 있음을 알리고 있다.

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그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유와 풍요의 꿈은 오간 데 없고 하루하루의 삶은 더욱 각박하고 불안하다. 따뜻한 인간성은 사라지고 생명위기의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모순된 결과는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 인간 중심의 그릇된 사고와 삶의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도법 스님의 해석이다. 따라서 모순과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세계, 생명 본연의 질서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사고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 실천 방안으로 도법 스님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인간화와 생명살림의 길을 열어 가는 데 한줌 흙이 되기를 바라는 생명사상의 중요성을 설파한 글과 그 동안 생명공동체를 꾸려오면서 느낀 생각들로 채워져 있다.

이는 크게 생명에 대한 불교적 사유, 일상생활의 반성, 출가와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신앙생활의 근본 묻기, 도반들에게 보낸 편지로 나뉘어져 있다. 또 맨 마지막 장에는 독일의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와의 대담과 소설가 이상락 씨의 인터뷰도 곁들였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20세기 한국불교 발자취 '한눈에'

민족사 '한국불교 100년'



20세기 한국불교 100년을 총 정리한 사진자료집 〈한국불교 100년〉이 민족사에서 나왔다.

이 책은 1900년을 전후해 1999년까지 우리 나라 불교에서 있었던 중요사건, 인물, 출판물, 전적 등 1천1백여장의 사진을 10년 단위로 묶었다. 이 중에는 1937년 태고사 건립공사 모습, 조선불교도대회 기념사진 등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 사진들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다. 10년 단위로 불교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해설을 덧붙여 20세기 한국 불교의 실상을 정리한 사료집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편자 김광식 씨(근대불교사 연구가)는 머리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의 방향을 조망하는 것이 이 책의 근본 목적이다"며 "보다 멀리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값 5만8천원.

30년간 조각사 연구 논문 총정리

문명대 교수 '한국미술사…'



한국 미술사 연구의 변천 과정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 〈한국미술사 방법론〉(열화당)이 출간됐다.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연구하는 문명대교수가 펴낸 이 책은, 한국 미술사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60년대 이후 30여년간의 연구 방법과 해방 후에 발표된 조각사 논문을 총망라하여 분석·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법과 전망까지 논의하고 있다.

'미술사 이론과 미술사관', '미술사 방법론', '현대미술의 방향과 과제' 등 모두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특히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등에 나타나 있는 미적 기준을 새롭게 밝히고, 고대미술과 현대미술을 이어 주는 불교미술의 역할과 그 현대화 방안, 문화사로서의 미술사, 인문학과 미술사와의 조화로운 만남 등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값 1만4천원.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새로 나온 책



▲보현행원품(무비스님·조현춘 공역, 만인사)= 여러 부처님 예경, 그리고 공양과 업장 참회, 전법…, 보현행자가 닦아야 할 열 가지 서원이다. 보현행원 10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닦음의 길을 제시한 〈보현행원품〉 해설서.

이 책은 경전상의 산문부분인 장행(長行)과 운문부분인 게송(偈頌)으로 나눠 무비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함께 우리말로 옮겼다. 값 7천원.



▲연꽃 피우는 마음(김태일 지음, 중명)= 고승들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도덕과 규범, 삶의 지혜가 녹아 있다. 우화형식으로 쓴 이 책은, 방황, 고통, 성장, 완성 등 다섯 가지 주제로 크게 나눈 뒤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것' 등 소주제의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열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속이 알차다. 눈 밝은 이는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것이다. 값 6천8백원.



▲절에 가니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불교문화진흥회 엮음, 관음)= 불법에 귀의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맞춤형 불교 입문서.

사찰에서의 기본 예절부터 부처님의 생애, 법구 및 여러 전각의 의미, 부처님의 수인, 기초교리, 설화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또한 이 책에는 법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축원문, 발원문 등의 여러 견본을 부록의 수록, 법회의 편의를 도와준다. 값 8천원.



▲이 집은 누구인가(김진애 지음, 한길사)= "집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품성, 성향, 정서를 드러낸다. 집은 사는 사람의 스타일을 드러낸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집이 그려진다. 집은 곧 사람이다."

건축가 김진애 씨가 집에 대한 색다른 12가지 생각들을 담은 수필집. 집은 사람 몸과 같다. 집의 중심은 부엌이다. 집에도 성(性)이 있다. 당신은 정말 집주인 인가 등이 그중 하나이다. 9천원.



▲해는 동쪽에서 먼저 뜬다(강설 스님 지음, 한강)= 살아가며 수없이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운 이야기만을 골라 적은 강설 스님(제주 보문사)의 세 번째 수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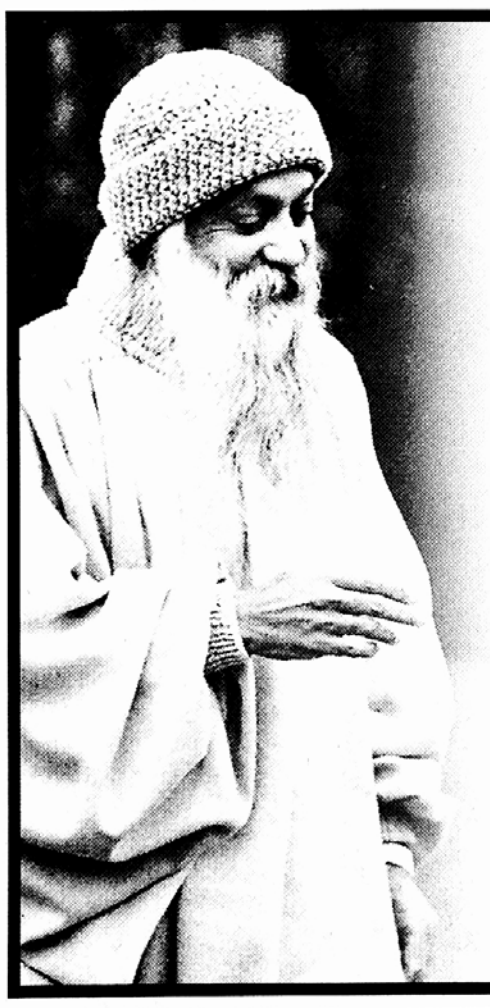
덧없이 흘려 버린 어제의 생활을 깊이 참회하는 수행자, 평범한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움큼 끄집어 내는 수행자만의 독특한 시각은 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같이	전 재 성	선 재
4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5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6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7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8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9	위빠싸나 성자 아짠 문	김 열 권	불 광
10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도서 안내:(02)737-0695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법구경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전2권 | 각권 값 10,000원

The Diamond Sutra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The Heart Sutra
반야심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오쇼의 법구경 강의는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다.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리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달음의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옳으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춤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붓다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열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의 대양을 헤엄쳐 건너라
10. 십우도
11. 신심명
12. 한산 연꽃을 따다(가제)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국보 제119호 '연가칠년명 금동불상'. 전체높이 16.2㎝은 이 불상은 '각명한 수법', '찬란한 금색', '조성명기' 등을 이유로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꼽힌다.

"고구려 불상 '연가불' 539년 조성"

장충식 교수 주장…불상양식-전래경로 등 연구

명문이 남아 있는 고구려 불상으로 유명한 국보 제119호 연가칠년명금동불상(延嘉七年銘金銅佛像. 이하 연가불)에 대한 '조성연대 논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충식(동국대) 교수는 '연가칠년명금동불상 재고'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연가불은 539년(고구려 안원왕 9년) 평양의 동사(寺)의 주관자(현재의 주지)인 승연이 그의 무리 40명과 함께 제작한 제29 인현의불"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63년 7월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서 발견된 연가불은 전형적인 고구려 불상 양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광배 뒷면에 조성 이유, 시기, 화주, 장소 등을 기록한 명문이 남아 있어, 발견 당시부터 미술사학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 명문에서 구체적인 조성 시기를 말해주는 '연가'라는 연호가 현존하는 어떤 고문헌에서도 나타나지 않아, 단지 고구려의 연호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 어떤 왕이 사용했는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연가 칠년'에 대해 '419년(장수왕 7년)'에서 '599년(영양왕 10년)'까지 다양한 '설'들을 내놓았다.

이 논문에서 장 교수는 명문을 해석하고 문헌 연구에 치중해 연가불의 연대를 추론했던 그동안의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중국·일본 등의 불상 양식을 비교하고 또 불상의 전래 경로와 시기 등을 토대로 '539년 제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장충식 교수

장 교수에 따르면 연가불은 '여원시무외'의 수인을 하고 있으며, 높은 육계에 불꽃문양의 광배 그리고 여섯 겹의 연화대좌 등은 양식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법의 측면에서 볼 때, 무 자르듯 시원하게 툭툭 쳐 내려간 느낌이 들 정도로 능숙한 솜씨가 돋보인다.

따라서 장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의 조각 기술이 정착하기까지는 불상 전래로부터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419년은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지 50년 미만의 시기인 만큼, 그 시기에 예술성이 뛰어난 불상을 제작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강성 좌야미술관의 '태화육년명청동불입상'에서 연가불의 양식상 시원(始原)을 찾고 있는 장 교수는 "청동불입상은 불꽃문양의 광배며 불상의 크기에 비해 커다란 손이나 거대하게 강조된 육계, 연화대좌 등에서 연가불과 유사하다"며 "고구려는 중국 북조의 불상 양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동불입상은 연가불보다 다소 앞선 불상이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새로운 불상양식이 우리 나라에 전래되기까지는 대략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미술사학계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연가'라는 연호가 고구려 장수왕 때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의 '417년 제작설'과 문명대(동국대) 교수의 '479년(장수와 67년) 제작설'에 힘을 실어왔다. 김 명예교수의 경우 "장수왕 7년이 기미(己未)년이고 불상에도 '연가'라는 글자만 덧붙여졌을 뿐 '칠년 기미(七年 己未)'라는 명문이 있고, 또 장수왕이 부왕인 광개토왕의 '영락(永樂)' 연호에 이어 '연가' 연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연가불의 '417년 제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일 오전 9시 40분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한국 미술사의 재해석'을 주제로 열리는 동악미술사학회 창립기념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날 '한국 목조건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김도경·고려대 강사), '일재 신한평의 화경'(이원복·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백제와당 양식의 변천과 그 유형-소문단판연화문 와당을 중심으로'(김성구·국립광주박물관장), '조선 백자 태항아리의 성립과 발전'(윤용이·원광대 교수), '안동 봉정사 대웅전의 건립에 대하여'(김동현·동국대 교수) 등도 소개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깨어나라

미국내 일본불교 현주소

'깨어나라(wake up)'는 미국에서 일본불교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사이트. 미국에서 대표적인 선사로 꼽히는 다이도 로리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선산사원에서 개설한 이 사이트는 출가승의 수행상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가자들이 생활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원에서 가르치는 수행법인 △팔문법(Eight Gates) △정행(Right Action)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팔문법'은 매일 7~10시간의 좌선, 염불, 공양, 행선, 울력 등 직관적 수행과 육체·감성적 실천이 병행된 선산 사원 특유의 수행법이다. 또 '정행'이란 죄수 교화, 환경 보호, 에이즈 퇴치 등의 실천적 보시행을 가리키는데, 이 가운데 뉴욕주립교도소의 요청을 받아 1984년부터 시작한 '죄수교화 프로그램'은 교도소에서 죄소자들의 선수행을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불문으로 이끌고 있다. 또 92년부터는 환경교육 및 보호, 자원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깨어나라'에서는 〈생활의 도(道)〉(1979년), 〈선의 팔문(八門)〉(1988년) 〈살아있는 것의 불성〉(1996년) 등 로리 스님이 펴낸 불서 20여 권의 서평과 '원과 바위' '무명석(無明石)' '바위와 물' 등의 선화(禪畵) 8점도 볼 수 있다. 또 △전자잡지 〈Mountain Record〉을 읽고, △불교음반 '드림런드'를 들을 수 있다. 이 음반은 불교를 주제로 한 곡들을 발표하고 있는 대중음악그룹인 '다이까조(Daikajo)의 최신 곡들로, 컴퓨터 음악파일로 게재되어 있어, 불자 네티즌들이 언제라도 로딩(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감상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http://www.zen-mtn.org/

불문硏 '21세기 불교예술의 향방' 세미나

"전통선율 찬불가 창작" 박범훈 교수
"불교미술의 정신 이해" 홍윤식 교수
"연극소재로 불교 최적" 김흥우 교수

16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불교문화. 21세기에도 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불교문화계는 무엇을 해야 할까.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이 13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21세기 불교예술의 향방'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바로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찾는 자리였다. 음악·미술·연극 등 각 분야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추론한 이 세미나에서 찾은 해답은 바로 "전통의 정신을 지키며 새로운 형식을 창조할 수 있는 불교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불교음악의 현재와 미래-승려들의 찬불가 운동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박범훈(중앙대) 교수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스님들에 의해 만들어진 찬불가는 율(律)보다는 문(文)을 중심으로 제작됐다"며 "이것들이 불교와 거리가 먼 찬송가풍의 찬불가를 생성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또 "스님들의 찬불가 운동이 60~70년대 이르러서도 찬송가풍의 찬불가 창작으로 이어진 이유는, 스님들이 찬불가의 율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서양음악 작곡가들의 전통불교 음악적 소양 부족의 결과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찬불가의 창작은 초창기 스님들의 찬불가운동 정신과 전통 불교음악의 선율이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교미술의 오늘과 미래'를 분석한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는 언어불급의 그 진체(眞諦)를 표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예술 세계를 펴왔다"며 "불교 미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형상에 대한 미술적 관찰과 내용에 대한 종교적 관찰을 종합함으로써 전면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 역시 단순히 형상 보존보다는 성보에 담긴 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을 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연극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김흥우(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연극개발 소재는 불교소재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불교연극의 진흥을 위해 "불교의례 번역 및 통일, 찬불가를 작곡하고 안무할 수 있는 인력의 배양, 불교대학내 불교예술학부나 전통예술학부 신설 등을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화도 전등사의 대조루, 설악산 신흥사의 보제루, 경남 양산 통도사의 설법전 등과 같이 경내 공간을 연극인에게 제공, 불교의례를 불교의식극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

"고려 개경 유명사찰만 3백개"

박명진 교수 논문 발표

도선(827~898) 스님의 예언대로 후삼국을 통일하고,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불교진흥'을 당부한 불국정토 고려. 이 나라의 첫 수도 개경(현 개성)에는 몇 개의 사찰이 있었고, 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박명진(숙명여대) 교수는 6일 한국역사연구회 주최로 숙명여대 대학원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고려 전기 개경 절의 위치와 성격'을 발표하고, "전성기 때는 개경 성내에 유명한 절만도 300개가 있었으며, 그 중 현재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10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 사찰들은 종교적 기능만 수행했던 게 아니라 정치·군사적 기능까지 맡았고, 개경 밖의 절들도 국방이나 교통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신안식(명지대) 교수의 '개경의 성곽정비', 홍영의(국민대) 교수의 '개경의 구조' 등도 발표되었는데, 신 교수는 "서기 896년 궁예의 명령으로 왕건이 송악에 쌓았다는 발어참성이 일부 개축을 거쳐 황성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발어참성과 개경 황성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개경을 입체적으로 해부한 이번 학술회의는, 97년 '개경사연구반'을 만들어 개경을 집중연구해 온 한국역사연구회가 4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불교학술연구 발표

한국불교학회(회장 목정배)는 20일 오전 9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33회 춘계전국불교학술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불교교학'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등 세 분과로 진행되는 이번 발표대회에는 '하택신회의 선사상 연구'(유진), '불교와 불교학'(조현춘), '붓다의 수명 포기의 원인에 관하여'(안양규), '석가모니 붓다의 인종적 기원'(조준호), '니시타니 케이지의 불교적 허무주의'(이찬수) 등 논문 31편이 발표된다. (02)2260-3121

불이상 후보자 공모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도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제15회 불이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모집 분야는 연구·실천·장학·출가면학 등으로,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5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연구 분야는 대학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실천 분야는 신행과 포교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장학분야는 대학원 불교학 관계 전공자가 대상이다. 접수 마감은 6월 3일. (02)3411-6167~8

한국선학회 월례발표

한국선학회는 20일 1시 30분 북한산 진관사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이덕진(고려대 강사) 씨가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월호(쌍계사 중강) 스님과 김방룡(영산원불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또 양형진(고려대) 교수는 '선과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을 발표하고 원택(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스님과 박영재(서강대) 교수 등이 토론한다. (02)2260-3135

연꽃마을 세미나 개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 각현)은 19일 오후 2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에서 본 효의 개념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가정윤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회의에는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의 '불교의 효-개념적 이해와 사회적 구현'을 비롯해 오석원(성균관대) 교수의 '유교의 효 사상과 현대사회' 등이 발표된다. (02)2203-3677



티벳 解脫의 書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른다!

보는 것만으로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1200년 전 티벳에 불교를 전한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의 〈요약 전기〉, 그가 가르친
〈마음 알기 요가〉, 또 다른 스승 파담파 상게가 남긴
〈유언적 가르침〉으로 구성된 이 경전은,
당신에게 '이몸 이대로' 해탈하는 법을 전해준다.

이상한 일이다. ≪티벳 해탈의 서≫를 읽고 있으면 문득 주위가 밝아지는 느낌이다. 갑자기 해가 하나 떠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빛은 외부에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방광(放光)임이 분명하다. 칼 융은 이 책에서 '마음'을 '에너지의 변압기'라고 아주 적확한 표현을 하였다.

— 정찬주(소설가)

이 책은, 새벽 빛에 눈을 뜨고 일어난 사람들, 그리하여 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 구도 여행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지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 에반스 웬츠



신간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스 739-8791/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주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책방 정신세계 광화문점(02)737-8115, 대구점(053)943-4824,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부산점(051)294-8545, 안양점(0343)466-2208

파드마삼바바 지음/에반스 웬츠 편집/칼 융 해설/유기천 옮김
양장본/432면/15,000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티벳 死者의 書】

류시화 옮김
양장본/525면/15,000원/서점에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사후세계 —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혀주는 천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칼 융이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 격찬한
죽음으로 삶을 가르친 궁극의 책, 명상의 기본서!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해탈의 서≫.

"… 이 책은 언제까지나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생각과 발견을 위한 많은 영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정신세계사

기아 · 전쟁 · 질병 지구촌 '화두풀기'

지난해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제3차 세계종교회의(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에 스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참가한 혜성 스님의 눈을 통해 전쟁 · 인권 · 여성 · 기아 등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세계 종교계의 흐름을 가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

혜성스님 남아共 '세계종교회의' 참가기



◇한국 6대 종교계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은 9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제3차 세계종교회의의 진행을 도우며, 세계 종교계의 관심과 활동을 지켜보았다. 혜성스님은 맨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대륙의 저편, 멀게만 느꼈던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한 날은 1999년 9월 13일 이른 아침이었다. 무더웠던 한국의 여름을 뒤로한 채, 한국불교 조계종과 한국종교평화회의의 후원으로 제3차 세계종교회의(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자원봉사자로서 남아프리카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남아프리카, 여러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언어, 유럽 강대국들에 의한 식민지화로 빚어졌던 인종차별, 성인 10명 당 1명이 AIDS 양성반응을 보이는 곳, 기아, 총기소지, 마약 그리고 심각한 빈부 격차 등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 몸살하고 있는 대륙. 6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끝없이 펼쳐지는 대륙을 가로질러 18시간의 버스 여행을 마치고, 최종 목적지인 케이프 타운(Cape Town)에 도착했다.

1999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제3차 세계종교회의는 종교간의 이해를 통한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라와 나라, 대륙과 대륙의 문화를 상호 이해해, 나만의 세계가 아닌 우리의 세계를 인식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에는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넬슨 만델라(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와 투투 주교 등 각국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의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에서 7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는 한국 불교계에서도 종교연합창설선도(이하 URI) 회장인 진월 스님을 비롯해 스님과 교수 5명이 함께했다.

세계종교회의는 1892년 시카고에서 열린 아메리카 박람회에서 동양과 서양의 정신사적 전통들과 종교 상호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조직되어 이번 회의로 3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둠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세계종교회의가 열린 것은, 바로 이 대륙에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아 · 빈곤 · 여성 · 폭력 · 질병 등 모든 위기들이 있고, 이에 닿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가꾸려는 남아공화국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의 위기와 극복의 알레고리는, 지구 전체의 공동체적 번영과 치유에 뜻을 두고 있는 세계종교회의 이상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이 회의에서 URI 운동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이 운동은 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범종교합동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97년과 98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열린 제2 · 3차 회의에서 URI 헌장을 제정하고 또 운동을 전개하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38개국 32종의 종교와 14개 토착종교 등이 참여해, 지구 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 AIDS, 여성, 육아, 건강, 교육, 예술, 인간성 회복, 인종차별, 윤리의식, 종교의 정신적 치유, 종교와 역사형성의 관계, 기아, 미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 등 700여 개의 주제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이 어떻게 에이즈를 치유할 것인가 하는 주제나,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흥종교들의 활동 등이 특히 눈에 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세계 종교회의에서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함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즉 나와 자연, 나의 종교와 타인의 종교, 정신과 물질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 · 만델라 등 7천여명 참가
인간-자연-종교 조화로운 공존 강조
타종교 축하행사서 참선 · 염불 소개

이 회의의 자원봉사자로 참석한 우리는, 회의 관련 자료를 수집 · 분류 · 정리하는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을 알리는 환경 보호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외에도 독일 가톨릭교회의 스테판 신부와 함께 '타종교 축하 행사'(Interfaith celebration)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시연한 '염불'과 '참선'이 계기가 돼 한국불교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자극에 힘입어 회의기간 동안 케이프 타운 소재 가톨릭 성당에서는 현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미사 시간에 염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프리카인들이 염불을 통해 정신적 평화를 느꼈던 까닭이리라.

남아공화국은 국가(國歌)에 신의 축복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을 만큼 가톨릭 국가이다. 국민의 80%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며, 그 외 말레이시아 계통의 사람들과 중동에서 온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슬람교를,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전통종교를 따르고 있다. 불교의 경우 대만 불교계에서 현지인에 대한 포교에 정성을 쏟고 있으며, 동부해안 도시인 '더반'을 중심으로 불교대학들이 건립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계 이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인도불교와 티베트불교 등 동아시아 불교계의 포교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 등의 불교계에서는 이곳에서 의료 · 건축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불자들을 수시로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계는 이 암흑의 대륙에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숭산 스님의 제자인 헤일라(Heila Downey) 법사와 로드니(Rodney Downey) 법사가 이 곳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법사는 케이프 타운 시내 가까이 론도부시(Rondebosch)라는 곳에 선방을 열어 누구나 참선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12월 8일 행사의 마지막 날, 달라이 라마는 희망 센터(Good hope center)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아프리카인들이 모인 가운데 '종교간의 화합과 문화적 다양성의 조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공유, 책임감'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은 이번 세계종교회의에 참석한 모든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겨주기에 충분했다. 한국불교계의 경우 범종단 차원에서 인재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대륙별 또는 국가별 전문가를 키워,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배운다면, 보다 효과적인 불교 포교를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발을 하루 앞둔 날 케이프타운의 신문에 한국 동자승의 천진한 모습이 두 장의 사진으로 크게 소개된 것을 보며,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들이지만 마음 만큼은 언제나 평화롭기를 발원했다. 아프리카가 어느새 이웃으로 내 안에 있었던 것이다.

글 · 혜성스님
(대원사 · 동국대 불교학과 석사과정)

"삼라만상이 나의 분신 남도 내몸같이 사랑을"

법회중계

파계사 법요식

〈2000년 5월 11일〉



성우 스님
〈파계사 주지〉

21세기 화두 환경문제 욕심이 만들어낸 인과 마음 깨끗이해야 해결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을 밝혀 주신데 큰 뜻이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진리 없는 어두운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진리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어떤 특이한 사람들이나 누리는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으며 우주에 충만하여,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아 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새 천년 접어들어 처음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18세기까지는 과학이 대두되지 않아 인류는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바른 지혜가 있어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 과학이라는 새로운 화두 속에 인류는 점점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편리함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엄청난 재앙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리함이 오히려 인류의 목숨을 옥죄는 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생명의 존엄까지 위협하는 환경문제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욕심이 만들어낸 인과의 화살입니다. 환경문제를 환경문제로만 생각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르게 됩니다. 환경문제 해결의 근본은 바로 때묻은 인간들의 마음자리를 정화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6년 이내 우리 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누구도 물 부족의 위험함이 얼마나 가까운 사실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과학의 발전속도가 빛의 속도만큼 빠르다고 예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인간의 삶의 형태에 엄청난 질서 파괴를 수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드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여 디지털 시대가 열린다 하여도 살아가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디지털이란 바로 손가락의 개념입니다. 농경사회는 몸 전체로 부딪치는 시대였고 산업사회는 머리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면 디지털 사회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없는 손가락은 하나의 물체에 준할 뿐입니다. 디지털 시대란 바로 불교의 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마음 다듬어 제자리에 반듯하게 놓치 않으면 살아가기 힘드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스스로 마음자리를 깨닫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큰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조금이라도 뜨면 삼라만상이 나의 분신 아닌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목숨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생명을 자기 몸같이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일체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무한한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즐겁고 쾌활하며 근심없고 평온하며 사슴과 같은 밝은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하고 완전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무명번뇌 걷어내어 무한광명인 불성이 돋아나도록 노력하고,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사회를 이루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거룩한 불법이 이 땅에 전해진 것에 감사하고 1600여 년 동안 불법이 전해오도록 노력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마음 밝혀 지혜와 자비의 등불 높이 켭시다.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 · 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부분전경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진보덕화 보살은 하루에 밤낮으로 중생의 고난을 구해주시는 천수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하는 대비주(大悲呪 :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의 준말)을 천번 읽고 무릎이 썩고 고름이 나도 하루 3천배를 하면서 3년간 기도정진 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어 침과 약초를 받은 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도 이틀을 치료하니 본인이 알 정도로 진통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어 일주일 치료한 후에 완치된 기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무료치료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 완치된 분은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시설확장과 대작불사에 거금보시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시방세계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TEL : 02)433-9544
FAX : 02)433-9543
H.P : 019)278-1119
♣ 사찰 이정표
전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
♣ 사찰 안내 게시판
■전주용 간판 ■게시판 ■목간판
♣ 회계인정 포맥스
사칭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항은 무료로 드립니다.
(규격 #cm × #cm)



◇대안교육 실험이 한창인 푸른꿈고등학교. 조환용선생이 2년간의 좌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환경교육원 '흙집기행' 동행기

회색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검은 아스팔트 길을 달려 콘크리트 빌딩에서 하루를 보낸다. '빨리 빨리'를 외치며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잠시 한 숨을 돌이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되돌아보고 여유로운 전원의 삶을 그려보는 것은 도시민들의 정신적 사치일지 모른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그와 같은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이 지난 4월 29~30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일대에서 가진 '흙집과 대안적 삶을 찾아가는 기행'은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은' 도시민의 동경이 현실화 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준 희망의 답사였다.

불어라! 불교 생명운동 바람

생태건축가인 정기용 건축사가 시멘트 대신 흙으로 지은 진도리 마을회관, 무주지역에서 친환경적인 귀농운동을 이끌고 있는 허병섭 목사의 흙집, 젊은 귀농인들이 더불어 사는 광대정 마을, 대안교육 학교로 유명한 푸른꿈고등학교 등등.

광소 생태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참가자들은 자연친화적인 생활양식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더듬어 보았다. 또 생태적 순환 속에서 자연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골에서의 삶이 얼마나 정신적인 여유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었다.

허병섭 목사의 안내로 둘러 본 진도리마을회관 등 이 지역 일대의 흙집들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흙'의 고마움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흙집은 사방의 벽이 숨을 쉬고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됨으로써 인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허 목사는 "흙은 자기 희생을 통한 생명 창출의 힘을 지녔기에 흙과의 만남은 생태적 삶의 기본이자 최종 목표"라고 강조한다.

공기가 드나들 곳이 없는 밀폐된 공간, 태양광선을 차단하는 커튼, '땅의 에너지(地氣)'를 받지 못하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도시인들, 자연의 호흡과 차단되어 인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정서마저 불안해 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허 목사의 흙집 인근에는 10여 가구의 젊은 햇병아리 농군들이 옹기종기 모여산다. 산골치고는 햇살이 많다고 해서 '광대정'(光大亭)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몇 년전부터 농사지으러 도시에서 온 30대의 처녀, 총각, 젊은 부부들이 농촌에 뿌리내리고자 비지땀을 쏟고 있었다.

35세의 처녀 농군 김근희씨는 "마음은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몸은 아직 도시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 서로 상처주기 일쑤였다"면서 자연친화적인 삶으로의 회귀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3년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사리 광대정에 정착해 흙집을 짓고 사는 35세의 동갑네기 전제원·안금순씨 부부, 소박한 삶속에서도 나무(3세)와 작은나무(12개월)에게 천연색 꿈을 키워줄 수 있다는 희망 속에 살고 있다.

집안 살림에서부터 건축·농사일, 가축을 기르는 일까지 모든 일들을 배워가며 해야 한다. 자립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일과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유기농업을 한다는 발상은 가난을 자처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젊은 농군들은 도시의 아파트가 답답해 하룻밤도 자지 못하는 '촌놈'들이 되었으며, 그들이 목표로 하는 '생태마을'도 멀지 않아 이뤄질 것처럼 보였다.

진도리마을과 광대정 사이에는 또 다른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푸른꿈고등학교가 있다.

학교교육의 봉과, 입시 지옥 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아닌 누군가를 '죽이는 관계'로 바뀌어 가는 곽곽한 현실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약하는 교육'을 꿈꾸는 곳. 대안교육을 모색해 온 사람들이 2년전 인근의 생태마을, 예술인 마을을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 figure교에 세운 학교다.

노작교육, 생태·생활문화 교육, 주체·자율·평등·평화교육, 공동체교육,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푸른꿈고등학교는 16명의 교사와 50명의 학생들이 아직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찾고 있다.

조환용 선생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희망과 실망, 갈등과 이해를 거듭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키웠다"면서 "이제는 자연과 인간을 모두 살리는 교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다.

40명의 '흙집기행' 참가자들은 환경운동은 자연환경만이 아닌 인간과 사회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생명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절감했다. 즉 자연을 파괴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가치관 각성운동, 생활양식 전환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다.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은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리는 생명운동에 불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환경문제는 '사회 변혁과 자기 개조의 통일'을 지향할 수 밖에 없기에,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주의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연기적 관계를 깨닫는 것이며,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혜를 요구한다. 무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자연을 닮은 사람을 만나면 '흙의 고마움' 배운다

푸른꿈학교 평화·평등교육 교사 16명 학생 50명 '실험중'



◇도시 아이들에게 시골의 모든 것은 경이로울 그 자체다. 개구리 알집을 보며 신기해하는 아이들.



◇생태마을 '광대정' 텃밭에서 구슬땀을 흘려보는 답사 참가자들.



◇흙집은 자연과 인간이 교감되는 생태공간이다. 허병섭 목사가 3년에 걸쳐 지은 흙집 전경.

용어풀이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환경·생태·녹색·생명운동이란 개념들은 일반인이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이들 용어는 시·공간적인 배경에 따라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환경운동 환경은 인간의 삶과 건강,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다. 환경보호는 문명의 희해를 예방하고, 인간의 생활터전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 역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

생태운동 환경운동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다. '생태'란 말에는 '그물망', '그물코'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파괴되면 결국 공멸한다는 뜻. 생태운동에 이르러 '환경적 관심'은 식물, 생태계, 생물종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연 모두를 포괄하는 '생태적 관심'으로 확대됐다.

녹색운동 사회구성원들이 생태위기를 인지하고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집단적 행위. 서구에서 일어난 녹색운동은 생태·환경운동뿐 아니라 여성·인권·대안운동까지를 포함한다. 생태위기의 원인을 기존의 사회구조·이론·세계관에서 찾고, 이것의 근본적 변화를 구체적 삶의 영역에서부터 기존제도와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추구한다.

생명운동 동양적 가치관에서 나온 생태운동의 새로운 이념. 녹색운동처럼 사회전체를 실현의 대상으로 삼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개인의 정체성 회복, 생활공동체 회복과 건설, 패러다임 변형을 위한 문화운동을 기본영역으로 설정한다. 인간 내부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우주)에까지 관심영역을 확장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氣발생의 신비 전자파 수맥파 행운의 달마도 순금카드
나쁜 氣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속에 간직하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인증서 획득
제조판매원 : (주)골드타운
10만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 02)926-7377/7315
(24시간 공휴일 접수함) http://www.goldsale.co.kr
證 提 書
달마도 순금카드
앞면 : 오인법사 달마도 뒷면 : 반야심경
일반 지갑 소지용으로 알맞 큰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벗어지거나 구겨질 염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 대형(5×7.5cm)20,000원, 소형(3×5cm)15,000원이며
▶ 대 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달마도 상반신 달마도 전신상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크기로 오인법사의 전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 표구액자 (27×32cm)
▶ 달마도 순금판 크기 (11×16cm)
▶ 일반판매가격 150,000원 현장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앞면 : 달마도 뒷면 : 반야심경
달마도 순금카드 (3×4cm)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셋트 25,000원
※ 달마도 열쇠고리 뒷면은 반야심경 외에 사업번창부, 저량안전부, 시험합격부도 있습니다.
(주)골드타운은 불사보급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판매수익금의 일부분은 불사건립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⑮

佛者亦名法身 亦名佛心 此心無形相
불자역명법신 역명불심 차심무형상
無因果 無筋骨 唯如虛空 取不得
무인과 무근골 유여허공 취부득
不同質界 不同外道
부동질계 부동외도
此心 唯如來一人能會 其餘衆生迷人
차심 유여래일인능회 기여중생미인
不明了 此心不離四大色身中
불명료 차심불리사대색신중
若離是心 卽無能運動 是身無知
약리시심 즉무능운동 시신무지
如草木瓦礫 身是無情 因何運動
여초목와력 신시무정 인하운동
若自心動 乃至語言施爲運動
약자심동 내지어언시위운동
見聞覺知 皆是動心用
견문각지 개시동심동용

부처란 법신이라고도 하며, 또한 불심(佛心)이라고도 한다. 마음은 형상도 없고 인과도 없고, 힘줄도 뼈도 없다. 마치 허공 같아서 잡을 수도 없다. 물질 세계와는 다르고, 외도와도 다르다. 이 마음은 오직 여래 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밖의 중생이나 미혹한 사람은 밝게 알 지 못한다. 마음은 육신을 여의지 않았다. 만약 마음을 떠나면 운동할 수도 없다. 이 육신은 무

終日見而未曾見 終日笑而未曾笑
종일견이미증견 종일소이미증소
終日聞而未曾聞 終日知而未曾知
종일문이미증문 종일지이미증지
終日喜而未曾喜 終日行而未曾行
종일희이미증희 종일행이미증행
終日住而未曾住 故經云 言語道斷
종일주이미증주 고경운 언어도단
心行處滅 見聞覺知 本自圓寂
심행처멸 견문각지 본자원적
乃至瞋喜痛痒 何異木人
내지진희통양 하이목인
只緣推尋 痛痒不可得
지연추심 통양불가득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임 그 자체가 작용이니, 움직임과 작용 이외에는 마음이 없다. 마음 밖에는 움직임이 없다. 만약 움직인다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면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본래 움직임이 없다. 따라서 움직임은 마음을 여의지 않았고 마음은 움직임을 여의지 않았으나, 마음은 여의는 것도 여의었다는 생각도 없으며, 마음은 움직이는 것도 움직인다는 생각도 없다. 이는 마음의 작용과 작용한 것이고, 마음의 움직임과 움직인 것이다. 즉

마음은 형상도 인과도 뼈도 없다
마치 허공같아서 잡을 수도 없다

지하기가 마치 초목이나 기와조각 같아서 몸뚱이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하겠는가. 만약 자기 마음이 움직이거나 내지 말하고, 베풀고, 운동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다 마음이 움직이고 작용하기 때문이다.

動是心動 動卽其用 動用外無心
동시심동 동즉기용 동용외무심
心外無動 動不是心 心不是動
심외무동 동불시심 심불시동
動本無心 心本無動 動不離心
동본무심 심본무동 동불리심
心不離動 無心離離 無心動動
심불리동 무심이리 무심동동
是心用用 是心動動 卽心用用
시심용용 시심동동 즉심용용
卽心動動 不動不用 用體本空
즉심동동 부동불용 용체본공
空本無動 動用同心 心本無同
공본무동 동용동심 심본무동
故經云 動而無所動
고경운 동이무소동
終日去來而未曾去來
종일거래이미증거래

마음 그대로의 작용과 작용한 것이며 마음 그대로의 움직임과 움직인 것이지 별도로 움직이거나 작용한 것이 아니다. 작용의 바탕은 본래 공(空)하고 공은 본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움직임과 작용이 다같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마음의 근본은 움직임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움직이되 움직이는 것이 없다' 했다. 말하자면 종일 가고 오되 가고 온 적이 없고, 종일 보되 본 적이 없고, 종일 웃되 웃은 적이 없고, 종일 듣되 들은 적이 없고, 종일 알되 안 적이 없고, 종일 다니되 다닌 적이 없고, 종일 머물되 머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말로써 표현할 길이 끊어졌고 마음으로 따질 자리가 없어졌다' 하였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가 원적(圓寂)하니,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렵다 하는 것이 목인(木人)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로 인해 미루어 보면 아픔이나 가렵다는 것은 그 근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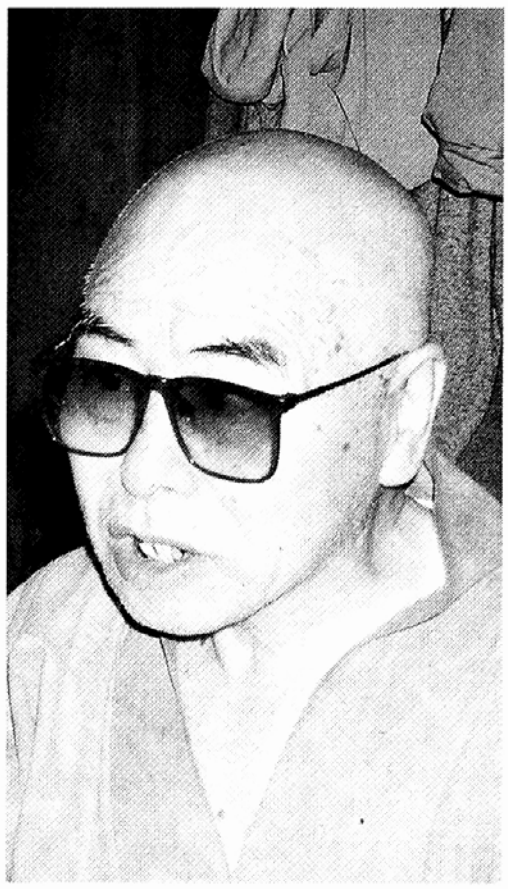
묵산스님

정릉 보림사 주지

선수행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한편에서는 선의 과잉이라고 질책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선은 무엇인가, 다시 묻는다. 일찍이 원오스님(1566~1642)은 "그것은 그대의 얼굴 바로 앞에 나타나 있다"며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논리적 언설로 농하게 될 때, 선의 본질은 그대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 선의 커다란 진리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그대의 내부에서 찾으려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일렀다.

그래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있어야 한다. 출가 이후 50여년을 줄곧 참선수행으로 매진해온 묵산스님을 찾아 다시 '선은 무엇인가' 물었다. 400여년 전 조사께서 이르신 말씀에 다름 아니다. "남의 살림살이에 속지 말아라. 자기 부처를 놓고 형상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내가 부처요 허공이 내몸"



- 1922년 제주도 서귀포 生
- 47년 제주 황룡사에서 금륜스님을 은사로 출가
- 이후 백양사, 해인사, 대각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
- 30여년전 서울 정릉에 보림사 창건
- 매주 토요일마다 재가 수행자들을 지도하며 철야정진

—스님께서는 오래도록 선수행을 해오셨습니다.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 뵙고 법을 구했는데, 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버리라고 했어요. 금강경에 보면, 가리왕이 부처님의 목을 치고 가슴을 짜개고 허리와 팔다리를 잘라냈어요. 그래도 부처님은 조금도 저항심을 내지 않았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으면 목을 자를 때 저항심을 냈을 것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온, 색수상행식, 자체성이 없는 것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감각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지수화풍 사대색신은 자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기불이 켜있으니 몸이 있는 줄 압니다. 내 눈동자도 볼 수 없잖습니까? 곁눈질을 해서 희다 검다, 밝다 어둡다, 이렇게 느끼는 도리가 자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온이 개공이므로 제법공상이고, 나고 죽음, 오고 가고, 선악, 남녀가 공한 것입니다. 그 자리가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허공이 내 몸이다, 허공심이다고 부처님께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수행의 길로 들어선 큰 계기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병이 많았어요. 세속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었는데, 할아버지가 토굴을 짓고 수행할 정도로 신심이 큰 분이었지요. 집에 스님네들의 왕래가 많았고요. 그래 자연스레 절에 들어왔지요. 처음에는 제주도에 원만암이라는 조그만 암자에서 행자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한림에 황룡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금륜스님을 모시고 삭발했지요. 그때만 해도 제주도의 절들은 거의가 불공해주고 밥이나 얻어먹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백양사로 나왔어요. 해인사 대각사에서도 살았지요. 30여년 전부터 이곳 정릉에서 살고 있습니다.

—듣기에, 백봉 김기추거사께서 스님께 선을 배우러 와서 같이 공부했는데, 백봉거사가 먼저 깨쳐 스님께서 제자가 되었다는데, 어떤 연유입니까?

▲백봉 선생이 보림회라는 거사림을 조직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여기에 와서 공부 좀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러게 하라고 해서 인연이 되었어요. 보림회는 청량리 밖 동불암사에서 모였는데 멀어서 불편하니까 나를 찾은 것이죠. 그때 내가 있었던 곳은 국민대 뒤편 배밭골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일요일마다 모임을 했어요. 모인 사람들이 20명쯤 됐지요. 대학교수 검사 기자, 모두 지식층이었어요. 금강경에 대한 법문을 듣고 점심먹고 갔지요.

그때까지 나는 도대체 불교가 뭔지 몰랐어요. 중노릇한다고 목탁치고 식은 밥 얻어먹고 살았는데 몰랐어요. 나름대로 어록 봐서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그런걸 알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백봉 선생의 법문을 듣고 선생으로 받들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백봉 김기추거사를 종종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부산상고에 다니다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 죽을 고생을 했지요. 해방되어 감옥에서 나왔는데, 한 친구의 참선하면 견성한다는 권유를 듣고 선방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참구하다가 삼매에 들어 새벽 종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忽聞鐘聲何處來
蓼蓼長天是吾家
一口呑盡三千界
水水山山各自明

홀연히도 들리나니 종소리는 어디로 오나
까마득한 하늘이라 내 집안이 분명허이
한입으로 삼천계를 고스란히 삼켰더니
물은 물 뫼는 뫼 스스로가 밝더구나.

이런 게송을 남겼지요.

그리고 곧장 집에 가서 전에 누가 갖다 준 금강경을 봤어요. 각 분(分)마다 게송을 붙였는데, 하룻밤 사이의 일이었어요. 이것이 〈금강경 강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담스님이 출가해 학자들을 지도해달라고 했는데, 부산 남천동으로 내려가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어요. 56세 때였어요. 매일 70~80명에게 설법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입을 열면 저녁 9시까지 혈담을 토해가며 20여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금강경 강송〉〈유마경 대강론〉〈선문염송 요론 1~14권〉〈절대성과 상대성〉〈선시집〉을 남겼습니다. 너무 현대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인생관과 우주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품위없는 책들은 종이만 버리는 꼴인데, 현대인들이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도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뜻있는 사람들이 이 법문을 보고 불교가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하고 느끼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선은 수행도 중요하지만 수행 이후의 면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고 했듯 수행을 통해 얻은 경지에서 더 나아가 보살도를 펼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소향대(回小向大)라고, 작은 것은 돌리고 큰 것을 나누라 한 것이데,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말만 그렇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버려야 하는데, 그런 사람 몇이나 됩니까? 남에게 길을 잘못 가르치면 죄짓는 것이고, 남에게는 고통을 주지요. 부처될 사람을 마구니 만드는 꼴이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게 낫지요.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얘기를 해도 아무 이익이 없어요. 사람은 순진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해주

신간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 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바라밀!
4×6 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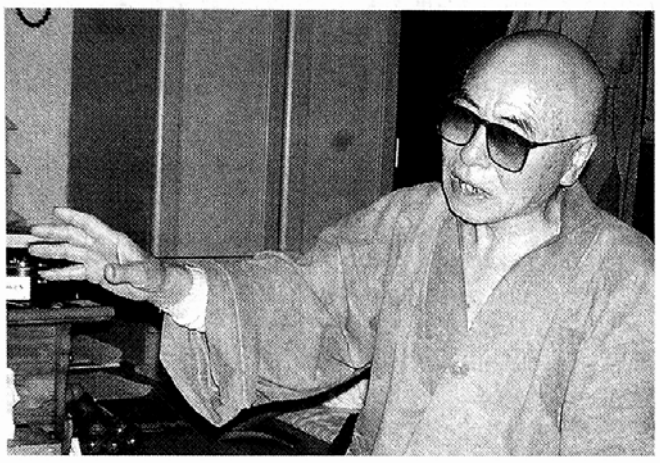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선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면 나에게 좋은 말이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요즘에는 수도할 그릇이 될만한 사람이 귀합니다. 전부 문자와 명예, 물질, 형식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마쳐요.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에 선수행을 하면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경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허공을 느꼈어요. 허공이 내 살림이다. 내가 허공이고 허공이 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 부처님을 따른 보람이지요. 허공이 부서져 버렸어요.

꿈 속의 인간이 되어선 안됩니다. 구족하게 태어나서 사유할 줄 안다는 것은 선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른다면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쌀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 밥상에 올랐는지 알고는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를 깨치면, 지금 하는 일, 앞으로 할 일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는 문제, 가는 문제 다 풀려버립니다.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물은 물, 산은 산, 바람은 바람대로 부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산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바탕은 부처님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수행이 쉬운 과정이 아니니 수행의 문에 들어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떻게 넘어서야 합니까? 스승의 점검과 가르침이 없어서도 안되는 줄 압니다.

▲같은 선방이 있지만 점검을 해주지 않으면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깨닫기 전에는 미궁에서 헤맵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라고 했어요. 자기가 싸워서 결론을 봐라 이겁니다. 화두를 들다 어떤 감각이 나오면 점검을 받아야지요. 과거 임제스님이 황벽스님을 세 번이나 찾아가 얻어맞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두를 들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불, 주력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편을 많이 베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을 수는 없고 선근을 심는 것이니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조사선에서 보면 얘기할 거리가 되지 못하니까 문제시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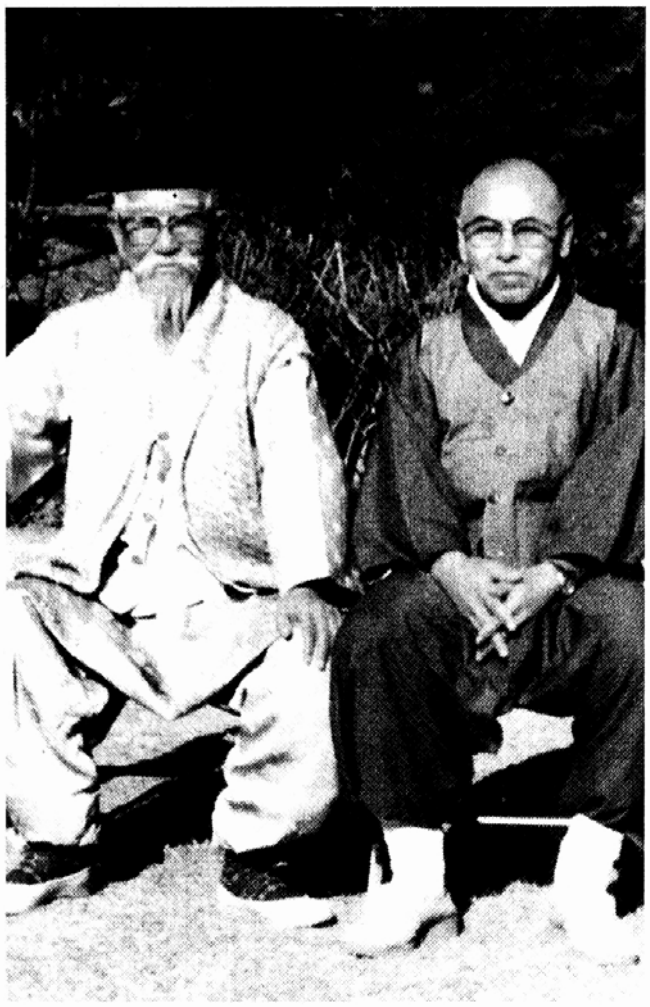
—근기에 따라 화두도 들고 교학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두 드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조사선은 절차법이 없는 도리입니다. 단계가 없어요.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자리입니다. 단계가 있는 것은 조사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수스님이 떨어진 겁니다.

—책을 보는 것은 어떤 단계입니까?

▲원리를 알아야 하니 책을 보는 것은 필요해요. 경전과 어록을 보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못한 단계예요. 완전히 깨달았다는 느낌이 철저하다면 서적이 필요없어요. 전부 내 살림으로 해야 하니까요. 분명해버리면 산산수수(山山水水)가 모두 팔만대장경입니다. 소동파가 읊었듯 시냇물 소리와 산빛이 어찌 청정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가 전부 내 살림이 되어버리니까 춘하추동, 과거 현재 미래, 지옥 천당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놓은 것을 엿보고 눈치볼 것 없어요. 불교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여기 텔레비전을 보고 거울을 보아도 전부 나입니다. 이것이 전부 공한 자리입니다. 거울에 내가 비췄다가도 지나가면 없어져요. 몸뚱이도 비워지는 것입니다. 잠 잘 때도 자꾸 흐르고 있어요. 찰나찰나 없어지는 것을 느낄 줄 모르는 것이 중생입니다. 부처님은 오온(五蘊)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300여년 전 백봉 김기 추거사가 부산 남천동에 머물며 법을 설하던 때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오른쪽이 묵산스님.

"형상에 매달리면 끝내 미혹 남의 살림살이에 속지 말라"

—일상생활을 하며 화두를 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간화선을 한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붙들고 늘어지는데 느낌이 올 때까지 애써야 합니다. 최소한 느껴야 합니다. 일할 때는 일을 충실히 하고, 운전할 때는 앞차 뒤차 잘 살펴야지요. 거기서 화두든다고 하면 안됩니다. 일과를 정해서 편안한 장소에서 '도대체 어떤 놈이 보고 듣는가', 이렇게 궁리를 하다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 때가 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화두가 됩니다. 그전에는 서툴게 화두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를 믿어도 내가 믿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뿌리가 단단해야 공부가 되고 신심이 나고 효과가 납니다. 내 부처를 찾고, 내 관세음보살을 찾아야지요. 금강경도 내 금강경, 내 반야심경, 내 천수경을 찾아야지요. 자신이 금강경이고 법화경이다. 이걸 거머잡아야 합니다. 자기 살림살이는 내팽개쳐 놓고 남의 살림살이에 다 속아 넘어가요. 봉사가 지팡이 짚고 가는 꼴입니다. 그래야 허실이 판단됩니다. 돌부처에게 절하고, 적멸보궁 찾아다니는 식으로 하면 백만년을 해도 끝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부처를 놓고 형상에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 백봉 거사가 쓴 '광풍'이란 글씨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묵산스님은 이 글씨를 가리켜 "삼천대천세계를 다 말아먹는 소리"라고 말했다.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①

정좌처 다반향초(靜坐處 茶半香初)
묘용시 수류화개(妙用時 水流花開)
고요한 좌선실에 차 맛은 반잔의 맛, 향기는 첫 향기
묘용을 쓰는 시간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나니.

송광사 불일암(佛日庵) 다실 벽에 걸린 족자의 한 구절이다. 붓 대롱이 닳게 꾹꾹 눌러 쓴 추사(秋史) 선생의 글씨로, 어린애 솜씨 같은 치졸한 맛이 있다. 법정스님은 철따라 족자를 바꿔 거시는데 어느 것이나 다 스님의 인품에서 풍기는 그런 아취가 느껴진다.

내가 조계산 송광사 산내 암자 불일암을 처음 참배하였을 때의 모습은 지금의 불일암 주위 모습과는 다르다. 출입하는 문과 공양간 위치가 바뀌었고 곁에 딸린 서전(西殿)을 아직 짓기 이전이었다. 광원암(廣遠庵)도 복원되기 전이었다. 25년 전인 그때는 아담하고 조촐한 작은 암자였다. 지금도 외형은 그대로인 것 같다.

찰밥을 싸들고 도반 행자들과 함께 법정(法頂) 스님께 인사차 갔다. 큰 절에서는 보름마다 하는 삭발 목욕일 날에 항상 찰밥을 한다. 송광사 찰밥 하면 또 알아준다. 그때 보현심 보살이 채공 보살로 있을 때였는데 솜씨가 아깝다 할 정도로 뛰어났다.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미역국하고 찰밥은 음식궁합으로 잘 맞아 미역국도 함께 끓인다.

철마다 바꿔 거는 족자 스님의 인품 보는 듯

국을 끓이는 소임은 내 몫이었다. 먼저 솥바닥에 기름을 바르고 물에 불린 미역을 약간 볶았다가 끓이면 담박하면서도 구수하다. 다 상(上)행자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요리법이다.

불일암 외에도 고개 넘어 오도암(悟道庵) 과수원에 간다. 그때 효봉(曉峰) 노스님의 속가 아드님 거사가 말년에 머물고 계셨다. 사진첩을 보여 주며 옛 이야기도 들려 주셨다.

불일암 스님의 은사는 효봉 노스님이신데 말하자면 서산 대사의 법맥인 셈이다. 그 이전 송광사는 서산 대사와 쌍벽을 이룬 부휴대사 선수(善修)의 후손 풍암 스님의 법손이었다. 약 400년 동안을 풍암 스님 법맥이 유지되었으니 송광사는 효봉 노스님이 주석하는 시점에서 판도가 크게 바뀐 것이다. 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은 효봉 문도 일색이지만 또 언제 법력 높은 분이 새 회상을 차리게 될지 예측 불허하다. 세상사 인연 따라 오고간다.

오도암 아드님 거사로부터 전해 들은 일화가 있다. 사실 그때는 오도암이 아니고 구산(九山) 스님이 거사를 위해 과수원을 인수해 토굴로 그냥 쓰도록 하였을 뿐이니 암자랄 것도 없이 오두막 같은 토굴집이었다.

"평양 집에서는 '효' 자, '봉' 자 노스님이 가출한 날을 제삿날로 삼았지요. 그 날을 잡아 제상을 차려서 절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노스님은 그 날 밤 꿈에, 자식들이 걸게 음식을 차려서 놓고는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사님은 화순 경찰서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헌데도 지척에 아버지를 두고도 생전에는 뵐 기회가 다시 없었다. 신혼 여행 때에는 오대산 선원 앞을 지나쳤을 때에 효봉 노스님이 이를 알아보고 앉은자리에서 돌아앉았으니 부자간의 인연치고는 묘하다.

법정스님의 차가운 눈빛은 퍽 이지적이면서도 단호하다고나 할까.

한번은 불일암에서 공양주로 지낼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광주에 호미, 돌 망치, 돌 뜨는 대꼿, 등 연장을 사러 갔다와서 잔돈을 다 내놓지 않으니, 두 세 차례나.

"연장을 잘 샀어?"



그림 · 문병성

하고 넌지시 잔돈을 다 내놓으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 10만원을 가져가서 6만 몇천 몇 백 몇 십 원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끝돈은 버리고 그냥 만 원 권만 3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잔돈을 깡그리 털어놓을 수밖에.

다른 이야기지만, 담을 허술하게 해 두면 도둑질을 가르친다고, 하여 만장도교(慢藏盜敎)란 치문(緇門)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다. 스님은 매사에 투철하여 빈틈이 없으신 줄을 짐작하였지만 정작 모시고 보니 수긍이 가는 이야기였다.

직설적이고 단순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다. 좋든지 궂든지 분명하지 우물쭈물 머뭇거리는 법이 없다.

스님의 반응을 보려고 일부러 스님 밥그릇 안에 내가 고기 몇 점을 넣어 두었을 때였다. 스님은 몇 술을 들다말고 밥 속에 묻힌 고깃점을 보더니,

"옛날 노처녀가 있었지. 맘에 든 신랑이 없는 탓이야. 헌데 이번에는 정작 신랑감이 나타났는데 역시 결혼을 포기하고 말았다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지켜온 정조가 아까워서 그랬지."

"……?"

고기를 보고는 느닷없이 노처녀 이야기를 꺼내신다. 나는 스님의 깊은 속뜻을 모르고 다만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지켜온 정조 때문이야. 〈계속〉

佛紀 2544年(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송 광 사
주 지 지 원
신 도 일 동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룡리 569
TEL 0652)243-8091 / 8681

사 단 법 인
한나래문화재단

통도사 부산포교원

HANNARAE OUITURE
INOORPORATED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TEL : 051)816-2241
FAX : 051)806-2430

전국영탑 대리점 모집

■ 가족, 종중, 묘지의 혁신!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해 드립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18기 봉안으로 묘지와 장례비가 경제적이며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문중, 종중, 탑30기 60기 90기 제작 설치도 합니다.
· 선산, 정원등 어느 곳이나 최저 3평이던 설치가 용이하다.
· 탑1기에 조상을 대대로 봉안하며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 화합이 잘된다.
· 화장은 어떤경우에도 후손에게 영향이 없으나 시신을 잘못 매장하거나 이장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환이 생기며 유골을 버리면 후손은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실용신안 등록번호	0172542호
의장등록번호	30-1999-0022081
탑기본형규격(1)	높이190cm, 넓이:100cm 세로100cm
유골함규격(원통형)(2)	높이 17cm, 지름:16cm
상석의 규격	가로 50cm, 세로65cm.

■ 영탑 분양 및 주문 제작 판매 설치
· 가족형, 종중형, 일반형, 종교형 기타 단체형
· 전국 어디나 신속 제작 설치가능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 전국 사찰경내 영탑공원 영탑주문 환영
· 전국 시, 군, 구 단위
· 석재 가공 및 장묘 부대사업 부동산 소개업 점포 운영하시는 유경험자
· 희망자는 전화 또는 내사문의 요망
· 폐사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숙식은 1박2일 무료 제공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번지
Tel : 0417)584-6674~6 Fax : 0417)584-2335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님!

4월은
잔잔한 바람
그림움 되어

하늘 끝
님 오시는 길 따라
연꽃등 밝혀들고

다시 태어나
고해의 바다건너
어린 중생 품어주시려

억겁의 세월은
온누리 자비광명
피안의 언덕으로 ...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과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물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2242-0255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민중의 소박함 깃든 가람

가람의 장면들 27

고창 문수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민중의 소박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고창 문수사 문수전과 그안의 문수상. 우리나라에서 문수보살을 단독으로 모신 문수전은 이 절밖에 없다.

15년 전 무척 더웠던 여름날, 자동차 길도 없어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길을 올라, 어느 깊은 산사에 겨우 도착했다. 일단 절에 도착하면, 먼저 주지스님을 찾아 사찰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먼저 할 일이었다. 그런데 그 절에는 스님은 한 분도 안보이고 늙은 보살 한 분만 계셨다. 너무나 깊은 산골이어서 스님조차 안 계시는가 실망하던 차였다. 절 한 귀퉁이에서 밀짚모자를 쓴 농사꾼 아저씨 한 분이 땀을 씻으며 나타났다. 막 농사일을 끝내고 올라온 듯, 바지 한쪽을 접어올린 베 잠뱅이와 탑수룩한 얼굴은 영락없이 절 땅을 부쳐먹는 머슴이었다. 스님 어딘 계신가 물으니, 조금만 있으라 하면서 요사채로 사라졌다. 잠시 후 승방 문이 열리고 어디선가 주지 스님이 나타났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좀전의 그 농사꾼이었다.

스님의 말씀인즉, 한국 불교는 신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는데, 그 절의 가난한 농사꾼 신도들에게는 받을 것도 없지만, 이제는 주어야할 때다. 그래서 절 농토을 이용해서 절 아래 마을 주민들과 새 영농기술을 개발하면서 공동경작 중이라는 것이다. 스님을 만나기 전에 절 집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일정한 격식이나 화려함보다는 민중적인 소박함과 일상적 자유로움이 돋보이는 건축이었다. 그 건축적 이미지와 주지스님의 서민적 면모가 오버랩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절이 문수사였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해발 620m 높이의 추령산은 일명 문수산이라고도 불리우고, 그 산 중턱에 문수사가 숨어있다.

문수사의 건축은 예사 절집들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가람의 영역이 좁아서 입구 진입로가 사찰의 앞구리를 치고 올라가는 꼴이 되었다. 운치있는 계단길을 오르면 작은 대문이 나오고, 대문을 들어서면 강당인 만세루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서있다. 진입로의 정면에는 오히려 한산전이라는 대방채가 놓여졌는데, 중국의 그 유명한 한산습득 고사에서 온 승방 이름이다. 중심부분은 만세루 너머 작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웅전과 명부전이 안마당을 감싸는 구성도 예사롭지 않지만, 가장 특이한 것은 대웅전 바로 뒤에 놓인 문수전이라는 작은 전각이다. 문수전은 물론 문수보살을 모신 전각인데, 그 많은 고찰 중에서도 문수보살을 단독으로 모신 문수전은 이 절 밖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그 위치도 특이하다. 대웅전은 가람 내에서 최고의 주불전이다. 그 바로 뒤에는 특별히 중요한 - 대웅전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 전각들만을 놓을 수 있다. 아니면 모두 비껴서 대웅전 뒤쪽 좌우에 위치하게 된다. 그런데 문수사에서는 문수전이 대웅전 바로 뒤편에 위치한다. 그만큼 문수전이 중요한 건물이라는 뜻이다.

산사 고적한 분위기 압권
후덕한 문수보살상 특이

문수사는 644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곳이라 전한다. 자장스님은 중국 오대산(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을 친히 뵙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일생 문수보살을 다시 친견하는 것이 소원이어서, 귀국한 후에도 강원도의 한 산을 골라 오대산이라 이름을 붙여 문수보살의 주처를 만들 정도였다. 그러나 말년에 드디어 문수보살이 거지꼴을 하고 친히 나타났으나, 눈이 어두워진 스님은 알아보지 못했다.

자장율사가 귀국하면서 추령산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생김새가 중국의 오대산과 너무 유사해서 이 산의 석굴에서 지성으로 기도를 드렸다. 7일만에 땅 속에서 문수보살상이 솟아올라, 여기에 절을 짓고 문수사라 했다는 사적기의 기록이다. 그러나 당시 이곳은 신라의 적국인 백제땅이어서, 신라의 국통인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문수보살은 어떤 분인가? 중생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분이다.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의 아픔과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라면, 문수보살은 그 고통을 해결할 현명함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도를 실천하기 위한 용맹을 주는 분이다. 이 지적인 보살은 원래 귀족적 풍모가 강했다. 조선시대에 오면, 불교의 주 신도층을 구성했던 농민들은 지식인적인 문수보살보다 대중적인 관세음보살에게 더 큰 의지를 했고, 관세음을 위한 원통전이나 관음전은 지어졌지만, 문수전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문수사의 문수보살님은 지적인 풍모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 키 정도의 높이인데, 얼굴이 전체의 1/3 쯤 차지하니, 요새 말로는 틀림없이 큰바위 얼굴이다. 또, 두리 뭉실한 상호는 지식보다는 덕이 많은 큰스님과 같은 얼굴이다. 이상은 아무리 보아도, 조선시대 후기 작품이 확실하다. 민중층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 불교에서는 가장 이지적인 문수보살마저도 민중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작은 건물인 문수전의 입구는 측면에 뚫렸다. 문수상이 건물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축에서 측면에 입구를 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네 어귀에 있는 상여집이나 당집 정도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다. 건물 마저도 민중적인 형식을 취했다. 문수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면서, 이 보살님과 건물은 가난한 신도들의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티베트에 자유를…"

불교 NGO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해외 280여 불교NGO '자유티베트' 운동 후원
환경·인권보호도…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불교NGO간의 공방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티베트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른바 '자유 티베트(Free Tibet)'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네따앙불교인동호회, 대원불교청년회, 티베트인권독립회의 등 10개 불교단체가 '티베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결성, 티베트 인권·문화 캠페인을 벌인 것을 비롯, '달라이 라마 방한 범불교대책위원회'가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기존의 티베트의 문화와 수행에 대한 관심이 독립·인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유 티베트운동'은 이제 시작단계.

미국이나 유럽,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불교NGO를 비롯한 수백 개의 민간단체가 티베트 망명정부를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이들의 인권현실에 무관심한 실정이다.

현재 '자유 티벳'을 지지하는 해외 불교 NGO는 280여곳. 이 가운데 활동이 활발한 단체는 30여 곳이다. 이들은 티베트의 수행법과 문화 체험, 환경감시 활동 등을 통해 티베트인의 자유와 인권회복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활동이 두드러진 곳은 티베트 망명정부 산하의 NGO로서 티베트청년의회, 티베트인권민주센터, 티베트여성협회, 티베트자유운동이 대표적이다. 특히 티베트청년의회는 98년 4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티베트 인권회복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중 한 명이 분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티베트 난민들이 이주·정착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청년·대학생 그룹을 중심으로 정치적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는 티베트 비폭력 독립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밀라레파 기금', 티베트에 본부를 둔 국제적 비영리단체로 자유티베트 청년운동을 전세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도 중국 정부에 항의편지 보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티베트를 위한 국제 캠페인', 94년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 학생단체 'SFT(Students for Free Tibet)', '자유 티베트 캠페인' 등이 자유 티베트 운동을 이끌고 있다.

티베트의 환경과 인권보호 운동도 활발하다. '티베트를 위한 국제법률가 위원회'의 인권보호활동과, 매년 '세계 티베트의 날'이 개최하는 티베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연대 행사가 눈에 띈다. 티베트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한 '티베트 고원 프로젝트', 티베트 자연 환경 파괴 보고서를 펴내는 '티베트 환경 감시' 등도 대표적인 환경 기구.

해외 NGO들의 자유 티베트 운동은 티베트 수행법과 문화체험 활동에서 출발했다. 전세계 50여국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사원, 문화센터, 각종 교육기관이 이들 활동의 진원지다.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곳을 중심으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불붙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티베트 환경·인권문제로 시야가 넓어진 것. 현재 티베트 관련 NGO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각종 티베트 관련 단체가 200여 곳을 넘는다.

주민황(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박사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선 안되며, 티베트의 인권 상황과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해외 불교NGO와의 연대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자유 티베트' 운동관련 주요 불교NGO

이 름	사이트 주소	내 용
티베트인권독립회의	tibet.ca.kr	티베트 불교 소식 정보 종합제공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기대하는 사람들	dalailama.or.kr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촉구하는 활동의 장소
네팔불교인연회	diamond-buddhism.org	티베트불교 숨겨진 보물들과의 대화
티베트인권민주센터	www.tchrd.org	티베트 정부정책 인권기관
티베트여성협회	www.tibet.com/Women/twa.html	정확한 티베트 여성정보 제공
티베트를 위한 국제법률가	www.savetibet.org	티베트 관련 종합정보 제공
자유 티베트 캠페인	www.freetibet.org	달라이라마 등 티베트 독립단체
밀라레파 기금	www.milarepa.org	티베트 비폭력 독립투쟁 지원단체
티베트를 위한 국제법률가 위원회	www.tibet.ca	티베트 환경·인권보호
SFT	www.tibet.org/SFT	자유 티베트 독립을 위한 대학생 조직
티베트 기금	www.tibetfund.org	티베트 문화 보호 및 지원
티베트 캠페인	www.mugensphere.com/~mugen/tcn/	티베트의 역사 인권 교육 문화 보존
티베트 하우스	www.tibethouse.com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 보존 기관 하우스
티베트 네덜란드	amsterdam.park.org 8888/Tibet_Home.html	티베트의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
티베트 독립 운동로	www.tibet99.com	티베트 독립 운동로
나로파 불교대학재단	www.naropa.edu	티베트어 · 불교 · 철학불교 강좌
자유티베트로 티베트 하우스	www.embassies.se.tcn_tib_xmas.html	티베트 관련 하우스 자료
I Love TIBET	www.tibet.to	일본 티베트 관련자료 제공
Tibet Online	www.tibet.org	세계 티베트 지원단체에서 만든 영합사이트

티베트 인권상황

中 침략후 120만명 고문 기아로 사망
사찰 6천여개 파괴…핵 실험장 전락

1950년 10월 7일 중국의 침략이후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20만명의 티베트인이 정치적 박해, 투옥, 고문, 기아 등으로 죽어갔다.

중국은 문화혁명(1966~1976)을 통해서 2000년 전통의 티베트 불교문화를 철저히 파괴했다. 6,259개에 달하던 사찰이 76년까지 불과 8개만 남게되었고 59만2,558명에 달하던 스님 중 11만여명이 고문을 당하고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25만여명은 직위를 박탈당했다.(95년 현재 티베트의 사원은 1600여개, 스님은 4만여명)

59년 라사에서의 민중봉기이후 달라이 라마와 정부관료 및 8만여명의 티베트인들이 인도 네팔 및 부탄으로 망명했다. 81년 이후 비폭력적인 의사표시의 이유로 감금당한 인사는 3500여명. 감옥과 노동수용소 등에서 70%의 수용자가 죽음을 당했다.

중국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족 이주정책을 편 결과 몇 배나 많은 한족들이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66년 중국정부는 티베트어의 사용을 금했으며, 모든 교사들도 중국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

중국은 또 티베트의 광물 산림 야생생물을 약탈해 중앙아시아의 생태·기상학적 균형을 위협하는 환경위기를 초래했다. 게다가 전략의 요충지이기도 한 티베트 지역은 중국의 핵무기 실험실과 핵폐기물 매립장소가 되었다.

영원한 진리의 향기

다시 보는 법구경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마치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차츰 미혹하여 그 나쁜 것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을 이룬다.
어진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마치 향기나는 물건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워지며 선을 익혀
마침내 맑고 꽃다움을 이룬다.
- 본문 중에서



역은이 허 정 스님

범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사 주지, 총무원 포교연수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파주 심학산 약천사 주지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는
가장 대중적인 경전으로 부처님의 주옥같은 말씀이 그대로 담긴
《법구경(法句經)》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원하고 있다.

허정스님 엮음/본문 301면/값 8,000원

전화 (02)712-1938, 팩스 (02)706-9576
E-mail : geumsan@kornet.net
금산출판사



2000년 3·4월호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불교와 문화'가 격월간으로 발간됩니다

'불교와 문화'가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를 지향하며 디지털 시대, 열린 지면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 3·4월호부터 격월간 발행을 시작합니다.

종범 스님의 지상설법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六波羅蜜) - ❶ 보시(布施)
인터넷 정보혁명의 시대를 사는 불자들에게 대승불교 보살의 수행방법인 육바라밀을 통해 올바른 신행방향 및 불교의 역할을 제시한다

집중서평 김용옥 선생의 선불교 이해는 정확하다
- 최근 발간된 반상섭 선생의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에 대한 반박 글

컬러화보 ① : 이호신 화백의 생태그림기행 - 그림 속에서 찾는 山水와 가람의 숨결 - 자연이 숨쉬는 상생의 터전, 선암사
- 相生의 시대, 相生의 문화를 꿈꾸는 중견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이 전국 사찰을 직접 답사하며 그린 사찰 경관과 자연생태 그림 시리즈

컬러화보 ② : 사진으로 보는 가람의 어제와 오늘
- 삼보사찰,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전각들의 변천사(일제시대와 현재의 모습)를 사진을 통해 비교한다

故 최응호 법사를 추모하며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 그동안 일본 속의 백제불교에 비해 연구가 미약했던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에 대해 현지 답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 소개한다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 고려 공민왕이 쓴 영주 부석사 '부량수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인터넷으로 만나는 세계의 불교, 불교문화
- 최근 세계 불교계의 동향 및 관리어 풍천 전산화 사이트 소개

현대인을 위한 알기쉬운 불교신행
부처님의 가르침,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인가 - 관음신앙편(관음신앙의 특징, 관음기도법, 관음성지 소개)

인물포커스 근 · 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언론/출판편)
불교방송 초대사장 장상문 거사
전 불교신문 사장 이한상 거사

우리시대의 匠人 - 새 천년을 열어가는 알서가는 불자
불교인터넷넷레비전 대표 임동민 씨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 kbpf@chollian.net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삼라만상 나와 둘로 보지 마세요

요즘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의 차원이 지대하게 높아진 경향이 보여요. 세계 어디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이런 공부하는데는 드뭅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같이 차원이 좀 남다르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말로는 이름 지을 수 없으리 만큼 감사합니다.

저가 이렇게 두서 없이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뜻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내서 그대로 행하시면서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는 것이 모두가 공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태어난 이 모습이 바로 화두입니다. 딴 데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모습이 공생이니까요. 왜냐? 이 모습 속에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들었으니깐 말입니다. 그리고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모습이 같으면서도 달리 있고, 달리 있으면서도 한 덩어리 속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인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거든 내 몸을 보세요. 각자 내 몸을 보세요. 공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이기 때문에 공심으로서 조화가 된다. 또 공심으로 조화가 되기 때문에 공체로 이어진다. 또 공체인 까닭에 공용으로 화한다. 우리가 봐도 이 눈 하나가 보는 게 아니죠. 들어도 귀 하나가 듣는 게 아니구요. 이건 절대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한데 합치면서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전에는 원식이라고 그랬지만 원식이나 공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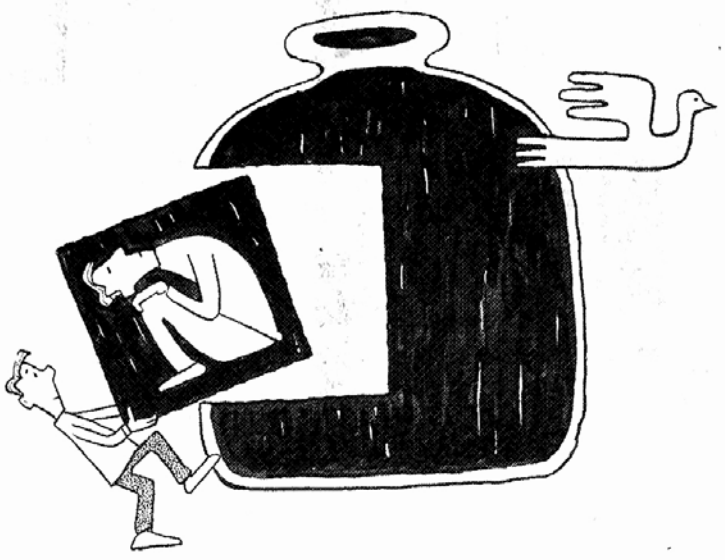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각하는 대로 입력돼 법이 됩니다

'관'하는 도리 알면 분란 모두 해결

그런데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형체가 그렇게 공식으로서 같이 가게끔 했느냐. 보십시오. '공식' 하면은 보는 것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을 말합니다. 전부! 부처나 중생이나 미생물이나 모두 한데 부합해서요. 여러분의 조상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유전성에 의해서 영계성에 의해서 또는 인과성이나 업보성, 윤회성에 끄달리고 고생하면서 급박하게 사느냐. 바로 어머니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고, 돌아가신 분 따로 있고 산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이 그대로 입력이 되면서 그대로 법으로 이어집니다. 잘못 생각하면 잘못하는 대로 이어지고 잘 생각하면 잘하는 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법이 그냥 만사중의 공법이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말을 넣으면 뜻이 왜곡돼서 공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상하 사방 곳곳마다 말입니다. 책으로 엮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는지 잘 아시겠죠.

부모가 돌아가셨다거나 자식이 죽었다거나 한다면 '아, 아무개가 죽었구나.' 하고 알죠. 죽으면 모습이 없어지죠. 모습이 없어지면 저 은하계의 별성도 모습이 없어지면서 가운데 원소 자체만 남습니다. 그러듯이 부모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형제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간에 원소 자체는 남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불성이라고 하든지 원소라고 하든지 다 좋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남기 때문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둘이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돌이 아니다 한다면 끼니때마다 내가 먹는 게 그분이 같이 먹고, 만 명이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온 사이가 없어요. 같이 부합된 사이가 없이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모습 달라도 우리는 공체

왜 우리가 울고불고 개탄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걸 봐 왔고 살아오는 걸 봐 왔고 그러기 때문에 생사가 항상 벌어져 있죠. 만약에 한 사람이 섰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그 영혼 속으로 싹싹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모습이 없으니깐 부닥침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수만 개가 들어와도 들어온 사이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걸리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셔도 안 가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무슬하는 데 사람이 급한 처지에 도달하면은 한 사람으로 보였다가 똑같은 사람이 죽 그냥 여러 명으로 보입니다.

병안에서 새를 길렀는데 새가 자라 병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새더러 하는 소립니다. "너는 왜 길을 찾아서 나오지 못하고 이 허공을 훨훨 날지 못하고 병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안에 들어갈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다. 문이 없는데 뭐가 들어가고 나가고가 있겠느냐?" 이러거든요. 그 소리를 안에서 새가 듣고 그냥 나오고 싶으니깐 나왔다 이거죠. 아난이 열쇠그멍으로 가섭존자의 방에 들어가듯이, 이것이 이해가 돼야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항상 우물에서만, 요만한 우물에서 물을 떠먹으려고 한다면, 흐르는 샘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라면 물이 썩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흐르는 샘물에서 떠먹어야 자유스럽게, 아무 기탄 없이,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십 몇 년이지, 십 몇 년을 추우나 더우나 산으로 돌았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까? 만 명의 조상님이 돌아가셨어도 하나니까 숫자를 따지지 말고 그냥 공심이다. 공생으로 살고 있다. 모습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시니깐 공체다. 내가 맛이 있는 걸 먹든지 없는 걸 먹든지, 굶든지 먹든지 그건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다. 이걸 말하면서도 가슴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거를 속속들이 다 알기 위해서 얼만큼 매진을 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남이 뭐라든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여자 남자로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자 난자로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은 항상 있습니다. 근본이 여기 와서 탁 삼합이 돼야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의 차원이 얼마나 높으냐, 공덕이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 모두가 돌 아닌 도리를 알라 이거죠. 어렵더라도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살아온 그 길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그냥…, 뭐라고 말을 할까, 자기 근본을 믿으세요. 이걸 말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말이 땅에 떨어지느냐, 공법으로 들어가서 세세생생 이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세생생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수레바퀴에 걸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기주머니를 면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조상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대사의 인연을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맺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통틀어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고 다 인연이 됐다 이 얘깁니다. 만약에 이 방안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영이라면 겨자씨 하나에 다 들어가도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 그렇게 살지 말고 주위 사람에게도 관하는 걸 일러주세요. 예를 들어 일가친척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럴때 "관하는 건 좀 일러주셨습니까?" 물으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관하는 거를, 다른 건 다 몰라도 관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죽든지 그냥 둘 아니게 공심으로 넣어라 이거죠. 공생으로. 그러면 나 따라서, 내가 하는 것대로, 내가 아는 것대로 다 포용이 되죠. 관하는 걸 모르면 여러분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형제들간에 싸우고 잠자는 데도 누가 들어오는 것 같고 온통 집안에 별의별 일이 다 많지 않습니까.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만 집이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 열 집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도 둘 아니게 관한다면 자연적 이게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니깐 마음이 가라앉고 모든 있던 허물이 다 그냥 무효가 돼 버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절에 사람이, 사찰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찰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지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일대사 인연 맺은 부처님

예전에 김대성이가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가난하게 살 때, 어느 스님이 그 주인 집에 시주를 구하러 왔다가 베 50필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축원하기를 "하나를 베풀어 그 만배를 얻게 되니 수명이 장수하고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오."라고 했답니다. 대성이 이 말을 듣고 집으로 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필경 전생에 좋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를 하지 않고 또 무엇을 내세에 바라겠습니까. 제가 머슴살이 해서 얻은 밭을 보시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라고 하니 어머니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농사짓던 밭 전부를 부처님 전에 시주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더 있었으면 더 드렸을텐데 있는 것이 이것 뿐이니 어떡합니까?' 그러구선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단 말입니다. 또 스님께 말하기를 "우리 모친이 한분 계시니 좀 건강하게 잘 사시게만 해주면 됩니다" 했더랍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생각하기를 '이젠 우리 아들이 잘 되겠지' 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3일만에 덜컥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재산 전부를 시주했는데 아들이 잘 되기는커녕 그것도 3일만에 죽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장에 스님네들을 불신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떤 아들인데..." 하고 아마도 대성통곡을 하고 야단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 페이지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 봤다! 저 깊은 곳 내 존재의 근원
禪공학, 아봐타 코스에 초대합니다.

이번 코스가 열릴 봉인사 한길정진원은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자연경관이 빼어난 수련장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의식개발 프로그램 아봐타로 뜻대로의 삶을 창조하십시오.

< 체험단편 >

- 지금부터의 내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어 기쁘다. .....(불교학 박사과정 수료)
- 내가 너이던가. 내가 나이던가? 사리분별 끊고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났음이 잠시 장난이었던 것을.... (재가불자)
- 건강과 행복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니... 삼라만상이 모두 내 안에 만든 내 밖이었다. (약국경영)
- 내 삶의 창조자로서 모두를 포용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창조와 경험, 그것은 내 삶의 창과 방패. (기치료센타 운영)
- 뜻대로 사는 길이 열렸다. 모두와 함께하는 이 기쁨, 환희(주부)
- 원치 않는 삶 끝, 원하는 삶 시작(언론인)

▶주 최 : 의식개발 연구소 서울 아봐타 센터
▶홈페이지 : www.myhome.netsgo.com/cdikr
▶e-mail : cdikr@netsgo.com
▶장 소 : 봉인사 한길정진원((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기 간 : 2000년 5월 24일 오전11시~ 31일 오후6시 (7박 8일)
▶인 원 : 20명이내
▶코스지도 : 이상구, 오진은, 이재호 (아봐타 마스터)
▶참 가 비 : 170만원(숙식제공)
※ 아봐타코스 복습자는 40만원(숙식포함)
※ 서울 경기지역 참가자는 봉근식 참가도 가능합니다.
▶신 청 : 의식개발 연구소 서울아봐타센타 (02)572-1673
봉인사 한길정진원 (0346)574-5585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 여래원 거용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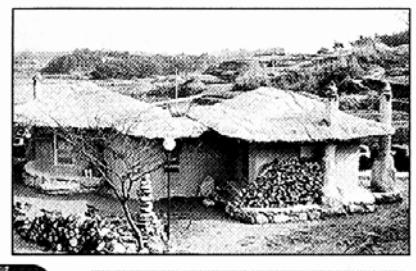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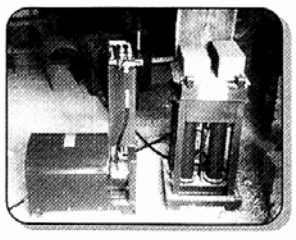
◐ 상담문의 ☎ (02)3437-8282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문이 없으니 들어오고 나갈 것 없어

☞ 15면에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더랍니다. "아하, 이 죄많은 여인에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했는데, 너는 시주를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좋은 양반의 집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몸을 벗게 했구나" 하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은 금방 그런 생각이 나실까요?

김대성이가 사흘만에 죽어서는 멀지 않은 곳 정승집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으니 항상 제삿날이면 밥 한 그릇을 떠놓고 좋은 집에 태어나기를 염원했어요. 그리고 김대성은 자라면서 꿈에서 항상 1년에 한번씩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가서 보면 노파가 밥 한 그릇 떠넣고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를 수 해가 지났단 말입니다. 자라면서 가만히 생각 해보니까 참 이상스럽거든요. 하도 여러번 다니니까 길도 훤하고, 그래서 한번은 바로 그날 가보니깐 또 그렇게 노파가 밥을 하고 있더랍니다. 다 늙어 꼬부라져서 형편없이 되셨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전생의 어머니를 봉양할 문제를 생각했고, 지금 현생의 부모를 모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절을 짓고 그랬단 말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양부모를 다 모시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도 세세생생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둘로 보지 않아야 벗어나

그러듯이 우리가 부모를 위한다면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신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전자에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고 해서 온 것을 생각하면 전부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습니다. 내 형제 아닌 게 없고. 그렇다면 모두가 둘로 보지 말아야죠. 둘로 보지 않는 반면에 그 분들은 바로 내 모습 내 마음으로 인해서 공생으로서 공심으로 공융하면서 공부를 해서 같이, 내 몸속에 중생들도 다 같이 벗어나는 길에 수만 개가 터지죠. 지금 은하계의 큰 별이 별성을 낳는 문제와 똑같죠. 은하계의 별성이 있으면 모습이 없는 그것을 모두 한데 합쳐서 그 모습을 입히고 살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다면 기르는 데도 어머니가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듯 그렇게 길러서 수만 개의 별성을 내놓죠.

그거는 어디로 갔던지 하여튼 그런 게 우리하고 멀리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가깝게 여러분한테도 별성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칠성부에 들어가니까 촛불을 요만한 것 이만한 것, 큰 것 작은 것 해서 죽 켜 놓았더랍니다. 켜져 있는데 불을 보니까 촛불이 아니라 별성이더랍니다. 작은 것 큰 것, 긴 것 짧은 것,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 차원에 따라서, 수명이 긴가 짧은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 별성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촛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월초파일이 되면 등을 켜는데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실 때에 모든 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성이 그냥 그대로 제 가끔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촛불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거는 거죠. 부처님과 중생들 미생물 모두 이 세상 만사를 다 위해서 우리가 켜는 겁니다. 그렇게 켜되 근본 자체는 바로 여러분이죠.

질문자1(남): 먼저 큰스님께 질문할 수 있는 인연과 기회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항지원에서 온 김경현입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생로병사가 본래 실체가 아님을 알아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그 알고 싶은 생각이 깨달아질 수 있는 길입니다. 허허허.

질문자1(남): 잘 알겠습니다. 구경지는 무엇이며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스님: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죠. 과거에도 오늘이 있었고 미래에도 오늘이 있을 거고 현재에도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삼 현재삼 미래삼 이것이 동일하게 한데 합치니까 구경지입니다. 이것을 문이 없는 문으로 통과가 돼야 그 도리를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현재도 공해서 없다는 얘깁니다. 공해서 없기 때문에 모든 조상님네들을 다 둘로 보지 않고 거기다가 일임하면 모두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1(남): 잘 알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법체 건강하십시오.

스님: 난 편리하고 간편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편안하게 간편하게 어지럽지 않게 괴롭지 않게 그냥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자2(남): 저는 포항지원에서 온 백두한입니다. 큰스님,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 법당에서 관을 하다가 살아가는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껴져서 '어떤 인연으로 인해 이러한 과정을 살아가는지 주인공 너만은 알 수 있잖아'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순간 아!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 순간 과거를 아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어찌 그 몇 가지만 겪어왔겠는가? 큰스님께서 늘 삼라만상 일체 생명의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겪지 않는 모습이 없고 내가 겪어보지 않는 마음이 없다. '고'라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랑이요 자비라고 하신 큰스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흐르는 눈물 속에 주인공에 관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큰스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 이럴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인공 자리에 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고 끝까지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러한 일이 닥쳐오는 것도 수억겁을 두고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일이니 내 탓으로 돌리고 이 또한 공했으니 또 살아지겠구나 하고 그냥 생활에 충실하면서 지내야 되는지요. 큰스님의 가르침 부탁 드리겠습니다.

스님: 지금 댁의 주인공이 바로 자불이니까 자불한테 다 맡기세요. 어떤 분들은 밑바닥에 앙금을 남겼기 때문에, 100% 믿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 과거에 살다가 자기 이름에 빨간 줄이 쳐져 있으면 현재에 살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살 때에 그 빨간 줄 쳐진 것을 빼와야 됩니다. 지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에 다 맡겨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저승과 이승이 멀다 가깝다도 없이 혼란이 안되고 해결이 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디고 조금 이르고 아주 빠르고 이런 것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저 될 수 있으며는 잘 실천해서 모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게 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은 더디고 그러니까 괴롭죠? 괴롭다는 거, 그런 것도 다 믿어서 그냥 다 버릴 수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간단치도 않지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것도 아니니까요.

질문자3(남): 큰스님, 항상 늘 좋은 자리를 만들어 법문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지원 청용회 노명수입니다. 오늘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득도를 하여 견성 성불하신 분은 무의 세계를 아시겠지요. 또 범부들 중에도 공부하여 가면서 전생을 본다든가 귀신과 조상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습 또는 타인의 생각이나 습관을 보는 것을 귀신을 본다 또는 조상님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또 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웃고 살아야

스님: 예를 들어서 그거는 개개인의 생각과 차원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도의 길이라는 것은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말하는 것도 도가 아니요, 만나는 것도 도가 아니요,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아도 도가 아니요, 모두가 도가 아니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대로 말이 없더라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해준다면 목마른 사람 물을 주고 나도 목마르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도의 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둘이 아니게 거기다 놓아라. 둘 아니게 진짜로 믿고 놓을 수만 있다면 조상님네들도 다 활현한다. 정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비고비 넘는다고 그러죠. 사실 고비고비 넘는다는 것도 넘을 것이 없는데도 넘는다고 하죠. 넘을 것도 없는 고비를 넘을 때마다 그거를 잘 알게 되죠. 공부를 하다보면 '아, 이 지위에 들었구나, 여기 이 지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진데 그 한 부분만 알고선 깨우쳤다고 야단들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나 이게 통틀어서 정말이지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런 지위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아마 서천국에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도하고 벗었는 공부입니다.

질문자4(남): 이렇게 큰스님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김태완이란 사람입니다. 지금 목수 일하는 틈틈이 울산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는 이제 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마음 자리 하나 놓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큰스님께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미국 클락슨 대학에 로렌스 슐만이라는 물리학 교수는 최근 과학잡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 시간이 앞으로 가는 지역과 거꾸로 가는 지역이 공존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주가 대폭발로 팽창을 하면서 앞으로 흐르던 시간이 다시 수축을 하면서 거꾸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 지식으로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지 수축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막연한 생각으로는 '내가 우주라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차 안에서 내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뛰어봐도 기차가 가는 속도로 갈 뿐이지 내가 더 빨리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지금 2000년도에서 1999년도로 가는 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2001년으로 가는 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라면, 다시 말해 시간은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도 거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참,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큰스님뿐만 아니라 살아계셨던 선지식께서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래라는 게 과거기 때문에 아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스님께서는 이 시간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이 과거를 회상하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간의 흐름에는 앞과 뒤가 따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흐름 자체가 애당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큰스님의 밝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스님: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같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 해봅시다.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타고 갔는데 거기서는 종점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댁에는 종점으로 내렸지만은 거기서 타는 사람은 시발점이 되죠. 댁에서 타고 올 때 또 시발점에서 타죠. 그래서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다 이게 되고, 이것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그것도 없다, 그건 논설이다, 이유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 바퀴 이렇게, 이게 둥글어서 둥근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둥글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물과 평지, 허공 이것이 전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소리 잘하죠. 우리 사는 지구가 버스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안에서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싸우면 되느냐. 이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럭하면 안되니까 이 마음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느니 바로 가느니 그건 이유에 불과해요.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무슨 위대하고 커서가 아니라 진리가 작아도 그렇고 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온 물질세계입니다.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고 물질세계만 보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에너지는 얼마나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정신세계에서 에너지가 배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스럽게 살아라. 부처님께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명심해서 듣고 너희가 훨훨 벗고 자유스럽게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그대로 있었고, 그렇게 알게끔 다 있는데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여지껏 그냥 웅덩이 속에서 사는 거와 같이 살았습니다.

목수 일 한다고 그랬나요? 그 일 하시면서 공부하는데 어떠세요? 목수 일하는 거기에도 우주의 섭리가 있을 텐데요, 어디든지 없는 게 없어요, 발 한 짝 떼어놓고 가는 데도 그게 보통 발 한 짝 떼어놓고 가는 게 아니죠.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과학 아닌 게 없지만 과학이라는 그거보다도 더, 너무나 섭리가 많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거꾸로도 없고 바로도 없다 이런 거죠.

사람한테도 혈관이 있듯이 이 지구에도 법망이 있죠. 인간한테도 법망이 있어요, 법망이라고 해야 맞겠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생명들이 수없이 한편으로 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없이. 우리의 몸 속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습니다. 죽어가도 둘이 아니게 죽어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야 아무 기탄 없이 순서대로 개천에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주 정확한, 정말 인간을 만들어서, 정말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너지는 정신계서 나와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스님은 모든 걸 다 아시리라.' 그렇게 믿고 계시죠? 보려면 다 볼 수도 있고 알려면 다 알 수도 있지만 그 귀찮게 조그만 거 가지고 알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알려고 한다면야 뭐 삼천년 전이든 후든 몽땅 알게 되죠.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또 말하거나 그런 것도 없죠. 단 하나 '아이구, 좀 이런 거는 이렇게 잘했으면 빨리 훨훨 벗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 지금은 과학시대고 이렇게 발전이 돼 있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뛰어넘어서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몸뚱이 속은 보이지 않는 암흑이지만, 볼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틈틈이 어느 곳에 어느 것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죠. 하여튼 열심히들 하고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지 제 삼자를 무시할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또 한가지는요 사람이 살면서요, 한 가정이든 어떤 회사든 그저 될 수 있으면 웃고 사세요. 웃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요, 내 힘이 있으니까 웃는 겁니다. 힘을 믿고 웃는 겁니다. 힘을 믿고 웃는 것은 믿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지 믿지 못하면 웃음이 안 나오죠. 이걸 어쩌나 그러고 근심을 하느라고 얼굴이 찌푸려지죠. 찌푸려지는 얼굴은 힘이 없기 때문에, 믿는 힘이 없기 때문에 찌푸려집니다. 절대로 찌푸리며 살지 마시고 당장 저녁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찌푸리지 않는다면 저녁거리가 금방 옵니다. 허허.

참 이런 공부를 그것 때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여튼 앞서 간 사람이 있어야 그 발자국을 짙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면서도 보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안 봐도 보고 있고 항상 하는 거를 다 알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죠. '뭐 저 스님은 아무리 봐도 말하는 것도 없고 뭐 잘못한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닌 내가, 일체제불 아닌 일체제불이 바로 그렇게 행이 아닌 행을 하시니깐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길없는 길을 걷고 손없는 손으로 일체 만물을 다 굴릴 수 있게끔 하십시오.

※위 법문은 2000년 4월 2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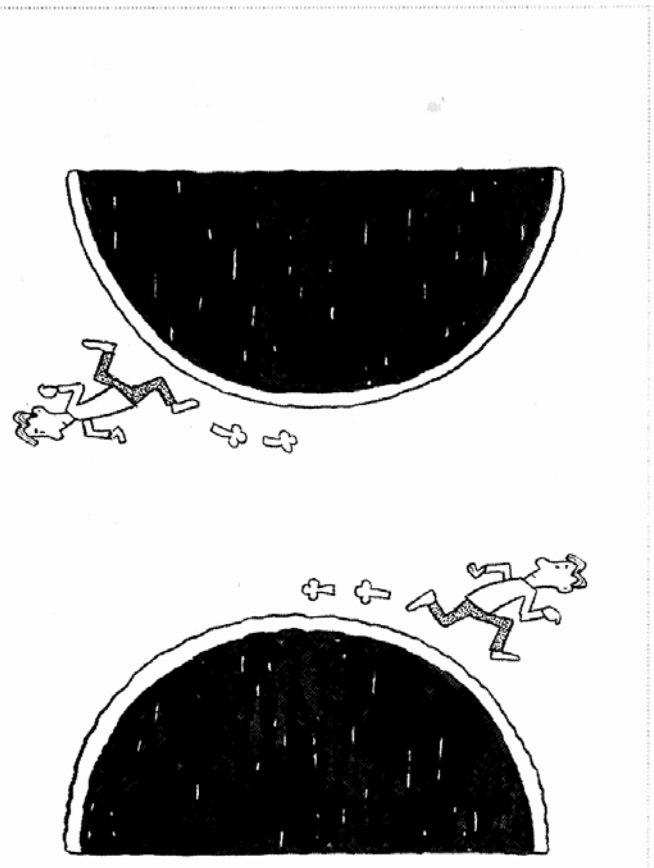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조상 1만명이 들어와도 나와 하나

자불한테 다 맡길때 지은 업 없어져

보고 말하고 아는게 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람 물 줄수 있어야 참된 道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불교발전의 획기적인 모델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가장 엘리트스님 배출을 목표- 공부와 수행 · 모든지원)
통신불교대학 · 인터넷 불교 대학 접수중
대구 053)474-8228 /011)560-5968
(선착순 10명)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구인구직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
2234 - 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정릉)
02)
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1
금오동 관음사
02)
2234-3310

암자나 토굴 구입하실분 찾습니다.
(꼭 하실분 연락바람)
0563)335-7312
016)664-0563

평생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신축중인 절)
0596)
973-5820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박 정재 (정주스님)
◇본적 : 전남 신안군 지도읍
◇주소 : 부산시 부암3동
부친 병세 악화, 생면에 상련 원함.
0631)242-6137
017)674-0508

행자(男) 모집
본 사찰에서는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인원 : 00명 · 긴간 : 4월 15일~5월 30일
· 연령 : 만19세 ~ 35세
· 학력 : 고(재)졸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학력이 되지 않는 자는 행지수련 기간 중 검정고시를 볼 수 있음
문의처 0342)719-0408~9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선원 주지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23)383-7009
019)582-7009

공양주및 종무원 겸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나주 불회사)
0613)
337-3440
/3446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42)
825-4040

새로 세운 도량입니다.
100년 대계를 세우고서
평생 절에서 계실 심신
깊은 보살님을 모십니다.
(40~50대)
평소 내 절을 세우고자 원을
세우신분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63)335-0092

비구니 스님만 보세요
▸ 몸이 아파서 대중에 못나가는 스님
▸ 경제사정으로 병원에 못가는 스님
▸ 병원에서도 완쾌치 못하는 스님
▸ 걸망을 풀고 편히 쉴곳이 없는 스님
▸ 무료침식제공
▸ 자유정진 및 자유기도 환영 해제비 지급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
약사사 02)384-5060

산이깊은 절
포교당을 인수할
인연깊은 스님을
기다립니다
허인 합장
02)939-7121
011)9972-7121

봉은사 종무원 모집
◇나 이 : 30세 미만 ◇성 별 : 남성 불자
◇직 책 : 총무 주임
◇자 격 : 4년제 대졸 이상, 정보통신 기능자 우대
◇구비서류 : 이력서(신행 이력 포함), 자기 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접수 마감 : 2000년 5월 (우편 접수 가능)
◇접 수 처 : 봉은사 종무소
(전화 : 02)511-6070/4)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부전스님(비구) 모집
서울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전 스님을 보시고자 합니다.
◇나 이 : 35~45세
◇승 랍 : 10년 이상
◇인 원 : 0명
◇구비서류 : 수행 이력서, 승적 증명서
011) 9781-2862 (노전)

기도하시면서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371)763-8259
011)371-7877

기도하실 분
100일 이상 기도하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숙식은 무료, 연령제한 없음)
천년고찰 영동
중화사
0414) 742-205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 달마상
45×70cm
(가로×세로)
※ 금강경10폭병풍
※ 자비동자
35×45cm
(가로×세로)
금모스님 합장 0561)775-2432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병차 소탁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맑고 향기롭게…
꽃 공양
◆불교전통 사찰 행사용꽃 전문
◆일반 생화 일절 도소매
◆화환 · 꽃바구니 · 신부화 · 웨딩꽃길전문
◆전국 꽃배달
淨我 꽃집
※ 금강자비회 초대 회장 윤 대현화 합장
남대문 꽃 도매상가 138
02)774-5886/011)737-4659

기타

국내 최초로 인터넷 화랑방 개설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orea art gallery [인터넷 화랑방]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홈페이지 http://www. korea-art - gallery.org
동양화 서예 서양화 선화 도자기 공예 디자인 초대작가들의 전시 작품을 공모 접수합니다.
02) 2242-0331 / 2242-0255
자유롭게 사고 파는 인터넷생활정보 무료 매물 사이트
홈페이지 www.memull.com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 못으로 시공하는 방수시트
◆ 페인트 제거제(단청)
◆ 목조, 석재, 세척제
◆ 방염성, 방부제
※ 영업사원 모집
02)3474-6232
(주) 동화특수 산업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유방암, 자궁암, 간암에 좋은
백화 시설조, 조청엑기스
신경통, 관절염, 척추에 좋은
꿀담초, 조청 엑기스
※ 다려드립니다(건강원)
053)941-5432

불교 조각 **고려 미술원**
문화재수리 단청, 개금, 조각기능보유등록 693호,1361호,1495호,1853호
목불상,닫집,불단,개금,법당,내부불사 일체
충남 천안시 안서동 178-1(성불사 內)
0417)567-2600 011)421-5337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ainsoft.co.kr/Art.htm
※ 연락주시면 카다록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원 장 임영창 합장

사찰안내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3동
◆ 평수 : 1층 20평(공양간겸 방1칸), 2층 37평 (방2칸, 법당1)
◆ 특징 : 시설 완비
◆ 가액 : 답사후 가격 절충
011)430-3344
※꼭 하실분 연락 바람.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법당 : 11평
◇요사 : 25평
◇부지 : 420평(국)
◇가액 : 3억 2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011)713-5634

사찰터 안내
◆위 치 : 경북 김천
◆평 수 : 밭 600평,산신각, 창고 (사용부비1000평이상), 법당28평,방7개 (사무실포함), , 주차장, 요사채55평,
◆특 징 : 계곡과 경관이 좋으면서 법장이나 기도처로 최적지 대형차량진입
◆가액 : 1억 7천 (절충가능)
0547)436-5036

포교원운영하실 분
◆ 위치 : 경남 통영시내
◆ 평수 : 2000평이상
◆ 특징 : 시내속의 산사, 바다보임
◆ 가격 : 권리금700만원 (월세20만원)
0557)646-2766

사찰 안내
◆ 위치 : 갓바위 뒷길
◆ 평수 : 대지 80평
건평 26.5평
(법당 +요사채, 98년 12월 신축),
◆ 가액 : 1억
※ 비구니스님 적합
053) 853-4418
011) 551-1998

사찰 (급)안내
◆위 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귀절지을 땅(임야1500평)
◆위 치 : 안동시 안막동 (시청서 5분) 2차선 신도로 접
◆벌장, 실버타운, 기도원, 사찰적합위치최상 경관수려 (주차 15대 이상가능)
◆가격 : 9800만원 011) 301-4949

포교원 30평
◆위 치 : 전서울 성북구 전철역앞
◆평수 30평, 상담실, 대기실, 강의실, 법당
◆3층건물의 3층 전체.(옥상도 단독으로 씀)
◆가액: 2천 5백 (1천6백에 월 40만원)
0502)888-0119(서울)

토굴(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25평
임법당, 큰방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800만원
(답사후 가격 절충)
0371) 763-6032
011)9792-2078

요양원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 (월명공원 근처)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 가액 : 5천만원 (가격절충)
011) 9646-322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평수 : 290평, 법당22평 목조, 요사35평 기와
◆ 특징 : 포교최적지 기도도량
◆ 가액 : 1억 8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1천평
법당, 요사, 용왕당
◆ 특징 : 산세수려, 기도도량
◆ 가액 : 1억 3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평수 : 4천평
법당, 요사, 산신각
◆ 특징 : 산세절경, 기도도량 최적지
◆ 가액 : 2억 3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
◆ 평수 : 25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2동,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정각2개 황토방1개
◆ 가액 : 월세가능 답사후 절충
0356) 582-0635/ 017) 708-0635

별장지 전원주택지 암자터 안내
happy 700 평창을 아십니까?인간의 생체에너지 활성에 가장좋은 700고지에 위치한 평창 강원도 특유의 빼어난 산세와 맑은 계곡 물이 휘감아 흐르는 곳에 부지조성이 끝난 별장지를 분양합니다.
※ 가족묘지 (명당자리) 도 분양 합니다
오태민 합장
◆위치 : 둔내 스키장 뒷편
◆총평수 : 10,000평
◆평당가 : 5~8만원
◆분양평수 : 300평이상
◆거리 : 서울에서 1시간 50분
018) 230-8048
018) 462-0709

사찰 안내
◆위 치: 경남 진주시 소재
◆건 물: 부지4천평,법당 45평(현대식) 요사 80평(현대식) 철성각20평 (목조 삼포건축), 주지실45평(한옥)
◆특 징: 산세 좋으며 계곡에 사시사철 물이 있고 넓은 주차장 있음
◆가 액: 6억 5천 총공사비 20억 들음.
한국불사 02) 561-7791
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이나 암자 양도양수하실분 찾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 공원 밑
◆ 대지 : 200평
법당 8평, 야외법당 25평,요사채 12평-2동
◆ 가액 : 1억 2천만원
0555) 572-2462
011) 828-6006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동
◆ 평수 : 62평
◆ 평수 : 황토집 적당
◆ 가액 : 3000만원
0597)962-3528

아주싼집 - 투자가치있음
◆시흥빌라 3층 18평형 방3개
가액: 4,500만원 95년 분양가 5,700 이었음. 융자금 저당권 일체 없음 전세 3,500안고 800만원에 인수
◆수원시 빌라2층 17평형.
가액3,200만원 분양당시 가격 4,800만원이었음.
중계인 사절 주인 직접 연락 선착순 (위 두채중 먼저 팔리는 한채)
◆전세 사양함
011)9973-424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시설 완벽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3)942-0700

과수원 하시면서 절 지으실 분
◆ 위치 : 밀양시 청도면 조천리 산207-2번지(사명대사 생가근처)
◆ 대지 : 2만평중 약 4천평 개간완료
◆ 길, 전기, 임시귀거할 가건물, 하우스 있음, 계곡깊고, 저수지 바라 보임, 추천 과수목 : 호두, 메실, 단시감
0551)296-7226
017)286-7226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1리 75
◆전체평수 : 1,997평 ◆대지 207평 40평 전통한옥 내 임법당 9~10평 사무실 7평~8평, 방 5개
◆국도에서 1km 내에 위치
◆도로 좌우로 2차선 완성, 주차장 완비
◆야산밑에 한덩어리로 묶여져 있음
◆주택지로도 좋고, 가족 묘자리로도 좋음.
◆가격 : 5천 5백만원
011) 655-3883

불자 세상보기

마약으로 병드는 사회

회사원·주부·택시기사·학생 등 다양계층 침투

염색체 이상 초래하는 치명적 약물도 확산

마약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스며들고 있다. 일부 연예인이나 특정 계층 부류들의 탈선정도로 치부돼왔던 마약이 이제는 회사원, 주부, 택시기사, 학생 등에게까지 번지고 있고, 심지어는 경찰관이 히로뽕 상습투여로 파면되는 사건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7일 대검의 마약심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215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국내 마약류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는 검찰의 발표수치는 이미 옛날 통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마약은 빠르게 일상 속에 녹아들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인기가수 그룹인 '업타운'과 '드렁큰 타이거'의 전·현직 멤버들이 마약복용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또 4월21일에는 마약에 손을 대 이미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아들과 딸, 사위에 이어 어머니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마약판매에 나섰다가 덜미를 붙잡힌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중순에는 대학가 테크노 바를 중심으로 초강력 환각제 물질을 투약한 뒤 환각파티를 벌인 여대생 등 20대 여성들이 적발되기도 했고, 택시기사들이 야간 총알운전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 마약을 투여한 뒤 운전대를 잡는 일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약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가 이처럼 급속도로 물들고 있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급격한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로 인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이 증가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 우편, 택배 등으로 공급망도 다양해졌다. 또 가격도 점점 낮아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투약사범 계층이 다양화되고 확산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왕성하게 일해야 할 20~4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87.2%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마약사범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방법도 다양해져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우려할만한 점이다.

실제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만도 LSD 코카인 헤로인 엑스터시 블랙코카인 등으로 다양해졌고, 이중 초강력 환각물질인 'LSD'는 극소량을 투약해도 염색체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일명 '도리도리'로 불리는 엑스터시는 뇌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투약 사범의 54%가 호기심 또는 유혹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러다가는 미국과 같이 마약천국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약에 빠져 든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이거나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한순간의 선택은 자신의 삶을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몰고 간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 파세다니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몸과 말과 뜻으로 악행을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빈틈이 없이 악행을 막고 선행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오." 〈잡아함경〉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고 사려깊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마약이 그렇다. 정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마약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새만금 갯벌보전을 위한 한·일 공동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KFEM)·일본습지네트워크(JAWAN) 2000년 5월8일 / 철학카페 노티나무



새만금 갯벌보전 한·일 민간 공조

환경운동연합과 일본의 대표적 습지보전 단체인 일본습지보전연대(JAWAN)는 8일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 조사결과 새만금 지역이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갯벌 생태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간척사업의 즉각중단을 요구했다.

치매 유전자 첫 발견

김재섭·임정빈 교수팀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발표

치매를 비롯한 신경질환·소아간질병 등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이들 난치병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섭 교수와 서울대 임정빈 교수팀은 치매 등 신경질환과 태아의 기형 등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하고, 이를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치매의 원인인 '감마세크리테이즈'라는 유전자의 정체를 밝힌 것. 또 유전정보를 감마세크리테이즈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나치' '프린지'라는 두 개의 유전자 중 어느 하나라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중년기 치매와 소아간질병 및 정신박약 등을 초래한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이에 따라 유전자를 사전에 조작하거나, 망가진 감마세크리테이즈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함으로써 치매나 기형 등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춘투의 계절…산업현장 '긴장'

노동계가 5월말 총파업을 향한 투쟁일정에 돌입, 산업현장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 문제와 맞물려 있는 철도, 통신, 금융, 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 노조들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태세여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0일까지 쟁의행위 결의 및 신고를 마친 뒤 29일부터 철야농성을 거쳐 6월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와 노사 대표들이 9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는 했지만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8일 머리를 맞댔으나 첫 공식만남이라는 의미로만 만족해야 했다.

〈선생자경〉은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하되 힘에 알맞게 부리며,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해야 하며,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등으로 고용주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 또 〈시가라월육방예경〉에는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하여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경전말씀대로 노사 양측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와 시대변화에 맞는 변화된 의지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노인 12명중 1명 "가족으로부터 학대"

한국 보건사회硏 조사

어버이날 하루 전인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6대 도시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명이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노인 12명 가운데 1명은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 중 42.7%는 '거의 매일 학대받는다'고 응답했고, 2~3개월에 한차례는 24.7%, 월 한두차례는 11.2%, 주 한차례 이하는 7.9%였다. 학대방법은 언어 및 심리적 학대가 93.9%였고, 방임과 경제적 착취, 신체적 폭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 39.5%, 성격차이 22.1%, 가해자의 오해 7%, 상호 이해부족 5.8%, 가해자의 자격지심 4.7% 순으로 꼽혔다. 그러나 노인 3명 중 2명은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는다'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 학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일아함경〉은 "부모를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일생보처(一生補處)의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불효하는 자식들이 명심해야 할 경전말씀이다.

시론

공교육의 역할

헌법재판소에서 과외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 누구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 받지 않으며,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분야 혹은 재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수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그러나 문제는 교육받을 권리가 얼마나 균등하게 주어지는가에 달려있다. 과외로 인해 차별을 받게 된다면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안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때는 과외망국론이 대두 되기도 했으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늘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라 있으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덕
〈한양대 국제문화대학장〉

이와 같은 현상은 과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말단 지엽적으로 접근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병을 치료하는데는 우선 급한대로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병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처방이 필요하다. 과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명한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하나의 병리 현상을 검토하는 미시적인 태도와 숲을 바라보듯 거시적인 안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결정이후 주무 행정부서인 교육부의 대처는 그야 말로 허둥대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교육부의 임기응변적 대처는 바로 한국교육정책의 현주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영세민 자녀에게 과외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기회를 베풀고자 한 충정은 십분 이해한다하더라도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이 모든 문제를 공교육으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과외를 양성화하는 발언을 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뒤늦게나마 과외를 학교 안으로 수렴하여 해결한다고 급하게 대안을 내놓았으나 그나마도 믿음직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어쨌건 이번 소란은 이 땅의 교육정책 현주소를 보는 듯해서 씁쓸함만 남겼다.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이번 교훈을 통해서 과외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당장 해결하려 하지 말고 멀리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대입제도가 문제라면 대입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임금정책 등 대입제도를 야기한 사회의식 구조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과제다.

우리 민족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남달리 강하다는 사실을 자타가 인정한다. 이러한 교육열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세계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육의 결과는 공교육에 못지 않은 사교육의 공이 컸음을 절감하고, 정부는 공교육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벼랑 끝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OECD국가 중에서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씩 이나 되는 나라는 우리말고는 없다. 교육이 경쟁력이라고 확인하고서도 교육투자에 인색한 나라, 교직이 천직이라고 말하면서 유능한 교사가 보람을 느끼고 교단을 지키도록 해주지 못하는 한 우리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과외 없이도 고루 혜택을 받는 교육환경이다. 고액과외가 필요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공교육을 내실화 하지 않은 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고액과외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세금을 매긴다고 한들 그것은 일시 방편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서 과외 받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나아가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긍지를 갖고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기술과 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조성하는 일이다.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 !!!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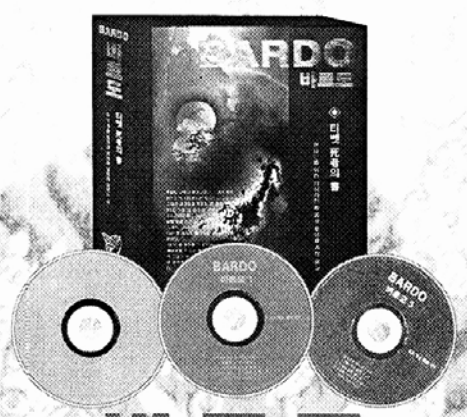
행사 기간 : 2000년 5월 31일까지 (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이 오디오 북은, 티벳 '사자의 서'를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배경 음악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녹음되어 있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죽음의 상태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 주며, 올바른 자궁을 선택하여 환생하는 방법까지 알려 주고 있다.

'오쇼 삶과 죽음의 과정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고, 전 세계 6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배경 음악 : 친마야(Chinmaya) / 번역 : 최항식 / 목소리 : 장두석



바르도

▶ CD(3장) : 정가 50,000원 → 30,000원

▶ TAPE(1시간 30분 테잎 2개) :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테잎과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테잎에서 오쇼는 바르도의 중요성, 바르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르도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꿈의 끝이다." -오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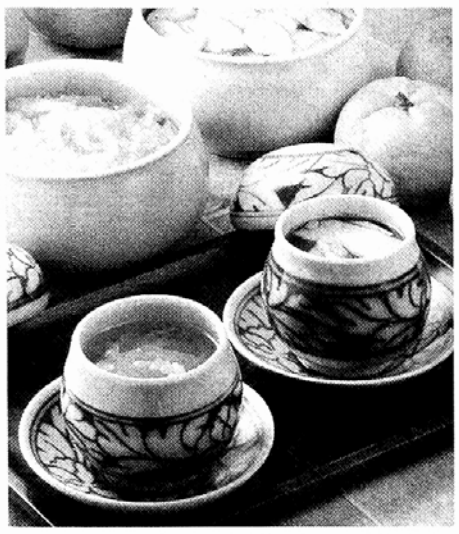
90분, 5,000원

도서출판 황금꽃 :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피로·환절기 질환 한방차로 뚝!

나른한 봄날, 끝없이 밀려오는 피로와 환절기 질환을 한방차로 다스릴 수는 없을까.

식사 후 찾아오는 춘곤증, 감기, 천식, 비염, 불면증 등을 물리치기 위해 한약방이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로 가정에서 차를 만들어 보자. 한방차는 자연에서 얻은 약재를 사용하므로 부작용이 없고, 재료 구하기가 쉬워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감기 몸살과 피로회복에 좋은 유자차(좌)와 모과차(우)

모과 · 생강차-감기몸살 · 나른할때 좋아

계피차-입맛 없을때, 치자차-불면증에 효과

감기·몸살 봄철에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은 감기 몸살. 날씨가 쌀쌀할 때나 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걸리기 쉽다. 감기는 대체로 1~2주일 동안 계속되다 자연치유가 된다.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지기가 쉬워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감기가 걸리는 요인으로는 과로와 피피 누적을 꼽는다.

피로 예방을 위해서는 모과차, 당귀차, 생강차, 귤껍질차, 계피차 등 따뜻한 한방차를 마시는 게 효과적이다. 만약 콧물이 많이 난다면 '생강차'가 좋다. 생강 한 톨에 마늘 한 쪽을 갈아넣어 진하게 마시면 콧물이 뚝 그친다. 오한과 발열이 있을 때는 '유자차'가 도움이 된다. 비타민C가 풍부해 초기 오한이나 발열 해소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기침이 심할 때는 '모과차'가 제격이다. 감기, 기관지염 등을 앓아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도 좋으며 팔과 다리 근육이 나른해져 피로감을 느낄 때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식욕 부진 입맛을 잃고 식은땀이 많이 날 때는 '계피차'가 좋다. 계피는 감기로 입맛을 잃은 사람에게 식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땀을 나게 하고 식은땀을 그치게 한다. 또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수분대사를 조절해 모든 장기의 기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비염·천식 봄철 감기에 걸린 후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천식 반응을 보일 때는 살구씨를 달여 먹거나 가루를 내서 복용한다. 또 파뿌리의 하얀 부분만 잘라내 달여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콧물이 많이 흐르고 코막힘이 심한 비염 증상일 때는 연근의 생즙을 짜서 코안에 넣는 것도 좋다. 목련 꽃잎과 박하잎을 차로 복용해도 된다.

춘곤증 왠지 몸이 나른하고 오래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인진쑥을 달여 먹거나 모과를 잘게 조각내 차로 끓여 먹는다. 또 말린 칡뿌리를 달여 먹으면 피로가 풀린다. 검은콩을 차로 우려서 복용해도 좋다. 몸이 허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는 인삼죽, 산약차, 구기자차, 복분자차를 자주 먹으면 좋다.

불면증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자기는 하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불면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적지않다. 이렇게 심한 불면증을 느낄 때는 '치자'를 차로 마시면 좋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잠이 오지 않는 사람에게 괜찮다.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의 불면증에는 '대추차'와 '생강차'가 도움이 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⑤ 신헌의 대둔사 · 해인사 편액



◇대둔사 보련각 편액



◇해인사 경판고 편액

위당 신헌(1810년~1884년)은 초명을 관호(觀浩)라 하였고 1828년 무과에 급제해 훈련원 주부로 벼슬길에 올랐다. 이후 삼도수군통제사, 형조판서, 병조판서, 공조판서, 어영대장, 관중추부사 등의 요직을 지냈으며 1875년 운요오호사건이 일어나자 전권대사가 되어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또 1882년에는 전권대사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기도 했다.

위당은 다산 정약용에게 실학을 배워 이를 개화사상으로 이끌어낸 개화파 인물 중의 한사람으로 무관 출신이면서도 학문에 힘써 유장(儒將)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개화파인 강위(姜瑋), 박규수(朴珪壽) 등과 가까이 지냈다. 또한 그는 추사 김정희로부터 글씨를 배워 추사의 의발을 받았는데, 특히 금석기(金石氣) 넘치는 예서를 잘 썼으며 묵란과 시서에도 능하였다. 서울 화계사 화장루 〈보화루〉, 〈화계사〉, 해남 대둔사 〈산신각〉, 〈보련각〉, 〈어서각〉, 〈표충비각〉, 〈화장법해〉, 고성 옥천사 〈자방루〉, 〈연화육천〉, 밀양 표충사 〈대홍원전〉, 〈무량수각〉, 〈보화루〉, 〈서래각〉, 〈승련암〉, 합천 해인사 〈법보전〉, 〈수다라장〉 편액이 사찰에 남아 있는 그의 대표적인 글씨이다.

해남 대둔사 〈보련각〉 편액은 위당이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로 있던 1843년(헌종 9)에서 1846년(헌종 12) 사이에 쓴 글씨로 보이며 당시 제주도에 유배중이던 스승인 추사 김정희와 대둔사에 머물던 초의 의순과의 각별했던 인연으로 말미암아 남긴 글씨로 생각된다. 편액의 글씨는 위당 특유의 금석기 넘치는 예서

보 련 각 날아갈듯 경쾌한 예서체 백미

수다라장 삼도수군 통제사 시절 쓴 글씨

로 날아갈 듯 경쾌하면서도 뛰어난 조형미를 지닌 단아한 글씨이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고 남측 전각에 걸려 있는 〈수다라장〉 편액에는 '三道元帥(삼도원사)', '申觀浩印(신관호인)'이라는 도서 두과가 있어 위당이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있던 1862년(철종 13) 경에 쓴 글씨임을 알 수 있다. 이 편액의 글씨 역시 질박한 필선과 삽상(颯爽)한 운필을 지닌 창고(蒼古)한 서미의 예서로 그의 글씨 가운데 자미에 속한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건강백과

어깨결림

하루종일 컴퓨터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70%는 '어깨가 결린다'고 호소한다. 허리가 아프다거나 눈이 피로하다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이와 같이 어깨가 뻣뻣하게 느껴지는 것은 의자와 책상의 높이가 맞지 않거나 새우등 자세, 턱과 배가 앞으로 나온 자세일 때 특히 심해진다.

이런 자세에서는 목줄기부터 어깨와 등까지 근육에 무리가 온다. 특히 어깻죽지쪽 여러 근육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이 일어난다.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일어나는 어깨결림은 목욕이나 찜질, 맛사지를 통해 피로물질을 제거하면 좋아진다.

가장 손쉬운 치료법은 체조를 하는 것이다. 목을 힘있게 옆으로 돌리고, 머리가 어깨에 붙을 정도로 머리를 구부리거나, 손을 위로 죽 뻗어서 만세 부르는 자세로 손을 흔들어 주는 체조를 하면 만성피로에 의한 어깨결림이 없어진다. 또 가슴을 펴면서 양 어깨를 척추쪽으로 젖히면 어깨와 목 주위 근육이 수축됐다가 이완되면서 근육에 쌓여있는 피로물질이 없어지고, 통증도 가라앉게 된다. 그래도 잘 낫지 않는다면 목 체조를 계속하면서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등배운동과 팔굽혀펴기 등 근력강화 운동을 6주이상 해야 한다. 또 매일 50번이상 만세를 부르자. 그러면 스트레스와 함께 어깨결림도 없어질 것이다. 어깨를 풀어주면 몸의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목체조·만세 부르는 자세로 풀어

등배운동·기지개 자주 켜도 좋아

※몸 전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깨체조

△기지개를 자주 켠다

△기지개와 함께 복근을 펴서 위장의 압박을 줄여주면 소화기계통이 좋아진다.

△왼쪽 어깨를 자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심장질환에 효과적이다.

△가슴을 버티듯이 활짝 펴면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

△자주 몸을 뒤틀어 피로를 회복시켜주면 비뇨기 계통이 좋아진다.

천진불심 하얀 도화지 수놓아

6회 어린이부처님 그리기 대회



◇5일 목아박물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어린이들이 족판에다 부처님을 열심히 조각하고 있다.

'부처님이 D.D.R을 한다. 부처님이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5일 여주 목아박물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5백여명의 어린이들이 도화지 위에 펼친 천진불심이다.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TV보는 부처님, 생활한복을 입은 부처님,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춤을 추는 부처님 등 재미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목판화도 처음 실시해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두번째 참가한다는 이지현(재동초등학교 4년)어린이는 "나무가 너무 딱딱해 끌칼로 파다가 손을 다쳐 반창고를 붙였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소풍을 나와 즐겁다"며 함박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후에는 잔디밭에서 교리상식을 도화지 위에 적어 맞추는 '10고개를 넘어라'와 물이 가득한 세수대야를 들고 오래 버티는 '가족계임 등 '신나는 서바이벌 따라잡기'가 펼쳐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부처를 향해 합장하는 어린이를 조각한 양현정(은석초등 6년) 어린이가 우뜩 으뜸상을 받았다.

김주일 기자

"세계 어린이에 봉축음악 선사"

조계종 소년합창무용단 공연

'외기러기 떠나가듯 떠나보자…' 5일 대한불교조계종 소년소녀합창무용단이 '봉축의 노래와 세계 민요축제'란 주제로 공연한 '국립극장소극장'. 무대에 선 30여명의 새싹불자들이 빨간 연주복과 한복을 번갈아 입으며 '부처님이 계신나라' '절에 갔었네' '우리절 연못' 등 10여곡의 찬불동요를 부르자 객석에서도 함께 따라 불렀다. 이어 무용단의 부채춤과 소고춤, 살풀이춤 등이 선보였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어린이들의 귀에 익은 '로렐라이' '오, 브레넬리' '강강수월래' 등 10여곡의 국내외 민요들이 소개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소년소녀합창무용단이 5일 국립극장소극장에서 '봉축의 노래와 세계민요 축제'를 주제로 공연했다.

대불어 지도자 연수

어린이 참선법 등 강의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는 6월3일부터 1박2일간 김천 직지사에서 '제29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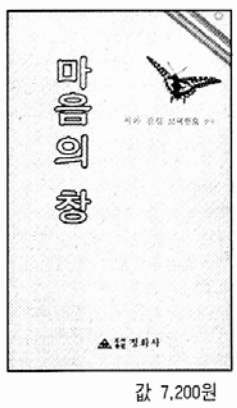
어린이지도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 참선 지도법 강의 △어린이 법회 의식 실습 △전래놀이의 운영과 실제 강의 및 실습 △어린이 불심 키워주는 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31일까지.

또 대불어는 '제2회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참가요령은 15일까지 '놀이'를 이용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된다. (051)808-4569

시와 칼럼

보덕현호선사 저

마음의 창



값 7,200원

새벽의 향내음 같고
아침이슬 같으며
짙은 안개같은 마음

늘 푸른 자연과 같고
청정수와 같으며
청순한 소녀의 가슴같은 마음

어둠속의 달님과 같고
새벽을 여는 샛볕같으며
밝은 아침 햇살 같은 마음

푸른 하늘과 같고
허공과 같으며
바다와 같은 마음

- 본문 중에서 -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명상시집 1. 정화의 빛 - 값 5,400원
2. 고향의 숨결 - 값 5,300원
3. 해 탈 - 값 7,200원

도서출판 정화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0
Tel: 0415) 867-4000
Fax: 0415) 867-4001

금선학회 수련회

慧命經의 원저자 유화양 禪師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수행비전"
"영보통 지능내공법" 한국 최초 공개
"건강없는 道는 없다."

"인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
유화양선사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찾아 중국전역을 헤매시다 호운 老師와 오중허 眞人으로부터 法을 전수받아 수행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法輪과 천백억 化神의 실체".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아 진리와 하나되는 경계를 몸소 이루게한 최상승 수련비전 영보필법은 1년을 수행하면 1년의 증험이, 3년을 수행하면 3년의 증험이, 그리고 10년을 수행하여 大成에 이르게 하는 "漸修漸進 수행법"이며 상근기는 물론이고 중.하근기의 중생이라도 영보필법의 수련체계(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性命雙修 수행법)로 꾸준히 수행하면 반듯이 최상승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修眞體系입니다. 기존의 참선수련법으로 수행에 진전이 없으신 분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행정진이 어려운 수행자, 보살님들께 드리는 "인체와 마음"을 재생 시키는 유일한 代案입니다.

■ 수련내용
1)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화롭게 이끌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법
2) 북두칠성과 인체의 기운을 상응시켜 천체우주로 我를 확대해가는 법
3)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性命雙修)하여 본성품에 이르는 법
4) 慧命(法眼, 佛眼, 天眼)수련을 통하여 法界 진리를 깨닫는 법

■ 수련의 효과
1) 정신적 : 불면증, 우울증, 각종스트레스, 노이로제, 화병 등
2) 육체적 : 만성피로, 변비, 만성위장병, 심장질환, 신장병, 비만, 고혈압, 간경화, 오장의 부조화, 냉병 등
3) 수 행 : 참선수행시 졸음방지 및 잡념제거, 삼매체험(字我 一 如)

■ 수련일정 및 장소
1. 일시 : 2000년 5월 23일(화) ~ 27일(토)
2000년 23 ~ 27/PM 7:30 9:30, 27(토)/PM 2:00
2. 장소 : 세계금선학회 본원(사당역 부근)
3. 문의 : 02)512-7057, 7233(팩스 겸용)

세 계 금 선 학 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1-1 은혜빌딩 6층
(http://www.myhome.sinbiro.com/~kumsunac)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 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 참 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 자연산(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덮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 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기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 · 홍역기점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 · 골다공증 · 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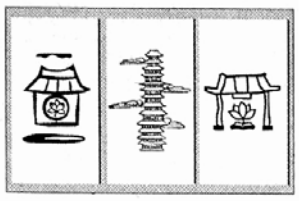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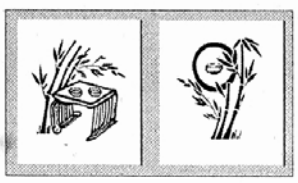
주문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대 금 : 20만원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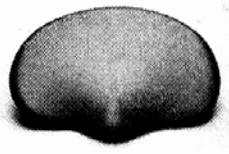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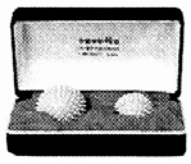


일 반 ₩30,000
숯가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025009
- 의장등록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허추보호

■규격: 39×43cm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훼리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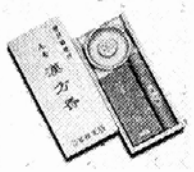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로로 드립니다.

가격: ₩5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통+한방향+향꽂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로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꽂이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로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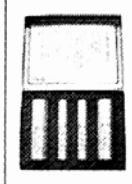
가격: ₩60,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석씨향방 오분향,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기지효능이 있음

용도
- 몸보살게 예물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야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현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엄의로 구성

가격
고급형(천연가죽) ₩38,000
일반형(인조피혁) ₩25,000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제 형 :₩20,00원
무개폐형 :₩15,000

산소용 동 히란야



용도 : 산소수맥 차단 기 에너지 장이 명당이 됨.

형태 : 원형, 자수정 부착, 히란야8개

가격 :₩240,000

순금도금 은 히란야메달



자수정 대 부착 순금 도금 (목걸이용)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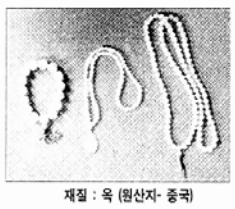
경 ·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죽 염

1. 죽염이란 ?

죽염은 쉽게 말해서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서 불에 태워 만든 것이다. 인간의 식생활에 있어서 7-장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는 소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독소로 인하여 비만, 고혈압, 뇌졸증, 당뇨병등 모든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모든 병에 해를 주는 강한 산성식품이다. 먼 옛날 부터 지혜로운 이들은 소금의 해를 줄이고자 소금을 굽거나 볶아서 섭취해왔고 심산 승가에서는 죽염을 제조하여 섭취해 옴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 죽염의 신비한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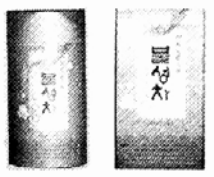
2. 죽염의 제조과정

간민의 차가 크므로 그만큼 광석물질의 함유율이 높은 서해안의 천일염을 전남 담양, 장성에서 3년이상된 왕 대나무를 구입하여 1~2마디씩 절단하여 다져넣는다. 소금을 다져넣은 대나무 위에 부분을 조선 솔잎과 황토(나무뿌리가 침범하지 않고 참토가 섞이지 않은 땅속 깊은 곳의 순수황토)를 이겨 막고 조선소나무 장작장작과 함께 가마(철판과 황토벽돌로 지음)에 재인다. 밑의 아궁이에 소나무 장작으로 48~72시간 불(훈찜)을 땐 다음 소금넣은 대나무에 불을 붙여 800~1000도의 고온으로 태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금의 독소는 제거되고 대나무, 황토, 소나무에서 유황성분과 칠분, 각종 필수 미네랄이 생성 융합되어 강 알카리성 식품으로탄생된다.

3. 죽염의 효능

본초강목에 대나무를 활용한 처방(34종류)과 신농본초경에 해소와 상기 종양, 해열산충, 구토와 곽란, 거담, 중풍, 당뇨병, 고혈압, 신경쇠약, 간질, 임신빈혈, 소아전염병 질환, 불면증, 과다음주, 피로회복, 안구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1966년 9월 미국 하버드 의과 대학 암연구센터 암약물학부 마리안나 스파다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죽염은 매일 30g씩 섭취해도 USPDA(미국인 1일 소금 섭취량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죽염은 일종의 건강보조 식품으로 다른약과 병행해도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복용해도 고갈이 생기지 않는다.

불 성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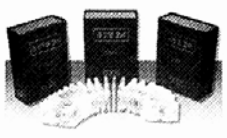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 중작 ₩30,000 / 대작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삼보죽염순소금



천일염에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을 볶아 먹었던 조상의 슬기로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필요한 식생활 습관

용량 : 500g
가격 :₩6,5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 각 68분

■ 가격:
각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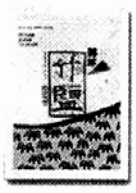
삼보미용죽염



피부에 기생하는 진성균류나 방선균류의 세포 표면을 감싸서 세균등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용량 : 250g
가격 :₩6,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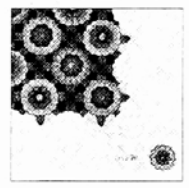
음식조미용 장군죽염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맛을 낼수 있는 제품

용량 : 300g
가격 :₩4,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삼보죽염 낱개 1통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용량 : 200g

가격 :₩36,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삼보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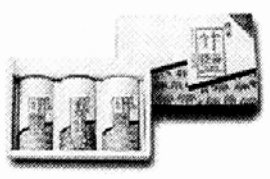
삼보죽염 세트

용량 : 600g
가격 :₩105,000



삼보죽염비누

용량 : 110g 2개
가격 :₩12,000



장군죽염선물세트

용량 : 600g(분말 알갱이 풍화씨환)
가격 :₩108,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곱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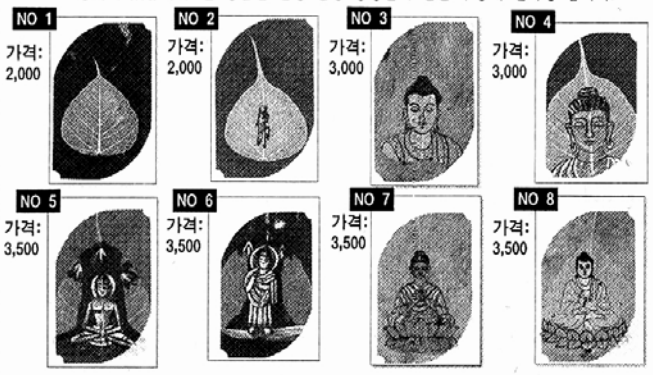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 탕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신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직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 격 : 25,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분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에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이렇게 들었다 — 공직자 윤리

린다 김 백두사업 불법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9일에는 고속철도 선정을 둘러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검은 거래' 의혹이 불거져 나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최근 제2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정부와 업무처리 관계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체 직원과 자영업자 등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부처님은 "나라의 중신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성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고 하셨다. 나리의 기강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전 말씀을 듣는다.

뇌물은 나라기강 망치는 근본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에 몰두한다면 나라의 근심이 없어진다. 〈아함경〉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의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몸을 단속하여 진실을 좇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법구경〉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펴라. 〈중아함경〉

▨나라의 중신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충직한 중신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현명한 사람들은 분규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키고, 오직 아첨꾼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직원을 남용해 부정한 수단으로 축재에 몰두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정당한 정책은 폐허속에 묻혀 버린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만약 사람의 마음이 곧으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제법집요경〉

▨3악도의 고통이 되는 근본은 탐욕이 으뜸이고 피안에 이르는 6가지 가운데 힘따라 도와 주는 것이 제일이다. 아끼고 탐내는 것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은 나쁜 길을 막는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비록 구차함이 있더라도 인색하지 말라.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3일의 짧은 기간이라도 마음을 닦았다면 천 년의 보배요, 영원할 줄 알고 탐낸 모든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만다. 〈자문경〉

▨관료들이 그 직분을 지키고, 은혜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백성을 대함으로써 부패 관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공포를 없애야 한다. 〈화엄경〉

▨다만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유행경〉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에 몰두한다면 나라의 근심이 없어진다. 〈아함경〉

▨전륜왕의 통치는 칼과 몽둥이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법에 의지하여 덕을 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항복을 받습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관리들은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범법하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보호, 법에 의한 저리, 법에 의해 안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다. 〈아쇼카왕〉

▨민생이 다 고통을 받는 것은 왕법의 부정에 말미암고, 민생이 다 낙을 받는 것은 왕의 법교가 정다움에 말미암은 것이다. 〈증일아함경〉

신행 캘린더

5월17일 (수)

■ **동국대 경주캠퍼스 최인호 초청강연회**=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오후 3시 원효관 4층 소강당에서 2000년 제2차 춘계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날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의 저자 최인호씨가 강연한다. 0561)770-2506

■ **이선옥 선무용 발표회**=세계적인 선무용가로 잘 알려진 이선옥 교수(상명대)의 선무용 발표회가 서울 동숭아트센터 홀에서 '선무가-색즉시공 2000'을 제목으로 열린다. 02)737-4045

■ **상담자원봉사 교육**=대구 자비의 전화는 6월 23일까지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카운셀러대학을 연다. 교육내용은 '상담이론' '현대인과 스트레스' '현대인과 정신병리' '전화상담기법' '상담수칙' 등이며 김진성(영남의대)교수, 이종경 변호사, 박충선(대구대 소비자가족학과)교수, 이정화 자비의 전화 교육부장 등이 강의한다. 053)753-9734.

5월19일 (금)

■ **좋은벗들 서동만교수 초청 통일강좌**=(사)좋은벗들은 외교안보연구원 서동만 교수를 초청, 지녁 7시30분부터 75분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북한사회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통일강연을 개최한다. 북한경제난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는 상생의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02)587-8996

■ **새생각실천회 중·고 교사 대상 '금강경' 강좌**=새생각실천회는 오후6시 서울 혜화역 부근 민들레영토에서 중·고교 선생님을 위한 불교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에서는 전 창원기능대학 교수 권경술씨가 〈금강경〉을 강술한다. 02)313-7028

5월21일 (일)

■ **부산 불교교육원 성지순례**= 부산불교교육원은 경북 의성 고운사, 청송 송소 고택, 주왕산 대전사 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9시 교육원 앞. 051)466-4080

■ **맑고 향기롭게 농촌일손돕기**=맑고향기롭게는 오전10시~오후3시 김해 토마토 재배공장에서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벌인다. 농작물 한 가지가 먹을거리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깃들여지는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접수는 18일까지. 02)741-4697

5월22일 (월)

■ **청소년사경공모작 전시**=제3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작 및 찬조출품작 전시회가 조계사 경내에서 있다. www.dharmanet.net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02)732-2183

5월24일 (수)

■ **혜담스님 고려불화재창현전**=수원 계태사 주지 혜담스님의 '고려불화재창현전'이 30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지장보살도, 수월관음도 등 20여점의 불화가 전시된다. 02)720-8114

■ **JTS 북한과 제3세계 어린이 돕기 후원의 밤**=한국제이티에스는 24일 오후6시30분 여의도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과 제3세계 어린이돕기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02)587-8995

5월26일 (금)

■ **좋은벗들 통일강좌 회향식**=(사)좋은벗들은 저녁 7시30분부터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통일강좌를 마무리하는 심포지엄과 함께 회향식을 갖는다. 통일강좌에 대한 총평은 물론 강의 참가자들이 바라본 통일미래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02)587-8996

5월27일 (토)

■ **조계사 '태교와 출산' 강연회**=조계사는 오후3시 불교회관 1층에서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박일문씨를 초청, '새롭게 바라보는 태교와 출산'을 주제로 열린강연회를 개최한다. 02)720-1390



◇이번 통도사 사리친견법회는 창건주인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온 지 1400년만에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사진은 통도사 괘불 이운식장면.

■ **통도사 진신사리 이운식**=통도사는 정오 부도전 및 성보박물관 입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을 갖는다. 사리 친견은 6월2일부터 7월30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0523)382-1001

법회안내

원우회서 교리설법



정락 용주사 주지는 24일 오후6시30분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열리는 원우회 법회에서 기초교리를 중심으로 설법한다. 02)732-4923

전주서 '법화경' 법문



한탑 정토사 회주 스님은 23일 오후7시 전북불교대학 수강생들에게 〈법화경〉에 대해 법문한다. 0652)226-7878

부산서 '신심명' 강의



홍선 중앙승가대 교수 스님은 19일 부산불교교육원에서 오전10시30분, 오후7시 두차례에 걸쳐 〈신심명〉을 강의한다. 051)466-4080

다보법회 5월 법문



도법 실상사 주지는 24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센터 다보법회에 법사로 초청돼 법문한다. 02)703-0108

게시판

모집

▲**UN NGO 활동요원 수련생**=미국 뉴욕에 소재한 현대불교바라밀회는 UN에서 NGO국제활동요원으로 활동할 수련생을 모집한다. 내년까지 각 1명 모집. 재가연대를 통해 서류를 받는다. 02)725-6231

▲**노인복지 자원봉사자**=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주고, 생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서비스를 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노인 주간보호소 이용자**=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경증치매, 중풍 어르신을 낮동안 보살펴 드리기 위해 문을 연 주간보호소의 이용자를 모집한다. 02)385-1351

▲**장애아동**=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특수학급에 개학중이거나 대화와 보행이 가능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인지학습, 집단상담, 취미활동, 예절교육,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0443)652-0900

▲**정토법사 수강생**=아미타정토대학은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기 위한 3년 과정의 정토법사 신입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이며 개강은 6월1일 오후7시 동산교육관에서 한다. 02)732-1217

▲**시민불교 교양대 수강생**=시민불교교양대학은 제2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25일부터 10월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10시에 진행된다. 02)971-0303

▲**환경지킴이**=자양사회복지관은 재생비누 제작과정 시범과 맞바꿈 행사 도우미로 일할 환경지킴이를 모집한다.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02)458-1664

강좌

▲**전통사찰음식**=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원은 3개월 과정의 정기강좌를 마련하고 연구회원을 모집한다. 사찰음식의 기본 개요, 발우공양을 통한 환경지키는 방법은 물론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2시. 02)355-5961

▲**쑥뜸 연수생**=능인선원은 대학 졸업자 중에 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쑥뜸 연수생을 모집한다. 1년 교육과정이며, 회비는 1만원이다. 02)577-5800

▲**영어 듣고 말하기**=조계사는 오는 6월4일 개강하는 영어 듣고 말하기 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김석범 박종화 외국어학원 강사가 매주 일요일 오후12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진행한다. 02)732-5292

▲**대전사, 주왕암 순례**=여래지답사회는 20~21일 주왕산 대전사 주왕암 순례를 떠난다. 무박2일로 진행되는 이번 답사여행에서는 강구항 일출을 볼 수 있다. 02)3445-0202

▲**제과제빵 만들기**=신도림복지관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12시30분 제과제빵 만들기 강좌를 실시한다. 02)2631-9792

알림

▲**무료법률상담**=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 가정의 건축, 주택, 재산, 이혼, 고소고발, 이성문제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11시와 목요일 오후2시. 02)385-1351

▲**즐거운 노래방**=서구노인복지회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2시30분 강당에서 노래방을 연다. 042)488-6297

▲**무료영화상영**=덕유사회복지관은 27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영화 매니아를 위한 전기 영화 '하녀'를 상영한다. 032)325-2161

▲**부모역할훈련**=목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실은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8주 과정으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부모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내용은 자녀 이해하기, 의사소통방법 등이다. 02)2646-8341

▲**터사랑 드라마 왕건촬영장 답사**=터사랑은 엄마와 함께 하는 교실 밖 역사공부 프로그램으로 '왕건'의 촬영현장을 찾아 당시 생활상을 체험한다. 안내는 역사탐방연구회 정인식씨가 맡는다. 02)725-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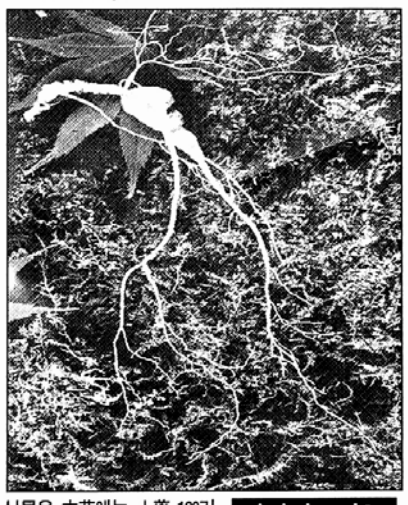
구직

▲**물리치료사**=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촉탁직 물리치료사 1명을 모집한다. 서류접수는 20일까지이며,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로 컴퓨터 활용 가능자이어야 한다. 02)577-5800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KBS 선정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의 영험과 돌탑에 얽힌 비밀!

화제의 책!



진현종 편저 / 혜명스님 감수
올컬러 / 값 6,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신령스런 영험이 그치지 않아 절로 외경감을 품게 하는 마이산 탑사!
이제 현대의 살아있는 전설을 찾아 떠나보기로 하자.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

은행나무 전화(0213143-0651 팩스(0213143-0654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호남의 명산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이 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찾아오시는 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3)433-2800, 0303 (063)432-0652, 0072

인도 쉬라바스티 금강경 성지 떠올라

금강정사등 5개단체 공동법인 추진
명상센터 세워 금강경 가르침 지도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한 인도 쉬라바스티(사위성) 기원정사가 금강경 수행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 쉬라바스티의 금강정사(주지 대인), 델리의 금강경연구원(원장 대인), 한국의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와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 양산 금장사(주지 대인)는 최근 인도에 'Diamond Sutra Reseach Society(금강경연구원)'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 쉬라바스티를 세계적인 금강경 수행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도정부의 법인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금강정사와 금강경연구원 등은 인도성지 순례단을 중심으로 순례전에 '금강경 제대로 읽기 프로그램'(독송법, 금강경 해석, 수행정진 기도법)을 진행하고, 금강정사의 수행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국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경의 연구·전파·포교에 심혈을 기울여 금강경 수행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금강정사는 지난해 10월 기원정사 인근에 35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달중에 200평 규모의 명상센터 설계도를 완성, 상반기내에 건축불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강정사는 이와 함께 국내의 바른법연구원과 연계해 '금강경 제대로 읽기운동'을 펼치는 한편 매년 겨울철 보름, 한달 과정의 순례단을 모집해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쉬라바스티 주정부와 협의해 '금강경 축제의 날' 또는 기간을 정해 포교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금강정사 명상센터 설계를 위해 최근 귀국한 금강정사 주지 대인스님은 "현재 인도에는 많은 사찰이 있지만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 "국내·외 성지순례자를 대상으로 금강경 수행법을 가르쳐 인도에 불교가 다시 중흥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부처님의 탄생지이자 교화·열반지였던 네팔 및 인도에는 불교신도가 많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일본에서 온 사찰들이 많이 있다. 이들 사찰들은 국가 또는 종단차원의 재정지원으로 활발한 포교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 사찰들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 사찰들은 막대한 불사금으로 대규모 사찰과 학교, 병원 등을 건립, 자국 순례자는 물론 타종교를 믿는 현지인들의 교화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한국 사찰들은 불교성지와 인연이 닿은 몇몇 스님들이 개인적인 원력에 의존하는 형편. 종단 차원의 지원은 고사하고,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 마저 특정종교라는 이유(개신교 직원이 다수)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쉬라바스티의 금강경 성지화 불사는 인도·네팔의 포교 및 불사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법연구원 =0344-963-2872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도 쉬라바스티 금강정사 앞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한 대인스님(왼쪽에서 두번째).


◇내원정사 동자승들이 부산 남포동 거리에서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거리 탁발을 하고 있다.

산불이재민에 온정물결

불자련등 바자·탁발성금 전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에 불자들의 온정이 이어졌다.

부산 내원정사에서 삭발 수계식을 가졌던 봉축 사절단 동자승들은 8일 남포동 일대에서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비의 탁발행사를 가졌다. 지안(5세) 지견(6세)군을 비롯한 12명의 동자승들은 남포동 구미화당, 극장가, 지하상가 등을 돌며 2시간여 동안 탁발, 4백2십만원의 성금을 모아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강원불교연합회는 2일 남북정상회담 및 강원도민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고 화재 의연금 800만원을 강원도 김진선 지사에게 전달했다. 특히 월정사는 연등축제 행사비용을 줄여 전달했.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4월24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이 4월26일 각각 성금을 전달했으며 동국대 석림회 법사단도 4월28일 경주시내에서 산불 이재민 돕기 탁발행사를 펼쳤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7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민 돕기 바자를 실시했다.

김재경·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법주사 문화관 개원

속리축전 맞춰…범주스님 이웃돕기 서화전

보은 속리산 '산중다원 법주사 문화관'이 속리축전 개막에 맞춰 4일 문을 열었다.

법주사 진입로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법주사 문화관은 달마선원 범주 스님의 달마그림과 서각화 도자기 50여점을 전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포교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인 범주 스님은 속리축전 개막일인 10일 오전 속리산호텔 잔디광장에서 5-6미터의 천에 대형 달마그림 그리기 행사도 함께 가졌다.

한편 제23회 속리축전이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속리산 법주사일대와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속리축전은 법주사 팔상전 탑돌이 행사와 불교문화우표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졌다.

마지막날인 11일엔 법주사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속리산 탑돌이 시연회가 두차례에 걸쳐 재연되었으며, 국악대향연 충북관악제 제등행렬 등이 열렸다.

김재경 기자

미룡사 베트남 학살양민 천도재

현지 기술학교 설립도 추진

부산 미룡사(주지 정각)는 7일 월남전때 한국 군인 등에 의해 희생되었던 월남 양민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자비원 육화신행회 주최로 치뤄진 이번 천도재에는 부산불교자비원 원장 정각스님, 베트남 출신 노동자와 유학생 등이 동참했다.

정각스님은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과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일본과 미국을 향해서만 잘못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천도재의 의의를 설명했다.

베트남 돕기 첫 번째 사업으로 천도재를 봉행한 미룡사는 불교 단체들의 성금을 모아 올 연말 베트남 현지에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학교'도 세울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광명 서천사 전기누전 불

8일 경기도 광명시 서천사 법당에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불이나 1천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서천사 2층 법당 내부 15평과 불상 3점 등이 불에 탔다.

도필선 기자

울산신행단체련 千배공양
태화강서…국태민안 염원



울산신행단체연합회(회장 조동환)와 울산불교문화원(원장 노동식)은 6일 오후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1000배 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윤행생 울산지사장

평화통일 기원법회
제주불교연합봉축위

제주도불교연합봉축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는 11일 제주시 종합경기장 대광장에서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김재경 기자

中 관음법문 사교 규정

중국 정부는 50만명의 불교 신도를 가진 '관음법문(觀音法門)'을 사교로 지목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법륜공을 비롯한 불법단체의 수련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도 2일 홍콩에서 열린 '관음법문' 법회에 대륙신도 수백명 등 수천명이 참가한 사실을 중시하고, 관음법문 신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단소식

조계종

통도사 사리이운·친견

15교구 본사 통도사(주지 신허)는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27일 정오 부도전 및 성보박물관 입구에서 사리 이운식을 거행하고, 6월2일부터 7월30일까지 성보박물관 중앙홀에서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전시회선 부처님 진신사리 7구와 경주 감은사탑 사리구를 비롯 50여기의 국보·보물급 사리장엄구들이 함께 전시된다.

태고종

벽응대종사 49재 봉행

3월 25일 열반한 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기능보유자 장벽응대종사의 열반 49재가 12일 김포 문수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는 인간문화재 일응스님을 비롯 영산재보존회 회원스님들과 문수사 신도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백진결사 구치소 위문

젊은 승가모임인 백진결사(회장 김일로) 스님 10여명은 3일 영등포구치소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문법회를 봉행하고 구치소에 탈수기 10대, DDR 기계 1대 속옷 30벌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울산종무원장에 동파스님



울산교구 제5대 종무원장에 박동파스님(대원사 주지, 사진)이 선출됐다. 동파스님은 1948년울산生으로 65년 관음사에서 석봉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현재 울산교구 종회의장, 동울산사암연합회장 등을 맡고 있다.

천태종

상월대조사 26주 열반재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26주기 열반대재가 30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된다. 총정 도용스님의 증명아래 봉행되는 이번 열반대재에는 총무원장 운덕스님, 종회의장 덕산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2만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444)423-7100

삼광한글학술상 시상식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7일 오후 6시 30분 삼광사 지관전에서 제13회 삼광한글학술상 시상 및 제7회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수상자 시상식을 갖는다. (051)808-7111

진각종

종조탄생절 봉축헌화식

종조 회당대종사의 제99회 탄생절 봉축헌화식이 10일 총인원 종조전과 울릉도 금강원 종조전에서 동시에 봉행됐다.

이날 전국심인당에서는 오전 10시 종조탄생절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경로잔치, 봉사활동 등도 개최했다.

대표전화 1588-5525 개통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구분없이 가까운 심인당과 연락이 가능한 전국대표전화 1588-5525가 1일부터 개통됐다.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1588서비스는 지역번호 구분없이 전국 어디서나 1588국번으로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로 발신자가 현재의 위치에서 1588-5525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심인당에 전화가 연결돼 심인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무량종

청송감호소 위문법회

총무원장 지은스님, 감찰원장 만오스님, 부산종무원장 원우스님, 경북종무원장 만법스님 등 종단 간부스님과 신도 30여명은 9일 경북 청송 제1 보호감호소에서 감호자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날 법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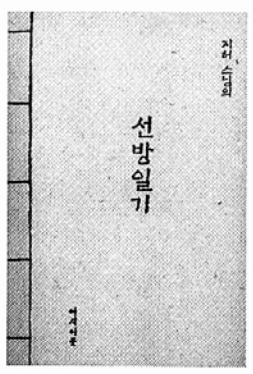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센터
아봐타코스
◐이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본체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회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결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 수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증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포천 만덕사 노천가람 돌부처-석탑 '모인다'

혜숭스님 30년간 전국서 1백여점 수집



◇하나하나 지게로 대보리원에 모셔다 놓은 돌부처와 석탑들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혜숭스님.

신라시대 조성된 목없는 부처님, 조선시대 석가모니불, 일제시대 관세음보살, 화려하게 조성된 미륵불, 허리급은 할아버지 형상의 부처님, 나반존자, 포대화상, 쌍사자석탑, 석가탑 등등….

포천 만덕사 노천가람 대보리원에 가면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의 1백여 돌부처와 석탑을 볼 수 있다.

서울의 허파인 광릉수목원의 울창한 살림이 펼쳐져 있는 성암산 자락 3천여평 노천가람에 모셔진 40여구의 돌부처와 70여기의 석탑·포대화상들은 만덕사 회주 혜숭스님이 직접 지게를 지고 지난 30년간 여기 저기에서 나뒹굴고 있는 것을 모셔다 놓은 것이다.

혜숭스님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던 1970년대 무관심 속에 돌부처·석탑들이 노천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또 그나마 원형이 보존된 것은 일본에 마구 유출되는 것을 보고 성보문화재 보호원력을 세웠다.

대보리원에 모셔진 돌부처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사연이 깃들어 있다. 폐사위기에 있던 사찰의 노스님이 열반에 들기전 모셔온 것, 모호텔에서 한동안 전시했다가 노상에 버려진 것, 목이 잘려 야산에 뒹굴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일본풍의 지장보살은 서울의 부자집에서 이운해 왔다. 이 보살상은 일제시대 조성된 돌부처 입상으로 시대가 바뀌자 집주인이 파불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혜숭스님이 모셔왔다.

스님은 30년간 누구에게도 일체 말을 않고 산속에 위치한 대보리원 부지에 손수 한구 한구 돌부처들을 모셨다. 신도들과 주위사람들도 최근까지 노스님이 산에 부처님들을 모시는지 몰랐을 정도이다. 1천불 1천탑을 염원하고 온갖 정성을 들인 야외가람은 조경이 잘 돼 있어 여느 공원보다 아름답고 말끔하다.

그러나 오직 돌부처 모시는데만 전념해왔기에 만덕사는 변변한 법당건물 하나 없이 마을한켠의 민가 한 채를 법당으로 쓰고 있다. 민가에 돌부처를 주존과 협시불로 모신 법당과 스님방, 주방이 있을 만큼 초라하다. 스님은 "불자들이 편안하게 절에 와서 법문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돌아가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혜숭스님의 1천불 1천탑 염원은 이제 현 주지인 비구니 지순스님에게 이어졌다. 지순스님은 스님의 원력을 이어 돌부처 모시기 불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북에 비료 730톤 전달

한국 JTS, 설탕·분유도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9일 여수항에서 선적식을 갖고 730톤의 요소·인산비료와 15톤 분량의 설탕 분유 등 어린이 영양식을 북한 라진-선봉지역과 온성지역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북한의 4개 농장 1000정보의 땅에 비료, 종자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새로운 영농방식을 시행토록 해 종전의 5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JTS는 올해 함경북도 지역 10개 농장 2000정보로 지원대상을 늘려 북한의 농업생산량 증대로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97년부터 계속해 온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사업을 라진-선봉지역 외에도 청진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유치원·탁아소뿐 아니라 고아원, 장애시설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대학가 장기기증 캠페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가 동국대학교에 이어 8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가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다. 고려대학교 불교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펼친 이날 캠페인에서는 386명이 화장유언서약에, 21명이 각막·장기·시신 기증에 참여했다. 2~4일 동국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504명이 화장유언에, 126명이 장기·신장·시신·각막기증에 동참했다.

한명우 기자

호국적성사 법당 완공법회

25사단 호국적성사(주지법사 이정훈)가 대웅전과 요사채를 증개축하고 9일 법당 완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 혜탕·혜나·청구스님을 비롯해 신도 20여명과 25사단 부대장, 김인수·정인성·이정훈 법사 등 군불자 3백여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의 후원으로 개금불사와 함께 증개축한 곳은 대웅전 불단, 12평 규모의 요사채 건립, 상하수도, 간이 화장실 등이다.

강지연 기자

5·18 민주영령 천도재

광주·전남봉축위원회(위원장 종걸·화엄사 주지)는 16일 오후 광주 망월동 5·18 신묘역에서 5·18 민주영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법회는 현향,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광주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성호스님의 봉축사, 윤혜월성 광주불교여성회장과 고재유 광주시장의 추모사, 광주사암련 회장 천운스님의 법어, 정수만 5·18유족회장의 인사말, 천도재, 연등행진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GMO 반대 생명연대 창립

'유전자조작식품(GMO)반대 생명운동연대'가 12일 조계사 포교원 2층 강의실에서 창립됐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21세기생협연대 등 17개 농업 및 소비자단체가 구성한 GMO반대생명연대는 이날 창립식을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전자조작농산물 및 식품의 표시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생명운동연대의 운동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회를 벌였다. 김재경 기자

제1회 생명운동 아카데미

부산정토회(회장 법륜)는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상반기 생명운동 아카데미 '생태적 삶을 위한 깨달음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환경강좌를 개설한다.

17일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의 강좌로 시작되는 제 1회 생명운동 아카데미는 부산정토법당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씩의 강좌를 열고 6월 10,11일 법륜스님의 강의로 끝을 맺는다. (051)557-2746

천미희 기자



◇행사에 참석한 할아버지들은 "이런 고마운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뻐했다.

'자비릴레이 사찰연합 봉사' 현장

정성스런 가위질 어르신 머리 손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떻게 깎아 드릴까요."

"시원하게 깎아줘…"

10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개최한 '자비릴레이사찰연합봉사'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이·미용 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이·미용 강좌를 수강한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사로 나섰다. 이중 자원봉사자인 어머니를 따라 참가하게 됐다는 미용사 김시호(22·서울 수유동)씨의 익숙한 손놀림은 금새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할아버지 이젠 다 깎았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시원해…" 깎은 머리를 만지며 자리를 일어서는 이창수 할아버지(85)는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부처님 오신날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기분이 좋아!"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자원봉사단체인 국제워크캠프 회원들도 참석했다. 옛 소련연방 벨로루시에서 왔다는 알렌(32)은 "이런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불교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지만 매우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용봉사와 함께 오후로 예정돼 있던 수지침 봉사와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행사가 비로 연기되자 한껏 기대했던 일부 노인들은 다소 실망스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봉축등 아래 앉아 머리 깎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연신 흐뭇한 미소가 흘렀다.

한명우 기자

청주 성각사 복지불사 '난관'

충북경찰청 소유땅 진입로 이용 거절

종합복지원 건립불사가 진입도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청주 성각사 주지 자행스님은 지난 해 9월 충북청원군 상이리 산 7-1 지역 3만여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복지원과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복지원에는 노인 20명, 고아 10명, 장애인 5명 정도를 수용하여 "고아는 노인을 친부모처럼, 노인은 고아를 손주와 같이 생각하고, 장애인도 같이 사는 정이 넘치는 시설로 만든다"는 것이 자행스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로 쓰려는 땅이 충북경찰청 소유이며, 진입로 옆에 충북경찰청 산하 항공대가 있어 보안상 진입로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충북경찰청의 입장이다.

다른 곳으로 진입로를 내라는 충북경찰청의 권유를 받아들여 진입로로 쓸 부지 매입을 검토했으나 턱없이 비싼 값을 요구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다행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4월 25일 "충북경찰청 소유 도로의 일부를 사찰 및 종합복지시설의 진입로로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조계종총무원도 8일 충북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항공대 진입도로 일부를 사찰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충북경찰청은 "사찰측의 진입로 이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국민고충처리위의 의결 직후 이의신청을 냈다.

정성운 기자

목멱산 선우회 5일 창립

5개 불교모임 하나로…회장에 김용정박사

원로학자와 소장학자, 법사 스님을 주축으로 결성된 5개의 불교모임이 하나의 신행단체로 새롭게 태어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엄학회 회장 손창대 박사가 주도하는 삼일선원 선우회와 삼일금강계단 108동우회, 동국대 최봉수 박사를 중심으로 한 근본불교연구회, 대전 보광명사 주지 각성스님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대승불교연구회, 충정사 도윤스님이 지도하는 참선모임이 연대한 '목멱산 선우회'가 5일 남산 충정사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회장은 원로학자 김용정 박사가 맡았다.

목멱산 선우회 발족은 불교모임을 이끄는 대표들이 지식인들의 '패거리 문화'를 지양하고 포교를 통해 불법을 회향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목멱산 선우회는 주석·해설을 겸한 깊이있는 경전공부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태교를 진행하면서 어린이 및 청 장년 포교에 주력할 계획이다. 창립과 더불어 선보인 소식지 〈선원〉은 북리뷰, 영화평론 등을 실어 신세대들이 쉽고 재미있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선우회는 또 충정사 내에 한국역사문화교육원을 설립, 불교역사교육을 통한 우리문화 바로 알기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역사문화교육원을 2001년 한국관광의 해를 대비한 서울시 외국인가이드 위탁교육 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목멱산 선우회는 매주 개최하는 참선수련을 확대해 6월부터는 초심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02)2266-3760

도필선 기자

목탁소리

조계종의 '달라이라마觀'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조계종에서 누가 목숨걸고 불교를 지켰으며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나섰는가. 과연 달라이 라마를 폄하할 자격이 있는가." "서울대가 오죽하면 조계종과 협의없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겠는가."

지난 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백해무익하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항의성 글들이 네티즌과 독자들로부터 빗발치고 있다.

물론 총무원장 스님의 발언 당시 정황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인데다, 외교통상부가 중국에 달라이 라마 방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이전이어서 중국과의 외교·통상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면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세계적인 종교·평화·인권 지도자에 대한 예우도 아닐뿐더러, 같은 불제자로서 자비롭지 못한 실언이었다는 것이 다수 불자들의 반응이다.

'달라이라마 방한 범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법장스님)가 오는 9월초 달라이 라마 방한을 기정 사실화 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준비위원회'로 변경하고, 조계종을 제외한 타종단과 시민단체, 타종교의 유력단체와 연대해 준비위를 꾸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점도 조계종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불자들은 조계종이 지금이라도 달라이 라마 방한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같은 불교도로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도반을 돕는 일임은 물론 침체된 한국불교에 활기를 불어넣고,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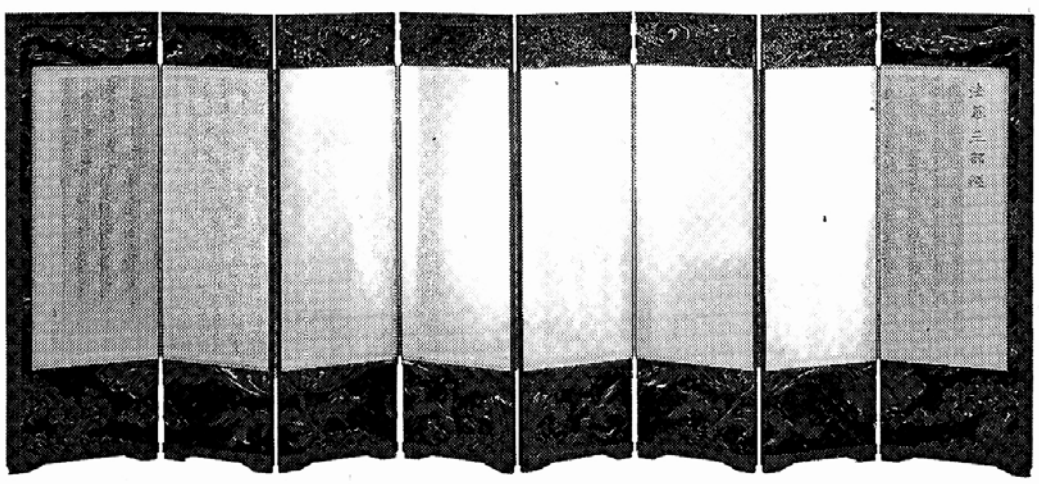
조계종이 선종의 맥을 이은 유일한 종단이라는 아만심으로 티베트를 홀대한다면 대승불교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물론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운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①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낭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 과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주부신행담

천식과 불법인연 ㊦



그림 · 이준석

투병중에도 불교방송 교리강좌 청취

불법은 실천이 중요하다는걸 알았다

내가 불교를 알고 부처님을 모시는 불제자가 된 것은 모태신앙 때문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시골 아주 작은 마을이다. 아들 네 명에 고명딸인 나 하나만 두신 부모님은 나를 유독 귀여워 하셨다. 옛 어른들 대다수가 그러하셨듯 어머니는 일년에 몇 번씩 절에 다니셨다. 고향 근처에는 심학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다. 북한산이나 설악산 같은 곳을 올라보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산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이라고 여긴 적도 있다. 산 중턱 즘에 약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절에 가시곤 했다. 때로는 촌노들께서 서울 나들이 겸 가신다고 "우리는 서울 새 절에 간다" 하시는 것을 들었다. 새 절이란 서울 신촌에 있는 봉원사였다. 어린 마음에 엄마를 따라가고 싶어 마구 졸라 대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 어려서 산을 오를 수가 없으니 네가 크면 데려간다 하셨다. "엄마, 그러면 절은 뭐 하는 곳이야?"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 어려서 엄마 말을 잘못 알아 듣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곳이란다"라고 했다.

엄마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이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다. 그런데 절에 가면 어떻게 하고 오시나 참 궁금했다. 모든 것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나를 데려가 주지 않는 엄마가 얼마나 야속하고 미웠는지 모른다. 오빠들이랑 하루종일 놀면서 엄마가 이때나 오실까 저때나 오실까 기다리는데 엄마가 없는 그날은 왜 그리 허전하고 쓸쓸한지… 누구든지 잠시나마 엄마와 떨어져 보았다면 그 마음 이해할거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절이나 부처님을 어렴풋이 떠올리던 십대 중반에 외육촌언니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가끔 우리집에도 들렸는데 나는 스님이라 부를 줄 모르고 그냥 언니라고 불렀다. 그때는 스님 법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머리만 깎으면 그저 스님이라는 생각 밖에 나질 않았다. 그 스님 언니가 머물던 절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무슨 선원이었다. 그 절에 한 번 가봤는데 비구니 노스님도 계셨고 언니 스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스님들 공부하시는 강원 같았다. 노스님께서 어른들께 언니 스님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해 주셨다. 키는 작지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게 앞장서서 일을 잘 한다고 하셨다. 우리 집에 다니러 온 언니 스님이 나보고 "종례야, 나하고 절에 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노발대발하면서 언니 스님을 막 꾸중을 하시는 거였다. 나 뜨한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라 따라 나서지를 못했다.

그 언니 스님때문에라도 부처님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진 것 같다. 그런데 그 언니 스님이 수행생활에 열심히 정진하던 중에 유방암에 걸려 그만 극락세계로 갔다. 내게 여자 형제가 없어서인지 많이 따르고 좋아했는데 언니 스님이 입적하자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다. 정말 지금도 보고 싶다. 언니가 머물던 그 절을 가보고 싶은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

내 나이 스물세살때 결혼을 하였고 결혼생활 수년 동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활고도 여러 번 겪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부처님이 생각나 우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암자를 찾게 되었다. 암자의 문을 두드리기는 하였으나 절에 자주 가 본적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무작정 남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내게 병마가 찾아왔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통증이 시작됐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곁에 있던 딸을 불렀다. "미영아, 미영아, 헉헉" "엄마, 왜 그래요? 진작 말씀하시지 이렇게 숨도 쉬기 힘드실 때까지 왜 말씀 안하셨어요" 라며 우는 딸애의 소리가 들리면서도 내 아픔에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 한 사나흘인가 치료를 받고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다. 그러나 증상이 더 악화되어 확실한 병명을 알기 위해 다시 입원해 검진을 받은 결과 해소천식이라는 병명이 나왔다. 옛날부터 알고도 죽는 병이 해소병이라는 말이 있다. 그때부터 나는 해소천식을 고치기 위해 병마와 싸웠다. 호흡기 질환계의 박사님이 주치의가 되어 삼년이란 긴 세월을 치료해 보았지만 별 효험이 없었다. 치료도중 병원 예약 전에라도 또 통증이 심해지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집 근처 의원의 의사가 왕진을 온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힘들어 하는 내 모습을 지켜 보던 이웃 아주머니가 아는 큰 스님께 나를 소개시켜 주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시기에는 청와대 근처에 있던 절이었다. 큰스님께 내 병세를 말씀드렸더니 자세히 듣고 계시던 스님께서는 많이 힘들겠구나 하셨다. 스님께 나를 소개시켜준 아주머니는 구병시식이라는 것을 부탁드렸다. 그분의 부탁이어서인지 스님께서 꽤히 승낙을 하시고 기도를 해주셨다. 절망에 빠지면 무엇에든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라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내 병이 낫겠지 하는 기대에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해서인지 며칠이 가기 전에 나을 수 있겠지 하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발병의 원인은 그 옛날에 예방주사 한번 맞아 보지 못해서 홍역이라는 무서운 병을 앓았는데 그 바람기가 몸에 들어와 그것이 지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겨울만 돌아오면 감기가 떠날 날이 없어 괴로운 날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불교방송이 개국했다.

개국한지 일년쯤 지난 뒤에 절에만 맹목적으로 다닐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하고 싶었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리는 교리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교리강좌에 다니면서 덕망 높은 큰 스님들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스님은 탐 진 치와 계 정 혜, 육바라밀 등등 부처님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행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계속)

이종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새천년 - 우리 몸에 부족한 氣를 충전시켜주십시오!!

※ 氣가 좋으면 運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가까운 분들께 선물해 주십시오 ※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장이 잘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체험삶터)

- 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병운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저혈압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주부 장양심)
- 뇌막염아기 건강이 호전(이호준)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봉 (침전체 순금도금)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 전화를 주시면 氣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다로그 氣측정기 무료우송
- 달마도 순금카드, 액자 주문 받습니다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책자우송

韓國氣硏究院 ☎ 02)455-6944 , 02)453-5851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035728 (예금주 :김 건순)



작은 경전 시리즈 마음이 작고 싸게 씁니다

신간!

휴대폰만큼 작게 !
그러나 깨달음의 울림은 크게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작지만 그 안의 깨침은 위대합니다.

민족사 작은경전 시리즈

① 법구경 석지현 스님 역 / 값 3,300원
② 아함경 돈연 스님 역 / 값 3,800원
③ 화엄경 김지견 박사 역 / 값 3,800원
④ 유마경 박용길 역 / 값 3,5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작은경전 시리즈 ⑤ 묘법연화경 ⑥ 능엄경 ⑦ 부모은중경 · 지장경 ⑧ 금강경 ⑨ 반유경 ⑩ 대반열반경 ⑪ 숫타니파타 ⑫ 본생경 ⑬ 미륵경전 ⑭ 기거천재인과경 ⑮ 일린다왕문경도 계속 간행합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 · 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들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차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에 이어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스님 엮음(시인, 불교신문 사장) 46판 양장 / 값 5,000원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